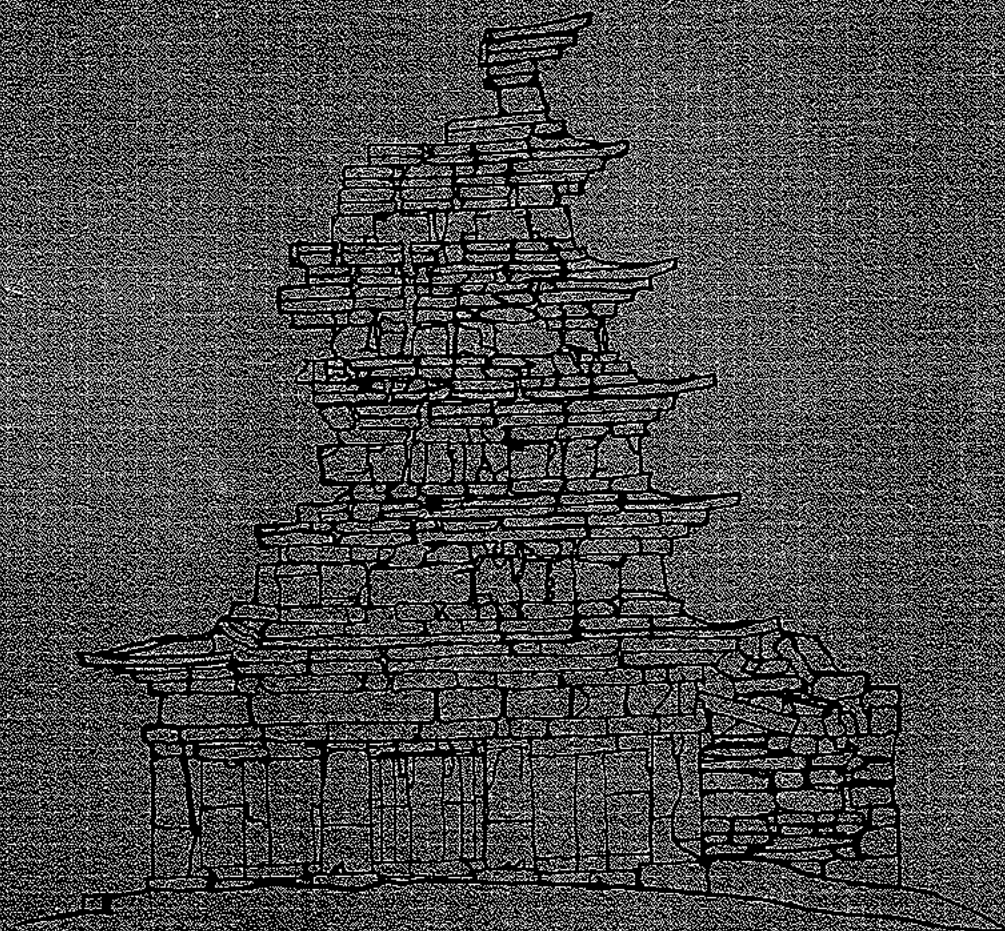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登録日字：1967年 3月23日 登録番号 제 라-1251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7年 1月31日 毎月1回発行 通巻 第95号

197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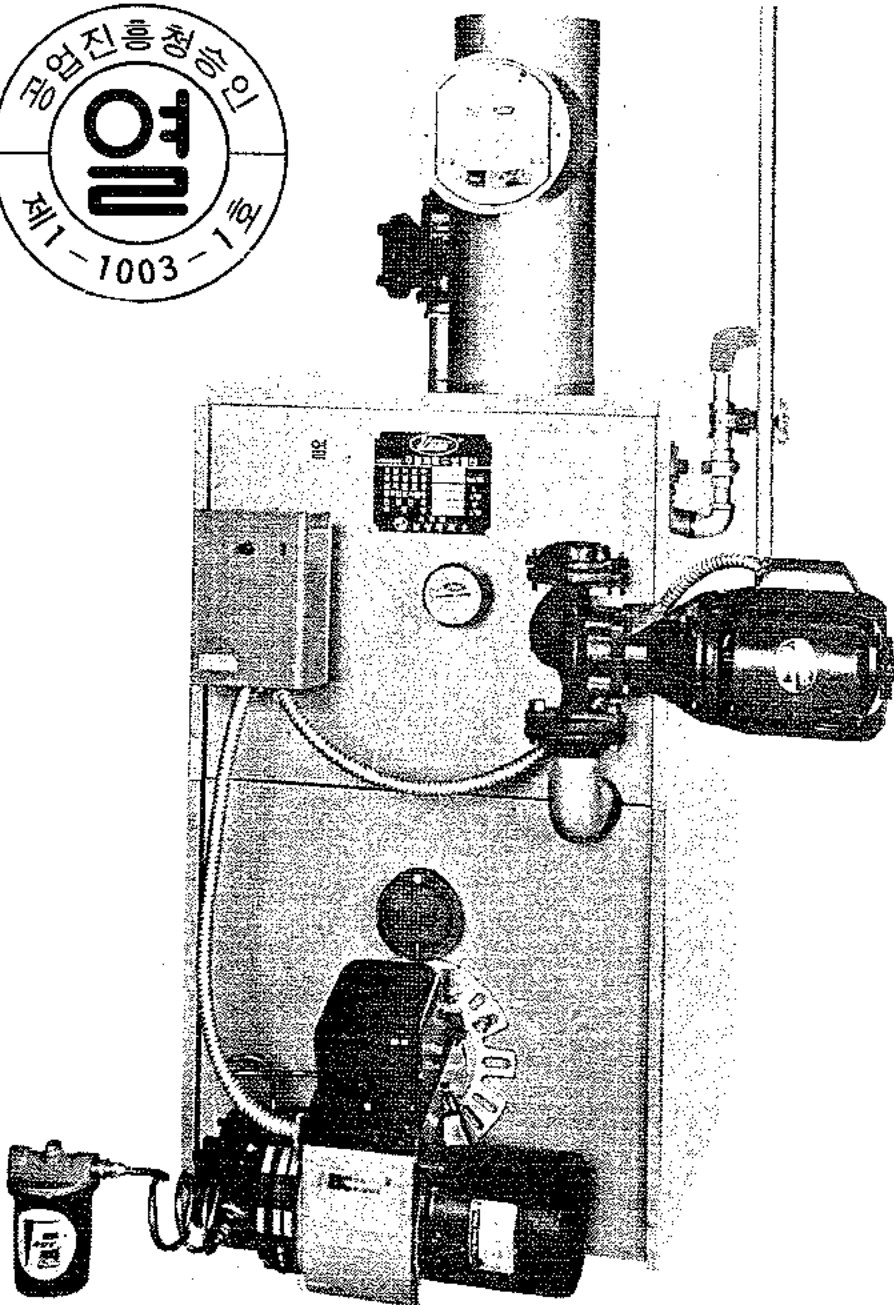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Cast Iron Boilers

놀라운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 난방 / 급탕겸용 ※

Utica 유티카 신
자동 보일러 제품



製造元：三成製作所

유 보 상 사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4街 126-1호

進洋商街 1층2동 나열 109호

TEL: 26-2807 · 26-8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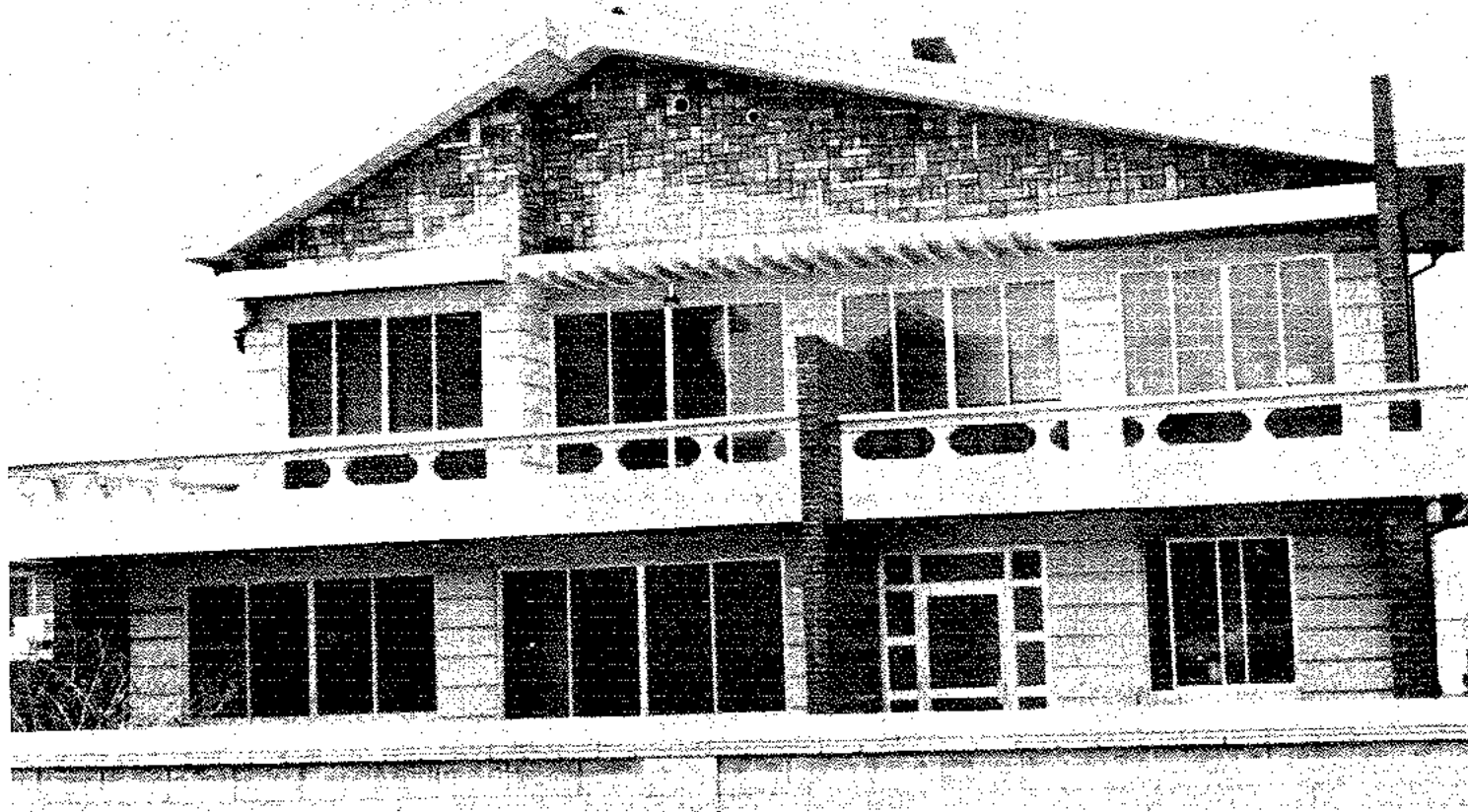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本社：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75 / 電話：(23) 7141~45
仁川工場：仁川市 東區 萬石洞2 / 電話：仁川 (3) 0111~0119
釜山工場：慶南梁山郡日光面伊川里 / 電話 釜山 (52) 4066~4070

제품안내

- ◎ 맑은유리 ◎ 무늬유리
- ◎ 강화유리 ◎ 熱線吸收유리
- ◎ 厚板유리 ◎ 유리블록

国内建物들 (시리즈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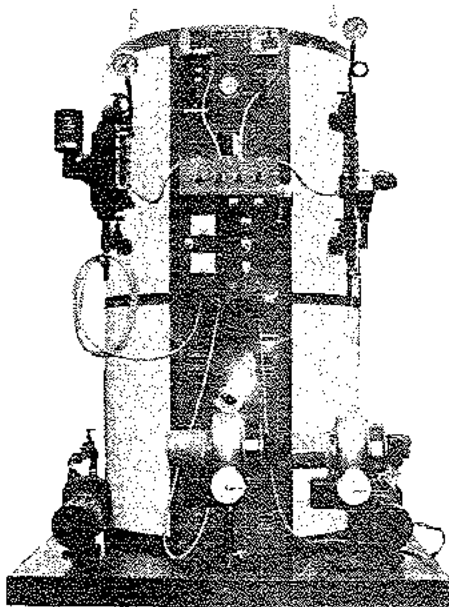
Rocket Boiler

연료비 40% 절약!

**로켓트
보일러**

工産品 品質管理法에 의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 사우디아라비아 · 일본으로 수출되는
ROCKET BOILER

ROCKET BOILER는

증기용전자동보일러

0.5톤, 0.2톤 소형전자동증기보일러가 필요하
신 (압력 3.5kg/cm²) 증기공급의 증기다리기, 갯
등전소, 염색기, 세탁, 기계사 1,000명 이상 취
사용, 화학반응기 등에 저렴한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동이므로 관리원이 필요치 않으
며 연료비와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박용 보일러

1,500TON 미만의 선박난방 및 온수 공급용전자
동 보일러

건조용 보일러

건조실의 온도를 자유 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전자동건조용 (증기, 온수) 보일러 (피혁공장,
섬유공장, 식품공장, 화학공장)

공장 난방용 보일러

건열 20평 ~ 600평 까지 난방용순회동 증기, 온수
(관리자가 필요없음) 보일러

음료수용 보일러

시간당 20TON 미만의 온수한온수 (보일러내수
확전도급) 가 필요한공장 등에 온수공급용 전
자 동 온수보일러

가정용 온수 보일러

가정용난방 급탕 겸용 전자동 온수보일러

전자동 오일 버너

미국 하너벨 자동, 샌드 스탠드 버너 등, 부품
을 적수입하여 제작된 전자동 오일버너

연탄 보일러

온수, 난방, 취사 겸용한 20평 미만의 소형 연
탄 보일러

※ 관리 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를 절약하
서라면 Rocket Boiler에 間議하십시오.

※ Rocket Boiler의 모호함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Rocket Boiler는 영하40℃의 북양어천 신질난방부터 국내 공
장 작업시설, 동남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러분의 안방까
지 우수한 성능으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건축사를 위한 로켓트 보일러 특성표 ※

IYPE ITEM	품 류	로켓트 기름 보일러 (7. 정 용 공 장 용)										로켓트 스팀보일러		로켓트 연탄보일러				
		단 위	KR-40	KR-60	KR-80	KR-100	KR-150	KR-200	KR-250	KR-300	KR-400	KR-500	KRS-200	KRS-500	KR-191	KR-192	KR-193	KR-194
발 열 량	Kcal/hr		20,000	30,000	50,000	70,000	100,000	150,000	170,000	200,000	320,000	410,000	120,000	320,000	3,110	6220	9330	12,440
난방가능면적	Heating Area		20-30평	30-50	50-80	80-100	100-150	150-200	200-250	250-300	300-400	400-500	200	400-600	3-4	6-9	12-15	18-20
관 수 용 량	ℓ		105	122.9	166.6	170	309	356	573	624	920.9	1280	-	-	35	81	105	130
연료소비량	L/Hr		3.5	5.5	8.5	8.11	11.15	15.20	20.24	24.27	32.36	44.56			19공탄	19공탄	19공탄	19공탄
수압시험압력	kg/cm ²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8	2	2	2	2
배관구경	mm		50	50	65	65	75	75	75	75	100	100	65	75	32	40	40	53
연통구경	mm		150	150	200	200	250	250	300	300	350	400	250	360	100	100	100	100
바 나	FP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3/8				
의 형 치 수	φ		470	540	610	610	680	800	900	1000	1300	1400	800	1100	430	650	950	1,250
의 형 치 수	H		1150	1150	1280	1450	1600	1750	1750	1850	2000	2,360	1750	2200	590	590	590	590
중 량	kg		320	340	420	440	480	520	590	620	720	900	720	2400	780	130	293	269
로켓트 보일러이탈가액	단 가		159,400	202,000	256,900	281,400	410,800	612,400	680,700	690,900	1,149,800	2,276,400			50,400	82,460	109,800	148,500
로켓트 바나이탈가액	단 가		194,300	194,300	134,300	246,800	246,800	246,800	246,800	278,300	312,900	312,900						
보일러·바나 합계금	단 가		353,700	396,300	451,200	548,200	657,600	759,200	937,500	969,200	1,462,700	2,589,400						



고려강철주식회사
KOREA STEEL PRODUCTS CO., LTD.

제 1 공장 : 서울 · 영등포구 외발산동 288 - 1

전 화 : 27 - 9358 · 26 · 1135 ~ 6 · 66 - 1363 · 66 - 2810

建築士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丁巳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家庭에 萬福이 깃드시길 祝願
하오며 하시는 일이 願하시는데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過年에 저희 會社를 心慮하여주신 德으로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厚意를 誠意껏 받들것을 約束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會社는 株式會社로서

良質의 電氣를 쓰실 수 있고 財産을 財難으로부터 保護해
드릴

電氣設備과 消防設備를 專門으로 設計하고 施工하여

社會에 奉仕코져 設立되고 運營되는 會社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奉仕하고 있는 것은

1. 各種 電氣 및 消防設備의 設計 監理 및 各種 資料調査 및 事故調査
2. 各種 電氣 및 消防設備의 工事
3. 모든 利益의 社會還元책의 하나로 電氣關係人과 消防關係人을 위한
韓國電氣 圖書館을 開館하고 無料로 開放하고 있습니다. 많은 經驗
에 依한 合理的인 設計와 調査 그리고 良心的인 施工으로 建築士여
러분의 汗팔이 되어 誠心誠意껏 모실것을 約束드리며 아울러 電氣
關係人과 消防設備 關係의 資料가 必要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韓國
電氣 圖書館을 찾으셔서 貴下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
니다. 일일이 찾아뵈고 人事드리느것이 道理오나 于先 紙上을 통해
새해인사 드립니다. 感謝 합니다.



株式會社・良電社 附設韓國電氣圖書館

서울 特別市 龍山區 梨泰院洞 258-269

전 화 793-0570

794-0621

야간전화 793-9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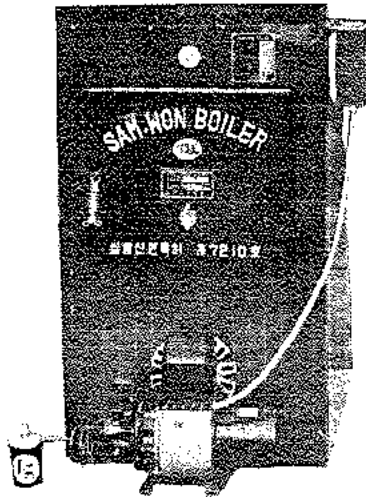
代表理事 李 慶 植 올림.

삼원보일러

삼원기름보일러

미국 SBI 규격품

실용신안특허 제7210호
공업진흥청 형식승인필



특징

- ※완전자동 ※횡영관특수식 3 - PASS
- ※연료비 20% 절감 ※급탕 겸용
- ※보일러청소간편 ※수명 15년 보장

삼원보일러

구분	단위	형식	S-2	S-3	S-5	S-7	S-10	S-15	S-20	S-30	S-40	S-50	S-60
발열량	Kcal/Mr		20,000	30,000	50,000	70,0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연료소비량	L/Hr		2.4	3.5	6	8.4	12	17.5	24	35	48	60	70
수압시험압력	kg/cm ²		4	4	6	6	6	7	7	7	7	7	7
잔열면적	m ²		2.15	2.68	3.71	5.62	7.4	11.57	16.26	22	30	38	44
연통직경	mm φ		200	200	250	250	250	250	300	400	450	500	500
배관구경	mm A		50	50	65	65	80	80	80	100	100	100	100
바어내	Type		GUN 1/8	GUN 1/8	GUN 1/8	GUN 1/4	GUN 1/4	GUN 1/4	GUN 1/3	Revolvy 1/2	Revolvy 1/2	Revolvy 1/2	Revolvy 1/2
외형지수	W	cm	52	52	57	61	61	80	90	112	122	136	136
	H	cm	91.5	91.5	105	122	122	140	152	190	200	210	210
	L	cm	55	70	82	92.5	123	125	150	170	200	220	250
난방면적	평		30~40	40~60	60~100	100~140	140~200	200~300	300~400	400~600	600~800	800~1,000	1,000~1,200
사용연료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방카디젤	방카디젤	방카디젤	방카디젤	방카디젤
가	격	원	130,000	160,000	200,000	250,000	330,000	440,000	550,000	방도	방도	방도	방도

삼원 보일러 연탄용

Smile Boiler

특징 스마일보일러

- ※내부표면특수처리제작
- ※상부 복사열 100% 흡수
- ※탄재가 밑으로 처리됨
- ※수명 일반품의 3배
- ※상하부 2중가열 특수식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연탄보일러

형식	SB 12	SB 22	SB 22A	SB 13A	SB 23A	SB 33A
구분	2단 난로고정식	쌍 2단 난로고정식	쌍 2단 난로고정식	3단 난로고정식	SB 13A 2 조조립식	SB 13A 3 조조립식
평균발열량 Kcal/Mr	2,500	5,000	5,000	3,800	7,600	11,400
난방면적 평	3~5	6~10	6~10	5~7	10~14	15~21
사용연료종류	22종탄					
수압시험압력 kg/cm ²	3	3	3	3	3	3
배관구경 mm	25	32	32	32	32	40
연통구경 mm	65	75	75	75	90	90
탄재처리구조	재래식			반자동식		
가	격	30,000	60,000	70,000	48,000	90,000
					90,000	125,000

실용신안 특허출원
1845 · 1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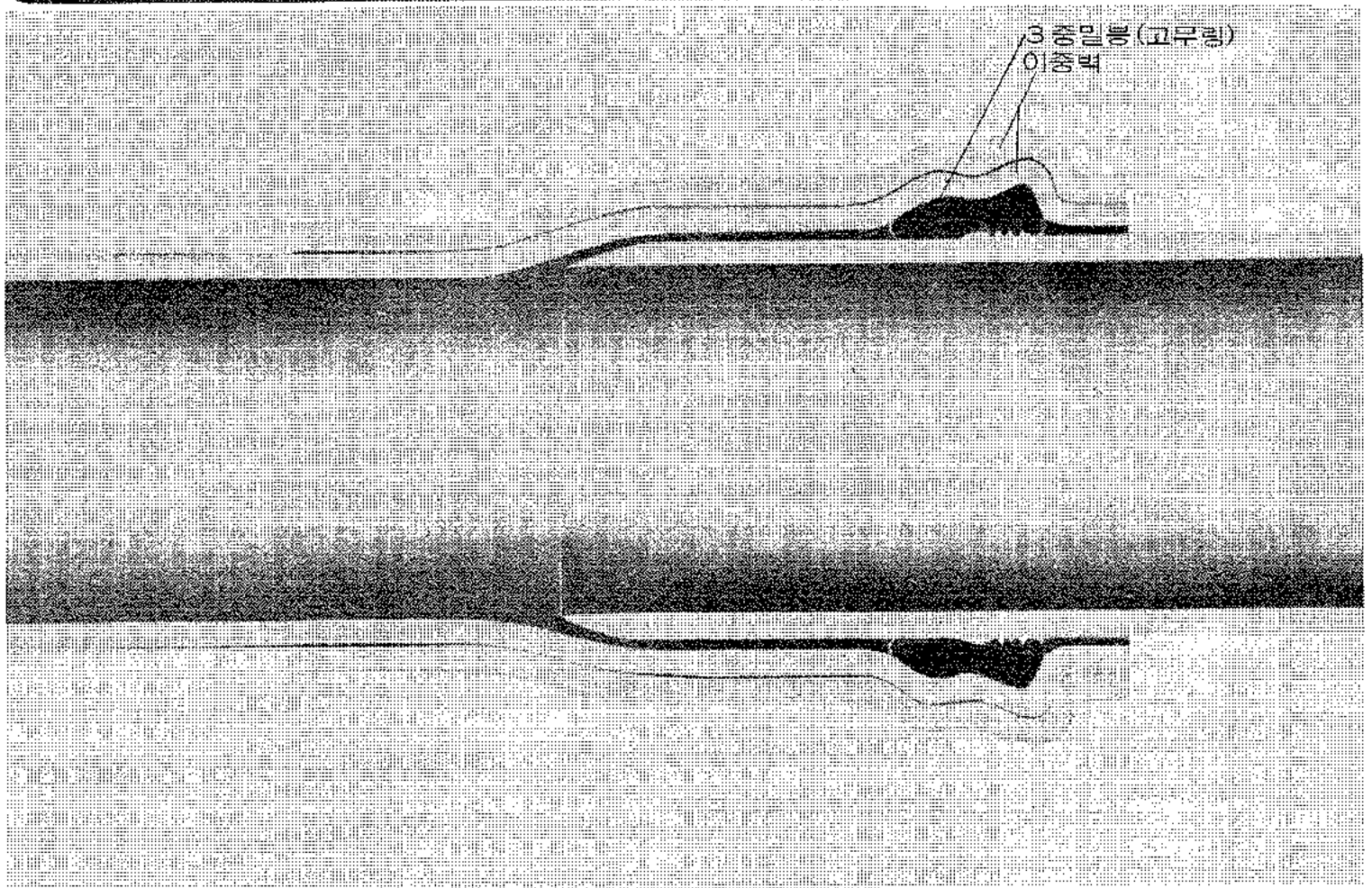
용도 : 주택, 아파트
병원, 여관



주식회사 삼원기계

서울 영등포구 등촌동 148
TEL. 63-8872, 전시장 42-8550

50 mm에서 150 mm까지



진양PVC편수칼라관B형KS획득

이제 우리 진양技術陣에서는 수요가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영원하던 상수도의 누수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PVC파이프 편수칼라관 B형 7種 (50mm~300mm)과 동이음관 3種 (75mm~150mm)을 여러분에게 내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업진흥청으로 부터 KS 표시허가(제386호 제1273호)를 획득 하였으며 이 품종은 고무링이 3중으로 밀착된 D.T. SYSTEM으로 개발되어 있어 수요가 여러분에게 더 한층 편의를 도모하여 줄것입니다.

● 진양 D.T. SYSTEM이란?

D.T. SYSTEM (Doublewall Triple Rubber Sealing System)은 2중벽 3중 밀봉효과가 완전한 System입니다.

● 진양 P.V.C파이프 편수칼라관의 특징

① 고무재질이 우수하며 영구적이며, 위생적이다. ② 시공이 간편하여 전천후 시공가능 하며 점착제가 불필요하다. ③ 시공속도가 빠르며 시공비가 절감된다. ④ 신축계수의 역할을 겸한다. ⑤ 수중배관이 가능하다. ⑥ 부등침강에 안전하다. ⑦ 솔벤트 크랙킹(Solvent Cracking)을 방지한다. ⑧ 수압에 안전하다. ⑨ 누수율이 제로(0)이다.

진양PVC 편수칼라관



진양화학

U. D. C. 69 / 72 (054-2) : 0612 (519)

月刊「建築士」(通卷 95号)

1977 1

目 次

■ 新年 辞	(2)
建築士の 새로운 座標	金 熙 春 (4)
国土造景 (産業造景을 中心으로)	尹 澄 五 (8)

□ 會員作品	(15)
--------	------

가. 병 원	김동규	나. 주 택	김인배
나. 은 행	김정철	다. 주 택	윤봉원
다. 협동조합	김광서	라. 주 택	김영기
라. 교 회	연재진	오. 주 택	홍철수

□ 會員코너	崔 昌 奎 (35)
--------	------------

技術資料	李 丞 雨 (41)
紀 行 文	羅 永 均 (53)
海外作品	JA+AA (호주) (63)
著作権法과 建築士	崔 昌 奎 (79)
建築法規質疑応答	韓 奎 峯 (81)

□ 會員動靜	(84)
協會記事	(87)
月間動靜	(88)
建築許可統計	(89)

表紙說明: 미륵사지 석탑 (백제시대)

編纂委員會	
委員長	金 斗 燮
委 員	金 仁 錫
"	金 眞 一
"	辛 鉉 植
"	安 箕 泰
"	俞 景 哲
"	李 璟 會
"	李 文 輔
"	黃 一 仁

發行人兼 編輯人・李圭福 / 登録番号・第 라-1251 号

登録日字・1967年 3月23日 /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7年 1月31日 / 通卷 第95号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89番地

(非売品)

電話・73-9491~2

全國會員의 總和로



新 年 辭

우리 모두의 希望과 期待속에 丁巳年 새해를 맞이 했습니다.

于先 會員諸位의 家庭에 萬福이 깃드시고 뜻하시는 바가 기어이 成就되시기를 祈願해 마지 않습니다.

會員여러분!

지난 한해 會員여러분들께서는 建築界의 不況으로 業務面의 萎縮등 많은 苦難을 겪으셨고 協會로서도 住宅建築許可制度 改善 方案實施에 따른 우리의 對應態勢 確立등 크고 작은 많은 課題에 直面하여 休日없는 한해를 보냈든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會員여러분들과 協會가 겪었던 술한 苦難은 前進을 爲한 터전이 되고 앞날을 設計하는데 貴重한 經驗이 되었으리라고 本人은 믿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努力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會員여러분!

우리들의 새로운 覺悟와 次元을 달리하는 業務遂行 態勢 確立을 促求하는 가운데 丁巳年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一部에서는 建築景氣의 回復 및 政府의 果敢한 住宅建設政策에 힘입어 建築士業務의 相當한 伸張을 期待하고 있습니다마는 建築景氣가 回復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共同利益 追究과 共同權益擁護를 위한 굳건한 團結이 없는限 外形的인 業務伸張은 있을 망정 참다운 內實을 期待 할 수는 없을것이 分명한 만큼 本人은 會員여러분들에게 今年에는 우리들 모두가 內實을 다지는데 協心合力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本人은 會長으로서 會員여러분들의 先頭에 서서 우리 모두의 權益과 福利 增進을 위해 奉仕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가지 協會 運營方針을 밝혀 두고져 합니다.

끊임없는 前進을 期約 !

첫째, 會員여러분들의 絶對的인 贊同과 協調로 이루어진 統合豫算의 效率的인 執行과 總會에서 承認해 주신 事業計劃의 效果的인 遂行으로 協會의 基盤을 더욱 공고히 하고 內的으로는 紀綱確立, 外的으로는 새로운 建築士像을 定立하여 會員여러분들을 위해 存立하는 協會의 所任을 다하고저 합니다.

둘째, 本部 및 傘下 11個 支部를 網羅한 強力한 指揮体制를 確立하고 任員은 名譽職이라는 觀念에서 벗어나 一線에서 會員들을 위해 奉仕하는 役軍으로서의 姿勢를 가다듬고저 합니다.

셋째, 全會員들께서 渴望하고 또한 協會가 全力投球했던 몇가지의 宿願事業을 今年에는 모두 마무리 짓는데 協會의 全機能을 動員하고 全任職員이 總力を 傾注하고저 합니다.

네째, 會員福祉 向上을 위한 現實的이고도 合理的인 長期事業을 計劃하고 이를 段階的으로 實踐에 옮겨 所期の 成果를 거두어 會員여러분들에게 報答하는 터전을 마련하고저 합니다.

다섯째, 政府가 安保의 次元에서 推進하고 있는 庶政刷新을 더욱 生活化하고 새마을 事業에 보다 더 果敢하게 參與함으로서 政府施策에 積極呼應하는 同時 對 國民奉仕 姿勢를 굳건히 定立하여 우리들에게 賦與된 國家的 使命을 完遂하는데 全力을 다하고저 합니다.

會員 여러분들의 健勝健闘를 거듭 기원하면서 丁巳新年 새해人事에 가름하고저 합니다.

1977年 元旦

大韓建築士協會
會 長

李圭福

建築士의 새로운 座標

金 熙 春 (서울工大教授)

建築界의 概觀: 建築이란 人間이 살 집을 만드는 作業이다. 이 作業의 主体가 建築家이며 建築家에게 社会的으로 公認된 役割을 부여하기 위하여 約束된 地位가 建築士이다. 建築士는 建築家の 社会的 名稱이며 其實은 同意語인 것이다. 本稿에서는 建築従事者 一般을 이야기할 때 建築家로 특히 그 職分과 結付시켜 指稱할 必要가 있을때 建築士로 그 表現을 混用하기로 한다.

1964年 4月 建築士法이 確定되어 建築士의 名義로 設計業務가 進行된 것이 그間 12年이 經過하였다.

이 짧은 建築士의 年輪을 쌓아가는 동안 建築界는 国内外로 많은 變化의 潮流에 対処하지 않을 수 없었다.

国内的으로는 經濟開發과 人口의 急增으로 새로운 規模와 機能을 갖는 建築物의 需要가 크게 늘게 되어서 1960年代 後半의 建築界는 바람직한 職種으로서 脚光을 받을 만큼 跳躍의 機會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質的量的으로 現代의이라고 할만한 建築物들이 많이 設計 施工되기 始作하였다.

國際적으로는 巨匠時代의 遺産이 漸次로 衰退의 징후를 보이면서 새로운 表現과 技術의 冒險이 유럽 및 美國을 中心으로 展開되었던 時期이기도 하였다.

특히 機能主義로 불리우는 國際主義 建築 樣式의 쇠퇴에 對한 反作用으로서 나타난 地域的 傳統性을 回復하자는 一連의 國際的 潮流는 韓國建築界에 있어서 不斷한 論

議로 이끌어 졌다. 이것은 現代의 技術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劃一的인 機能表現의 現代建築으로부터 過去에서 오늘에 이어지는 建築의 傳統性을 回復하자는 地域主義的 自我發見의 要求인 것이다.

한편 建築界에 있어서 60年代 後半의 이러한 아카데미한 雰圍氣는 1970年代 中半에 이르러 創作의 方向에 있어서 商業主義 내지는 個人主義的인 傾向으로 通俗化 하는 方向을 보이게 되면서 建築을 文化의 한 바탕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努力들이 많이 쇠퇴하고 있는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人口의 都市 集中으로 야기된 異狀建築景氣는 都市建築物의 基本이 되는 住宅에 있어서 需要의 急增을 보았고 이에 便乘한 一部 住宅建設業者들은 建築을 創作의 對象으로부터 不動産 投機의 對象으로 간주하여 構造 意匠 및 計劃에 있어서 大衆의 기호에 지나치게 迎合하여 수많은 粗惡한 作品들을 生産해 온 것은 周知의 事實인 것이다.

建築은 消費材와 달라서 일단 生産된 粗惡品은 이 時代의 遺産으로서 后孫들에게 傳達되며 國際적으로도 그 나라 文化尺度의 한 基準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次元에서 오늘날의 韓國建築이 果然 우리 時代 文化의 眞情한 表情일 수 있는가 라는 反問을 던질 때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危機感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韓國建築界는 다가오는 80年代의 未來像에 對處하기 위하여 새로운 座標을 設定할 때가 온 것이며 그 主役은 建築士 自身들인 것이다.

建築士의 課題: 本稿에서는 韓國現代建築의 主体로서 建築士가 當面한 課題를 첫째, 傳統性의 回復 둘째, 建築을 環境의 一部로서 擴張된 概念으로 바라보는 問題等을 두고 이러한 課題에 直面한 建築士로서의 새로운 價值觀의 問題에 關해서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西歐에 있어서 1900年代 前半은 새로운 技術 새로운 文物 새로운 時代 精神을 孕胎하기 위한 陣痛이 戰爭과 더불어 수행되어 20世紀 文物의 特質을 뚜렷이 보여준 격동의 時期였다.

建築의 分野에 있어서도 지나간 時代의 技術과 創作精神을 清算하고 20世紀 建築이 나아갈 方向을 提示한 이른바 巨匠建築家들이 誕生한 것도 이 時期였다. 巨匠들의 誕生은 결코 時代의 偶然이 아니고 時代의 要求에서 였고 이들은 建築에 처한 이 時代의 要求가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깨달은 先覺者들인 것이다.

그러나 巨匠建築家들에 依해서 樹立된 現代 建築의 方法論은 終戰과 더불어 새로운 評價를 받기에 이르렀다.

1950年代 以後 技術社會의 모습이 機械技術로부터 電子技術로 變貌하게 되었고 戰爭後 復舊된 經濟의 바탕에서 社會는 電子技術 社會의 樂觀的인 未來像을 期待하게 되었다.

이러한 樂觀은 機械工學의 可能性 으로부터 電子工學技術의 可能性의 바탕위에서 建築과 都市의 새로운 方法을 提示하고자 하는 이른바 未來派 建築家의 誕生을 보게끔 되었다.

그러나 技術의 無限한 可能性 및 進歩의 期待아래 새로운 世代의 建築家들에 依한 建築創作의 精神 및 技術에 關한 冒險과 試圖들은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오일쇼크로 인한 世界景氣의 不安 冷戰의 持續 人口의 增加로서 야기된 環境의 問題等의 理由로 해서 주춤하게 되었으며 建築의 試圖들이 보다 現實性을 띄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있어서 現代建築의 潮流는,

첫째, 國際主義 建築樣式의 構造 및 表現의 劃一性에서 脫皮하여 建築 그 自体의 独自の 表現의 意味를 尊重하며 人間性을 回復하자는 命題가 一連의 地域主義로 비화하는 傾向을 보이는 것.

둘째, 人口의 增加로 야기된 環境問題의 一環으로서 보다 人間이 살만한 都市를 만들고 定住할 住居 環境을 具備하는 力法에 關한 模索.

셋째, 보다 效率적이고 科學的으로 建築과 都市를 計劃, 設計, 施工하는 作業 시스템 改造의 問題. 等으로 要約될 수가 있을 것이다.

建築의 傳統性: 이제 이와 같은 現代 建築의 樣相아래, 韓國建築界가 처한 立場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한 立場에서 建築士의 새로운 座標을 設定해 보기로 한다.

現代 韓國建築界가 겪은 가장 큰 不幸은 日帝에 依해서 建築의 傳統性이 他意的으로 斷絶되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時期的으로 西歐 各國의 現代建築이 巨匠의 時代를 맞이하여 成熟期에 접어들 무렵 韓國의 建築界는 日帝에 依해서 一種의 折衷主義 樣式으로 現代建築을 받아 들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韓國建築界가 겪은 타격은

첫째, 過去로부터 이어오던 建築의 傳統性과 方法論이 現代建築의 새로운 樣相과 接觸하여 이른바 文化相互 衝擊의 陣痛을 거쳐 韓國의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傳統性의 바탕에서 現代建築의 起點을 이룰 수 있는 機會를 가질수가 없었다는 것.

둘째, 過去의 匠人的인 建築家의 建築 方法과 現代의 意味의 建築家의 方法을 이어주는 채널이 없었다는 것.

셋째, 現代 建築의 모습을 一種의 折衷主義를 통해서 받아들여 現代 建築의 眞面과 接할 수 있는 機會를 일찍 가질 수 없었다는 것.

等으로서 이는 傳統性의 斷絶위에 옮지 못한 外來文化의 移植이라고 要約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1945年 8. 15日 解放이 되고 美軍政庁이 들어서면서 社會의 底辺에서 부터 새로운 國家에 처한 期待感이 近代化라는 至上命題로 代辦되었고 近代化=西歐化라는 思潮가 事大主義의 한 殘滓로서 풍미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口號의 開放과 더불어 美國을 通하여 밀어닥친 外來文物의 洪水는 建築分野에도 미쳐 西歐의 現代建築에 批判없이 魅了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아무런 받아들였던 現代 建築은 그 精神이 아니라 단지 그 껍질이 있다는데에 注意를 환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같은 潮流는 60年代의 經濟復興과 더불어 建築景氣의 붐을 이루게 되어 量的 質的으로 現代建築의 面貌를 갖춘 建築物이 많이 지어짐에 따라 有能한 新進 建築家들은 그 나름대로의 創作意志가 發揮될 수 있는 機會를 가질 수 있게되어 어떤 意味로는 韓國 建築界에 아카데미즘이 誕生할 기미마저 보이게 되었다.

특히 엑스포 70" 韓國館 設計에 즈음한 時期에 이러한 霧圍氣는 高潮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70年代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霧圍氣는 個人主義的 商業主義의 傾向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勿論 갑자기 建築의 質의 水準 보다는 그 量的 必要性이 增大한데에도 그 理由가 있을 것이나 우선은 建築行為의 主体者로서의 建築家의 責任을 外面할 수 없다.

現在의 指導的인 建築家들은 名実共に 韓國現代 建築의 精神的 支柱로서의 役割 그 作品과 活動에서 다할 수 없었음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으며 新進建築家들은 그들의 內的 成熟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外的 與件에 더욱 圧到되어 있어서 建築의 方法을 너무도 쉽게 看過해온 듯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60年 後半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作品의 根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아마도 美國과 日本의 影響일 것이다.

現代建築創作의 모티브를 절실한 體驗으로서가 아니라 外國 資料等의 間接接觸을 통하여 모방적으로 받아 들여 그것의 어떤 形態 어떤 精神 어떤 디테일의 색다른 것에 대한 滿足에 빠져 버린 듯한 것은 가장 有能한 建築家의 자가 當작의 行爲라고 하겠다.

우리는 비록 짧게 겪은 建築界의 年輪동안이지만 그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의 內面에 우리의 雰圍氣 우리의 技術 우리의 디테일 등을 謀索하는 真正한 意味의 創作의 陣痛이 있었는가를 反問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扶余博物館 國立綜合博物館等의 設計와 더불어 야기된 이론바 傳統主義 地域主義 風土主義等의 어귀로 表現되고 있는 建築에 있어서의 歷史의 正統方向에 關한 論亂이 저널리즘을 통하여 惹起된 것은 韓國 現代 建築史의 한 이포크로서 記錄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傳統論議는 國立劇場 서울市民會館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직은 過去의 디테일 내지는 形態의 律調를 現代의 手法으로서 메포메이션화하는 次元에 達한 感覺이 있다해도 國立綜合博物館의 경우보다는 훨씬 進歩된 傳統性 具現의 한 努力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建築은 그 時代의 거울이라고 한다.

이것은 建築을 構成하고 있는 모든 要素가 同時代의 要求에 對한 自然스런 反影이라는 뜻일 것이다.

따라서 어느 時代의 建築에서도 거기에는 그 時代의 社會와 文化와 技術을 가늠할 수 있는 尺度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時代의 特質이 하나의 秩序體系로 要約될 수 있을때 이를 樣式이라고 한다.

表現된 結果로서의 過去의 樣式 그 自体에서부터 建築의 傳統性의 根源을 찾자고 하는 努力은 建築史研究 過程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러한 努力의 短的인 表現은 어떤 경우에는 古典主義로 어떤 경우에는 折衷主義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一種의 過渡期的 現象에 不過하다고 본다.

建築의 傳統性을 過去의 具體的인 樣式의 寶庫에서만 찾자는 努力은 建築史를 통하여 過去를 再生하는 意味를 갖고 있을 뿐인 것이다. 우리는 表現된 것 裏面에 감추어진 時代를 超越한 價值를 갖는 것 所謂 建築史의인 連續性을 發見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過去의 모습의 再

現에서가 아니라 오늘날 韓國에 있어서 建築에 對한 가장 切實한 要求가 무엇인가를 發見하는 姿勢인 것이다.

現實의 要求가 가장 切實하게 反影되었을때 이미 그 裏面에는 建築史의인 連續性이 內在하게 되고 真正한 意味에서의 傳統性이 樹立되는 것이다.

이러한 努力의 方法으로서 우리는 비로서 建築史의 寶庫를 들추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歷史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史實이 아니라 現代와 對話가 可能한 精神을 發見하는데 있다.

우리는 國立綜合博物館을 起點으로 本格化된 傳統論議 및 이러한 論議의 對象으로서 그 以後에 建立된 몇몇 建築物이 韓國現代建築의 한 結論으로서 把握하기 보다는 새로운 胎動을 向한 觸媒로서의 過渡期的 現實로 보고 싶다. 그것은 옳은 것의 意味를 明確하게 하는 證據로서의 또한 意味를 갖기 때문이다.

이제 韓國建築이 그 表現精神에서 獨自의인 價值를 갖기 위해서는 建築의 傳統性을 찾는 것이 그 課題이다.

이미 技術의 次元에서 建築은 西歐에 依해서 석권되어 있다.

우리는 이 技術을 綿密히 檢討하여 받아 드리고 同時에 韓國特質의 次元에서 우리의 것이 찾아져야 한다.

오늘날의 建築은 建築의 表現 그 自体에 있어서 英雄的인 建築家를 必要로 하지 않으나 그 表現의 精神에 있어서의 리더쉽을 要求하고 있다.

日本의 現代建築이 胎動하는 過程에 있어서 몇 사람의 日本建築家들이 日本建築의 傳統性 樹立에 끼친 功勞가 無視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韓國建築界에 있어서도 現實의 가장 切實한 要求를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建築의 모습일 수 있는 建築을 만들 수 있는 建築家— 그것이 個人이던 集團이던간에 誕生을 期待하고 싶다.

그러한 建築家의 비전이 正當한 것이라면 이는 모든 建築家의 精神에 反應되어 建築의 新局面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以上으로 質의 次元에서 韓國建築界가 가야할 길이 傳統性의 樹立에 있음을 生覺해 보았고 이러한 追求는 建築을 文化의 한 断面으로서 把握했을 때에 그 意味가 있게 된다.

環境創造者: 建築을 必要性的 觀點에서 바라볼 때 특히 그것이 都市의 一部로서 把握될때 우리는 이제 韓國建築界의 座標를 環境의 問題와 結付시키지 않을 수 없는 與件에 處해 있다.

20世紀 技術文明은 삶의 進歩를 가져다주는 同時에 人類社會의 精神의 側面에 環境의 危機라고 하는 함정을 갖여다 주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 根源은 主로 人口의 增加에 따른 急激한 都市化 및 工業化의 展開에 두고 있다.

環境에 關한 危機意識은 오늘날에는 食卓의 話題거리가 될 程度로 普遍化되었음은 그 深刻度的 輕重을 헤아리게 한다.

建築은 漸次로 그 独自の인 意味로부터 都市環境의 一部로서 把握된다.

獨自性이 豊富한 建築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環境의 一部로서의 用과 美를 다하지 못할때 그것은 이미 훌륭한 建築物일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把握되는 現代建築이 追求하는 길은 첫째 都市에서 부터 人間性을 回復하는것 둘째 增加하는 人구를 收容할 居處를 効果的으로 마련하는 것. 셋째 資源 및 에너지의 危機로부터 建築을 救出하는 것.

넷째 環境의 一部로서의 建築物을 만드는 建築專門人의 姿勢와 作業시스템을 새로운 要求에 맞도록 改造하는 것 等인 것이다.

都市의 建築密度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都市建築은 이제 그 自體의 形態와 機能을 다른 建物 및 街路 自然과의 複合關係에서부터 把握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西歐의 建築教育에 있어서 都市設計學 및 造景學 等の 比重이 漸次로 高潮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緣由에서이다.

韓國建築界에 있어서도 都市計劃法 및 建築法을 漸次로 日照權 駐車問題, 美觀問題等에 注重하여 制度化하고 있는 實情은 建築을 環境의 一部로서 보고져 하는 制度的 努力의 一環인 것이다.

그러나 制度는 언제나 그것을 運用하는 人間의 智慧에 따라 거기에 順應할 路와 離脫할 路가 同時에 열려있는 것이다.

問題는 建築家의 社會的인 職分으로서의 建築士들이 建築을 環境의 一部로서 理解하고 그러한 理解의 바탕위에서 創造의 意味를 찾는 良識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을때 비로서 制度가 그 機能을 發揮할 수 있게 된다.

建築士는 그 教育의 段階에서부터 資格獲得의 過程에서 이제까지는 그 技術的 機能的인 側面에서 그 資質이 닦여지고 評價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建築 環境에 對한 基本的인 소양과 識見이 아울러 教育되고 評價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建築士는 漸次로 그 價值觀을 職能의 次元에 그치지 말고 環境創造家로서의 擴張된 意味에 두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스스로의 昇格이 곧 建築 環境의 質의 改善에 直結됨을 새로운 方向으로 느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創造의 欲求를 個人主義的인 形態表現의 具現에 두는 所謂 디자인으로서의 藝術趣向의 感想主義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할 것이며 同時에 一部 建築主의 私利에 迎合하여 形態 및 技術에 關한 建築의 基本的인 要素조차 具現化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許可爲主式 建築作風은 良貨를 물아내는 建築界의 患貨인 것으로서 스스로의 自覺과 야에 對한 制度的 措置가 아울러 촉구된다.

우리는 新開發地區에 無數히 세워지고 있는 根 根源을 알 수 없는 住居建築樣式의 虛飾性이 곧 이 時代 住居建築의 모습으로 남겨 주어야 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建築이 時代의 必然性에서 環境의 一部가 되버린 以上 匠人으로서의 建築家 藝術趣向의 素養은 이미 建築家에게 必要條件이지 充分條件은 아니다.

環境의 一部로서 建築이 갖는 意味의 바탕에서 建築家의 社會的 役割을 把握할 때 그리하여 環境創造家로서의 擴張된 意味의 價值觀이 體得될 때 비로서 充分히 條件을 갖춘 建築士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擴張된 價值觀아래서 보다 複合的인 機能을 갖는 都市 環境을 다룰 수 있는 建築士는 個人으로서 보아도 새로운 組織 構成이 必要하게 된다.

環境의 一部로서의 建築은 이미 그 構成要素가 너무도 複合的이어서 그 問題의 解決은 한 個人의 判斷力의 限界를 훨씬 超越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建築과 都市는 建築 그 自體의 手法 以外에도 電算學 社會 工學等 여러 複合分野의 緣 계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각 分野의 高度의 테크닉이 하나로 集積되고 構造 設備 計劃의 모든 建築手法에서 철저한 探索과 試圖들이 모아질때 비로서 建築의 完製品이 誕生할 것이다.

오늘날의 韓國建築界의 一般的 設計시스템으로는 앞으로의 建築에 對한 새로운 要求와 情報 그리고 複合的인 機能解決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現在 大分부의 建築物은 設計期間, 設計組織, 設計費 等の 限界로 해서 철저한 研究가 必然的으로 缺如될 수밖에 없고 항상 未完成의 段階에서 그 끝맺음을 본다해도 할 수가 있겠다. 새로운 座標: 이상으로 韓國建築界가 設定해야 할 座標를. 첫째, 傳統性을 回復하는 것.

둘째, 建築을 環境의 一部로서의 擴張된 意味로 把握하는 것. 等으로 設定하고 이렇게 設定된 座標 위에서 建築士의 役割 및 姿勢에 對하여 살펴 보았다.

建築士는 이제 建築史的인 傳統性을 樹立할 轉機를 맞이하고 있으며 實際的인 建築行爲의 領域이 都市의 스케일로 넓어짐에 따라 複合的인 問題解決을 위해서는 個人的인 職分의 次元에서 組織的인 協同作業의 次元으로 變革시킬 必要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現實은 이제 作家로서의 建築士보다는 社會的 指導者로서의 建築士를 要求하고 있으며 이러한 要求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建築教育에 있어서 環境 設計의 意味 傳統性 回復을 위한 教育의 再檢計 새로운 概念의 設計者組織의 作業에 適應하기 위한 協同作業 및 體系의 設計 方法論의 教育 等の 側面이 謀索되어야 하겠다.

建築에 關한 여러가지 制度 및 그 運用 역시 環境을 改善시키기 위한 方向에 力點이 두어져야 할 것이며 建築界의 여러 組織 團體 역시 그 役割을 建築士의 質의 向上을 위한 活動의 展開에 그 目的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 國 土 造 景

〈産業 公園造成을 中心으로〉

尹 潁 五 韓國綜合造景公社
研究開發室長

目 次

1. 國土造景의 必要性
2. 國土造景의 方向
3. 産業公園의 造成
4. 産業公園造景의 方向
5. 産業公園의 造景計劃 및 事例
6. 産業公園造景用樹木

國土는 限定된 有限資源으로서 우리 民族의 永遠한 生活의 터전이며 그 環境의 바람직한 保全은 國家와 民族의 繁榮과 福祉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負荷된 가장 重要한 課題이며 보람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60年代부터 本格的인 近代化作業에 들어가 1962년부터 如作된 經濟開發計劃으로 工業化가 힘차게 推進되어 잠자는 國土에 活氣찬 生氣를 불어 넣어 全國 坊坊曲曲에 開發의 손길이 뻗히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다.

힘차게 뻗은 高速道路, 巨大한 댐, 工業團地, 住宅團地...等 有史以來 最大의 盛機를 맞이하여 國土는 急速度로 그 모습을 變化해 갔다.

이와 같은 國土開發은 여러 곳에서 國土의 人爲的 損傷을 招來했으며 이로因하여 뜻하지 않은 災害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開發事業의 推進에 따른 不可避한 現象이라고는 하지만 損傷된 國土의 原狀恢復과 改造에 對한 計劃不備에 緣由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時点에서 從來의 應急的 彌縫의 姿勢를 払拭하고 計劃的이고 長期的인 眼目에서 國土保全의 側面에서 環境美化를 試圖해야 할 時点에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急速한 工業化와 都市化 事業은 大氣汚染, 水質汚濁, 騒音, 振動...等 産業公害와 都市公害를 誘發하여 우리들의 生活環境을 汚染하고 있어 이것들 各種公害의 淨化對策이 또한 時急한 問題로 登場하게 되었다.

이러한 視点에서 國土造景을 産業公園造成이라는 分野를 中心으로 生覺해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1. 國土造景의 必要性

國土의 自然環境을 計劃的으로 保全하는 同時에 國土開發事業過程에서 發生하는 人爲的 破壞나 損傷을 原狀恢復하거나 變形된 狀態를 改造 乃至는 再創造하여 國土景觀을 機能的 美的으로 造成하는데 國土造景의 意義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經濟的 生長과 福祉向上에 따라 增大되는 文化的인 生活慾求와 아울러 清新한 生活環境의 造成에 關한 國民의 慾望을 充足시켜 주기 위한 새로운 需要에 對應하는 施策으로서 出發한 것이 곧 國土造景이며 國土建設事業은 미리 잘 設計된 計劃下에 國土環境에 調和되도록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國土造景은 一次的으로 自然環境을 原狀으로 保全하는 그 自体 即, 濟極的인 面과 開發事業으로 因한 人

爲의損傷 또는 自然災害로 인한 損傷을 再復旧하는 計劃의 景觀創出 即, 積極的인 面을 들어볼 수 있다.

2. 国土造景의 方向

(1) 自然保全의 強化

国土의 自然環境은 原狀 그대로를 保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한번 破壞된 自然의 原形復旧는 거의 不可能한 일이며 이를 再現하는에는 莫人한 經費가 所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国土造景의 姿勢는 自然環境 即, 山野의 立木, 岩石, 草生, 地形... 등을 可能한 限 그대로 保全하는 것이 原則이며 国土開發에 따른 不可避한 自然毀損을 強力히 規制하여 国土造景의 實을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造景計劃에 基盤을 둔 開發事業推進

住宅團地, 工業團地, 高速道路, 港灣建設, 댐建設... 등의 諸開發造成과 土地區劃, 整理事業... 등의 国土開發事業으로 넓은 土地가 一時에 地形變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荒地化로 인한 災害마저 發生케 함으로 이에 對한 根本的인 對策이 時急하게 되었다.

從來의 建設事業은 景觀保全이나 公害防止 및 災害豫防 등이 綜合的으로 檢討되지 않았기 때문에 全体的인 構想과 個別施設 등의 調和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土地利用의 効率化는 勿論, 景觀의 造成이 計劃的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모든 開發事業은 全体的인 綜合 構想過程에서 造景計劃이 勘案되어 機能的이고 調和된 開發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政府는 勿論, 모든 公共施設事業을 企劃하는 企業人들의 積極的인 參與를 義務化하여 風致있는 自然景觀에 調和된 国土開發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라 生覺된다.

3. 産業公園의 造成

(1) 産業公園의 意義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인 成就에 따라 産業公害 問題가 重要な 問題로 抬頭되었다. 現在 우리나라의 産業公園(工場造景) 現況은 首都圈內 600余所의 既存工場을 對象으로 하여 그 實態調査의 結果를 살펴보면 거의가 法定建蔽率을 過多起過하여 增築되어 있고, 非效果的인 空地活用과 不適合한 造景樹種의 選擇으로 效果的인 造景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産業公園 即, 工場造景(Industry in the landscape)이란 用語는 한마디로 「森林이 우거진 아름다운 公園속의 工場」을 일컫는 것이다. 이것은 곧 「어느 地域이 高次元의 生活環境을 指向하면서 周辺地域과의 相互 關聯 밑에서 広域的인 關聯을 考慮하여 보다 計劃的이고 組織的으로 形成된 工場의 形態」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景觀속의 工場」을 指向하는 것이며 이것은 「既存의 地域社會와 새로이 立地할 産業이 서로 融合될 수 있도록 勘案된 計劃을 바탕으로 開發되어 가는 것이며 環境保全에 關한 規制 밑에서 公園과 같이 開放되고 公共綠化用樹가 群植된 環境속에 아름다운 景觀을 갖춘 工場 乃至는 工業團地」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工場造景은 그곳에서 行하여지는 活動이 終局的으로 人間에게 利益을 提供하는 産業活動의 場인 同時에 地域으로부터의 多面的인 要請에 應할 수 있도록 綠化施設이나 綠地에 特別 重點을 두어 環境과 産業이 渾然一體가 된 아름답고 快適한 生活空間을 造成하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

(2) 産業公園의 必要性

国土의 아름다운 自然景觀은 거듭되어온 歷史와 더불어 毀損을 면치 못했으며 特別 最近에는 高度의 經濟成長에 따른 産業開發로 自然環境의 景觀이 더욱 破壞되어가는 實情에서 있다.

그러므로 住宅地域에 隣接한 單位工場地帶는 勿論, 工業團地에서는 産業公害의 緩和策으로 工場綠化造成의 氣運이 싹터 理想的인 工場造景을 造成한 事例도 있지만 아직도 全体的인 觀點에서 본다면 이것은 稀少한 事例이고 經濟性, 生産性의 向上 및 効率化의 追求를 一貫해 온 結果 한면은 成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反面에 公害問題가 抬頭된 것이다. 工場地域은 公害와 災害等 環境汚染의 發生地로 變하여 地域住民들의 不安과 異和는 極度로 높아졌으며 産業公害가 深刻한 社會的 問題로 論議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狀況 밑에서 工場을 綠化하고 美化, 快適化, 空氣淨化, 緩衝, 騒音遮斷, 防風, 防潮, 休憩施設, 運動施設... 등을 具體化시켜서 工場을 造景하는 것은 工場自体만을 爲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工場에 對한 地域住民들의 親近感和 安全感을 높혀 주고 積極的으로 地域社會 와의 融合을 企圖하는데 있어서 絶對不可缺의 手段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産業公園造景의 方向

(1) 産業公園造景의 措置事項

政策的 次元에서 産業公園의 造成을 위한 措置計劃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a. 工業團地內에 公共用地를 除外한 團地 總面積의 3% 以上을 公共綠地帶로 造成한다.
- b. 合理的인 工場建物の 配置와, 工場敷地內에 敷地面積의 15% 以上을 造景하도록 建築法을 改定 義務化 시킨다.

- c. 準工業地域內的 施設物 建築을 規制하는 建築法 施行令을 改定 強化시킨다.
- d. 工業団地와 그 隣接住居地域 사이에 幅 30m 以上の 防災 遮断緑地帶를 造成토록 都市計劃으로 指定케 한다.
- e. 工団管理機關에 工場造景을 担当하는 専門職을 配置토록 한다.

(2) 産業公園造景의 実施方向

工場造景을 爲한 技術的인 実施方案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a. 工場內에 前庭, 構内道路, 野積場, 休息空間 등을 調和있게 配置하여 工場內 空地를 効果의으로 活用케 한다.
- b. 工場の 業種과 公害의 種類를 分析하여 耐久性있는 樹木을 配植하기 위한 適合樹種의 選擇을 期하도록 한다.
- c. 参考로 工場空地の 処理基準(区劃基準)과 適合樹種의 選擇基準, 産業公園의 目的 및 効果와 그 對應施設 등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工場空地の 處理基準

区 分	機 能	処 理
前 庭	弘報活動에 提供되는 空地로서 象徴的인 效果가 必要하다.	看板, 彫刻, 噴水駐車場
構内道路	道路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道路 邊 配植이 必要하다.	잔디, 連鎖花壇, 綠陰樹植栽
作 業 場 周 邊	休息을 爲主로 하는 綠地造成이 必要하다.	綠陰樹, 花壇, 잔디 벤치, 파고라, 休紙筒, 재떨이

나. 産業公園用樹의 選擇基準

工場類型	災 害 源	適 合 樹 種	
		中 部	南 部
石油化學地帶	重 硫酸 가 스	화백나무, 눈향나무, 은행나무, 백합나무, 버즘나무, 무궁화...등	태산목, 후피향나무, 녹나무, 굴거리나무, 아왜나무, 가시나무...등
製鐵工業地帶	沸化水素 鹼化水素	아까시아, 참나무, 포플라, 향나무, 주목등	치자나무, 사스레피나무, 감탕나무, 호랑이가시나무, 팔손이나무...등
臨海工業地帶	潮 害	향나무, 눈향나무, 곰솔, 사철나무, 회양목, 신탄...등	동백나무, 광나무, 호박나무, 돈나무, 팽팽나무, 잣나무...등
시멘트	粉 塵 騒 音	자나무, 향나무, 측백나무, 가문비나무, 버즘나무...등	삼나무, 비자나무, 편백나무, 화백나무, 가시나무...등

다. 産業公園의 效果와 對應施設

目的(機能)	効 果	對 應 施 設
美 化 快 適 化	- 工場環境에 對한 地域住民들의 親近感을 높인다. - 從業員들의 情緒函養 및 勤務意慾을 增大시킨다. - 工場自體의 P. R 이 된다.	- 철망, 울타리 - 道路에 接한 法面處理 - 工場周邊의 綠林, 잔디밭, 其他 地被植物.
遮 断 緩 衝	- 防音, 防振動, 防火 防風, 防塵 등의 效果로 地域住民의 安定感을 높인다. - 災害時 避難場所 로 活用한다.	- 市街地, 住宅地 쪽으로 幅넓은 樹林帶 造成 - 넓은 잔디밭 造成 - 海邊側으로 樹林帶, 높은 산 울타리 造成
空 氣 淨 化	從業員 및 地域住民의 保健에 參與한다.	樹林, 잔디밭, 園地造成
스 포 츠	- 從業員의 餘暇利用 - 作業能率의 增進	小綠林, 잔디밭 綠陰樹, 花壇造成
레 크 리 에 이 셴	- 從業員의 健康增進 - 地域住民의 健康增進	- 잔디밭, 競技場 잔디廣場, 防風 林綠陰樹造成 - 林間散策路, 並木路 造成

5. 産業公園의 造景計劃 및 事例

工場造景은 作業場의 環境을 調整하고 總括하는 것으로 職場의 作業能率, 健康管理, 安全作業등에 큰 關聯을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企業과 製品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는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다. 特히 主要交通 路線上에 設置되어 있는 工場에서는 工場造景이 車窓을 통한 持續的인 宣傳의 media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企業의 P. R 을 兼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工場造景의 基本構想

現在 큰 問題로 되어있는 公害의 大部分은 大小 工場의 生産活動 過程에서 發生하는 것이기 때문에 工場이나 企業의 努力如何에 따라서는 相當 程度가 防止 또는 減少될 수 있는 것이다. 如何한 業種, 業態, 規模의 工場이라 할지라도 市街地內에 立地하고 있는 工場은 勿論, 새로이 立地하는 工場에서는 周邊 地域의 既存住宅과 將來의 住宅化 傾向을 勘案하여 外部에 對한 騒音, 振動, 臭氣等の 公害 要因을 考慮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周辺環境에 미치는 惡影響을 防止 또는 除去하는 일은 工場綠化 以前에 根本的으로 解決해야 할 問題이다.

이 前提를 設혀놓고 綠化만으로 公害를 防止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까지는 生産 為主를 앞세운 나머지 勞動環境이나 周辺 環境의 整備를 소홀히 하였던 工場綠化를 통해서 勞動 環境의 造成뿐만 아니라 地域 環境의 保全에 積極的으로 努力해 나아가 할 것이다.

工場綠化는 耐公害 樹木의 植栽도 바람직 하지만 反面에 耐性이 弱한 樹種도 生育할 수 있는 環境의 造成이 期待되어야 할 것이다.

工場綠化 計劃에 있어서는 工場自体의 必要性 以外에 周辺 地域에 對한 社會的, 自然的 條件을 充分히 考慮하고 그들 周辺地域과의 調和를 잊어서는 안된다. 安全하고, 快適한 勞動環境을 整備하기 위하여 工場敷地의 周辺, 主要道路沿邊, 廣場, 各種 建築物 周辺, 運動場 周辺…… 등을 機能的으로 綠化하여 이것들의 效果를 높이면 한편, 地域 社會와의 交流를 試圖하는데 留意해야 한다.

(2) 工場 空間의 構成

工場은 生産 活動場所인 同時에 이곳에서 從事하는 사람들의 生活 空間인 까닭에 空間 利用의 工場에서 볼 때 生産과 生活의 空間이 相互 合理的으로 配置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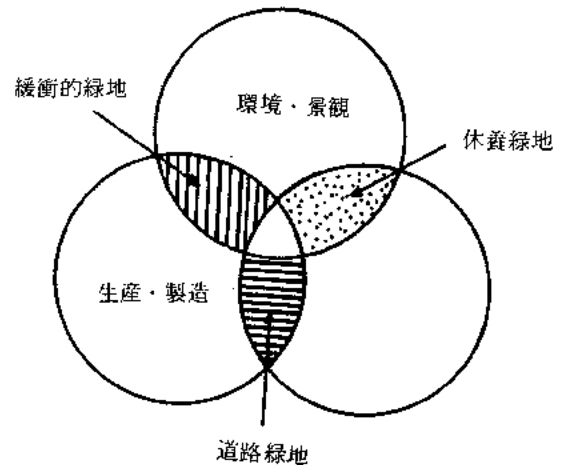
生産 空間은 事務所, 作業場, 實驗試驗室, 製置用地, 材料倉庫, 製品倉庫, 野積場, 道路, 駐庫場, 工場 增設用地…… 등 直接, 間接으로 生産에 寄與하는 空間을 말하는 것이다.

非生産 空間은 食堂, 休憩室, 脫衣室, 浴場, 売店, 診療所, 寄宿舍, 住宅, 體育館, 屋外運動場, 各種 球技코트, 잔디밭, 建物 周辺綠地 및 園地, 花壇, 樹林地 등 生活와 休息에 寄與하는 空間을 말하는 것이다.

工場の 空間의 要素는 生産施設, 厚生施設, 住宅施設, 環境 施設等이다. 寄宿舍나 社室은 工場敷地 밖에 建設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敷地內에 立地 시켜야 할 경우도 있다. 工場敷地內에 이들 空間要素들을 配置함에 있어서는 同類의 要素를 되도록 한곳에 近接立地시켜 하나의 施設群을 形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① 生産 施設은

- 가. 正門, 後門에 가까울 것.
- 나. 將來, 擴張에 有利한 位置일 것.
- 다. 排水, 受電에 有利한 것.
- 라. 住居區에 近接시키지 말 것.



② 厚生施設區

- 가. 生産施設區, 住居施設區에 近接시킬 것.
- 다. 陽地바른 곳일 것.
- 나. 休養綠地 其他 厚生施設의 確保가 可能한 곳일 것.
- 라. 後門에 가까울 것.

③ 住居施設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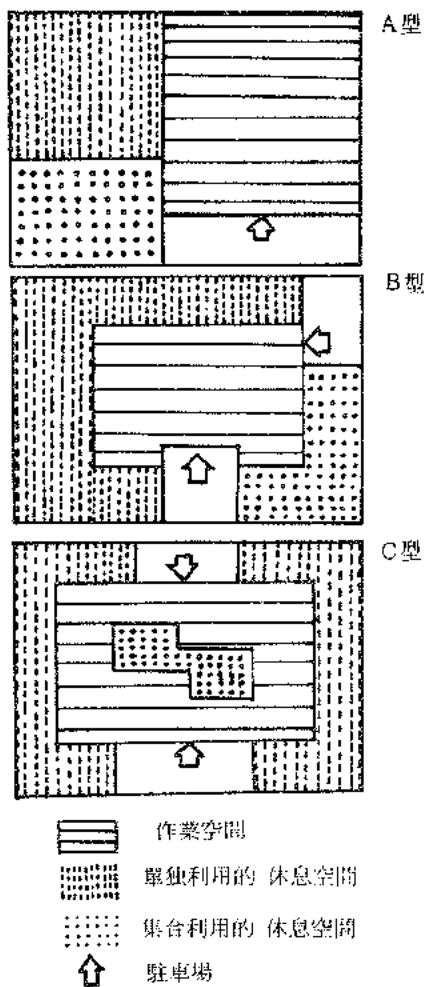
- 가. 生産施設區에서 멀리 떨어져고 個人 生活를 確保할 수 있는 곳일 것.
- 나. 南門인 곳일 것.
- 다. 周辺主要 道路에서 너무 떨어져지 않은 곳일 것.
- 라. 環境整備 및 造成이 容易한 곳일 것.

④ 環境 施設

- 가. 周辺地域의 環境保全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立地시킬 것.
 - 나. 生産, 厚生, 住居 各部分에 綠地나 環境施設을 配置함으로써 從業員의 情緒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
 - 다. 屋外運動場, 球技코트 등을 確保할 수 있는 곳.
 - 라. 地域 住民의 出入이 容易한 곳.
- ※ 바람직한 工場의 空間構成과 配置의 其體的인 事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工場敷地 面積…… 100 %〉

- 가. 建築物 面積…………… 22%
- 나. 屋外作業 団地面積…………… 2%
- 다. 道路, 駐庫場 用地面積…………… 33%
- 라. 綠地 面積…………… 25%
- 마. 運動施設 面積…………… 13%
- 바. 其他 面積…………… 5%



(3) 工場造景과 敷地配置 計劃

工場敷地の 対해서는 作業空間과 非作業 空間을 区别해서 計劃할 수 있는데 그 計劃 事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a. A型

A型은 가장 単純한 型態로서 自然發生的 工場敷地에 区劃이다. 作業場, 休息綠地, 駐車場 空間等 3區로 区劃된 敷地가 작은 小規模 工場에 適當한 区劃 및 配置計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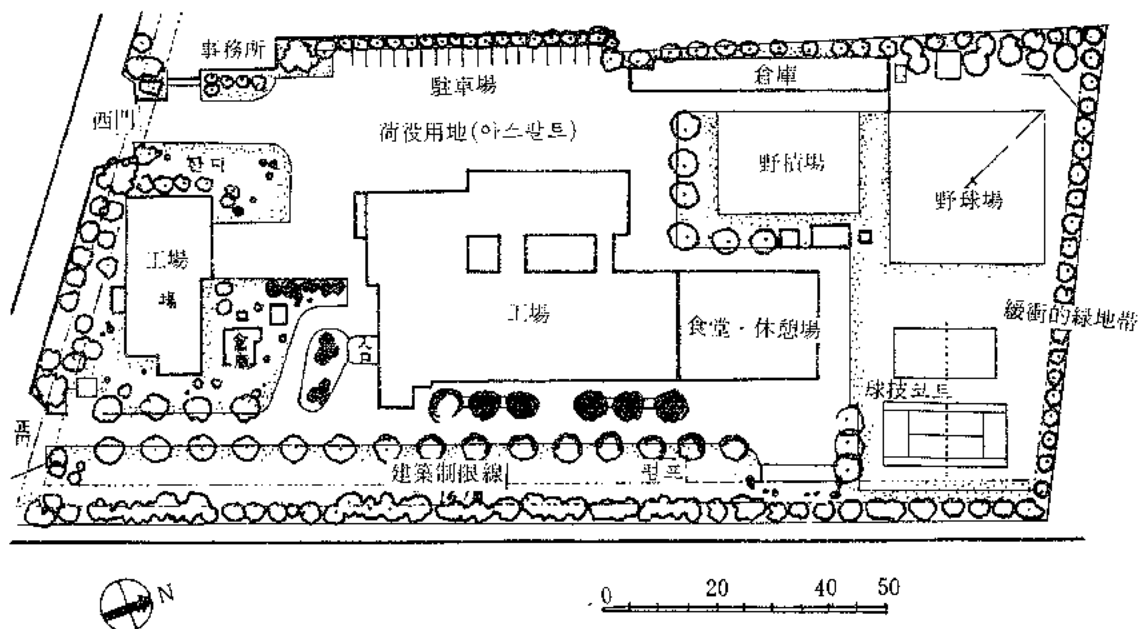
b. B型

B型은 作業空間을 中間에 配置하고 休息과 駐車空間은 周辺에 配置한 것이며 特히 休息空間을 2區分하여 体操遊戯, 集合ベンチ, 屋外喫煙場……등의 集合利用的 休息空間과 잔디밭, 散策路, 遊歩路……등의 單獨利用的 休息空間을 機能的으로 分割配置한 것으로서 土地 利用区分이 整然한 事例이다. 이 타입은 中規模 程度의 工場에 適當한 配置計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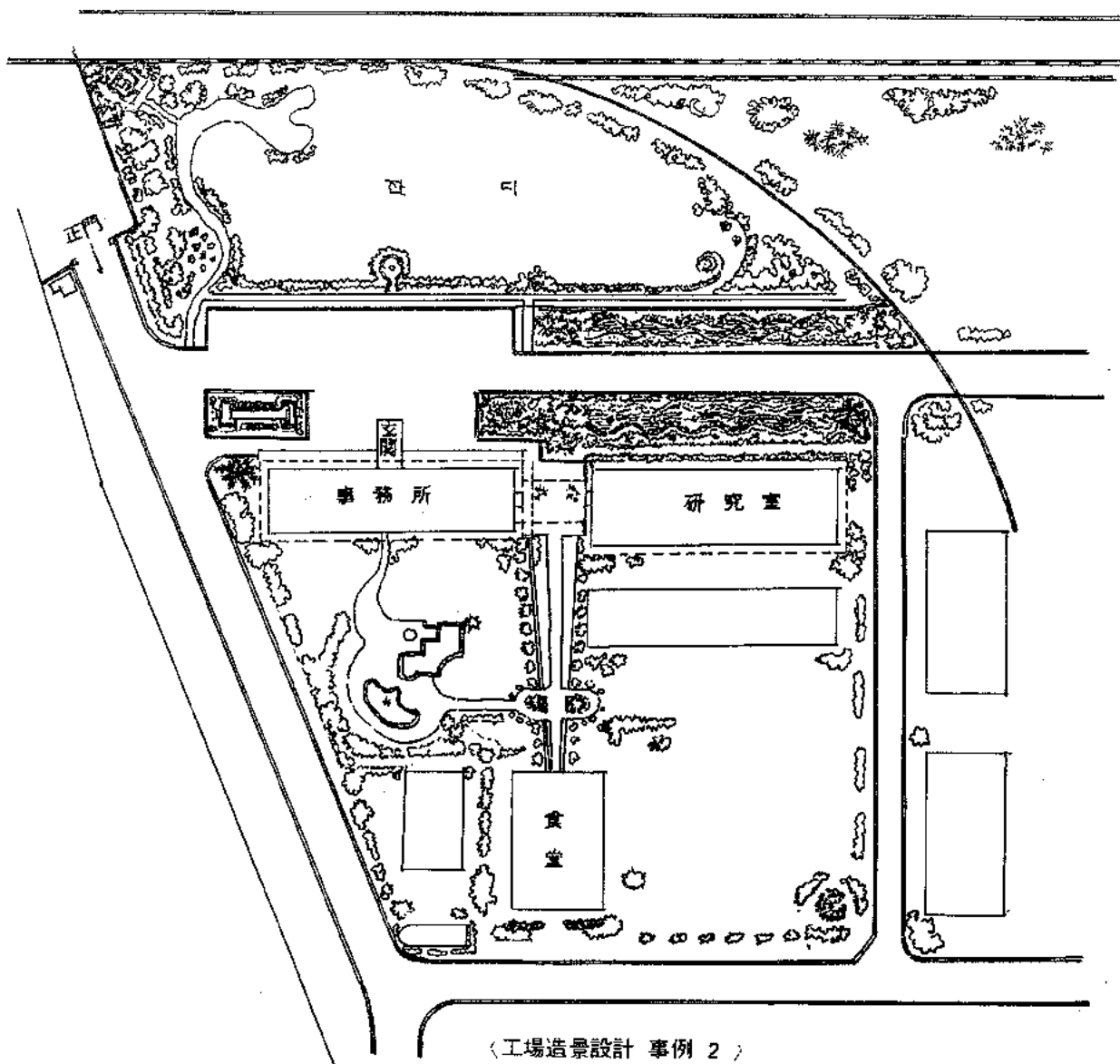
c. C型

C型은 集合利用的 休息空間을 中心으로 한 것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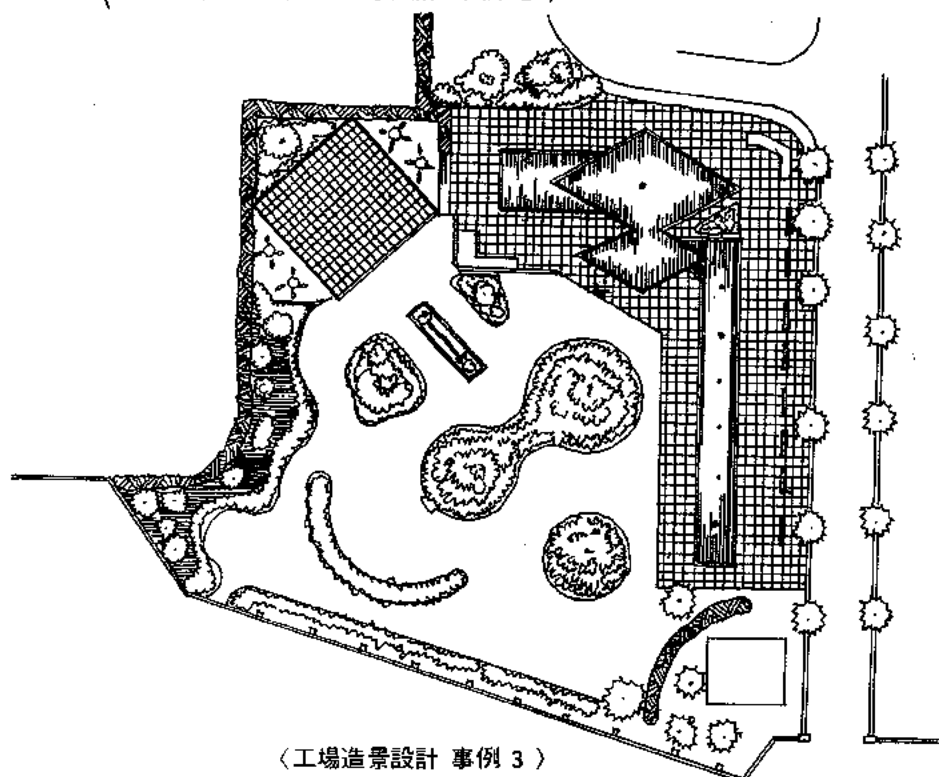
作業場의 集約的인 結合을 妨害하는 可能性이 工業部門에 따라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休息利用 形態로서의 가장 優秀한 事例라 할 수 있다.



(工場造景設計事例Ⅰ)



〈工場造景設計 事例 2〉



〈工場造景設計 事例 3〉

6. 産業公園造景用 樹木

一般工場 및 特殊工場 周邊의 綠化植栽를 爲住로 하는 工場造景의 바람직한 자세를 두가지 面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企業體(工場) 内部의 問題로서 그 企業에 從事하는 從業員들이 作業時間 以外의 時間에 利用할 수 있는 休憩, 休養, 運動등의 터전으로 造成되는 微視的인 見地이다

또 하나는 企業體와 그 地域社會의 住居地域包含을 한 廣大한 空間의 公害 防止와 保健, 休養을 겸한 綠地造成의 巨視的인 見地이다.

(1) 休養施設周邊의 植栽

單調로운 工場建物 自体의 景觀을 變化있게 造景하는 目的이 있다.

① 四季의 變化를 보여주는 樹種, 단풍나무, 은행나무, 철쭉, 장미, 벚나무, 개나리, 무궁화, 배롱나무, 협죽도, 목단…… 등.

② 常綠性 喬木樹種

향나무, 가이즈까향나무, 돈나무, 아왜나무, 사철나무, 팔손이나무…… 등.

③ 落葉性 喬木樹種

참나무, 떡갈나무, 라이락, 포부라, 자귀나무, 은수원 사시나무…… 등.

(2) 運動場 및 道路周邊의 植栽

資材의 搬入, 搬出, 從業員들의 通行에 支障이 없는 한 街路樹的인 並木植栽가 理想的이다.

① 街路樹的인 並木植栽用 樹種

은행나무, 버즘나무, 당단풍나무, 히말라야시다, 녹나무…… 등.

② 鄉土樹種

公害發生 企業의 경우는 上記樹種 이외의 참나무, 곶술, 향나무, 감탕나무…… 등의 鄉土樹種을 混植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③ 喬木性·花木類

喬木性인 목련, 서향, 배롱나무, 벚나무, 무궁화, 일본 목련…… 등의 花木類도 並木植栽에서 效果的인 果를 보여 준다.

(3) 工場 및 그 周邊地域의 遮斷植栽 各 企業은 生産第一主義를 指向한 나머지 産業公害를 몰아와 公害 企業이라는 指彈을 받게 되었으며, 企業은 公害意識을 緩和하기 위해서 낮은 굴뚝을 높였지만, 그 結果는 高濃度狹範圍汚染에서 低濃度 廣範圍汚染으로 변했을 뿐 大氣汚染의 解決策은 되지 못했다.

最近 各 企業體에서 工場周邊이나 工場団地는 勿論 近隣住居 地域을 包含한 環境의 再創造를 爲하여 綠化造景의 意識이 急速히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遮斷綠地의 造成을 위한 바람직한 植栽는 다음과 같은 視点에서 行하여져야 한다.

① 外觀上의 美的 植栽는 避한다.

② 그린벨트의인 遮斷綠地를 造成해야 한다.

③ 機能的으로 美化한 工場内 休養施設을 地域 社會에 開放하여 서로의 理解밑에서 形成되는 社會를 指向할수 있는 造景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地域社會의 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環境綠化가 試圖되어야 한다.

⑤ 遮斷綠地 造成에 適合한 樹種을 選定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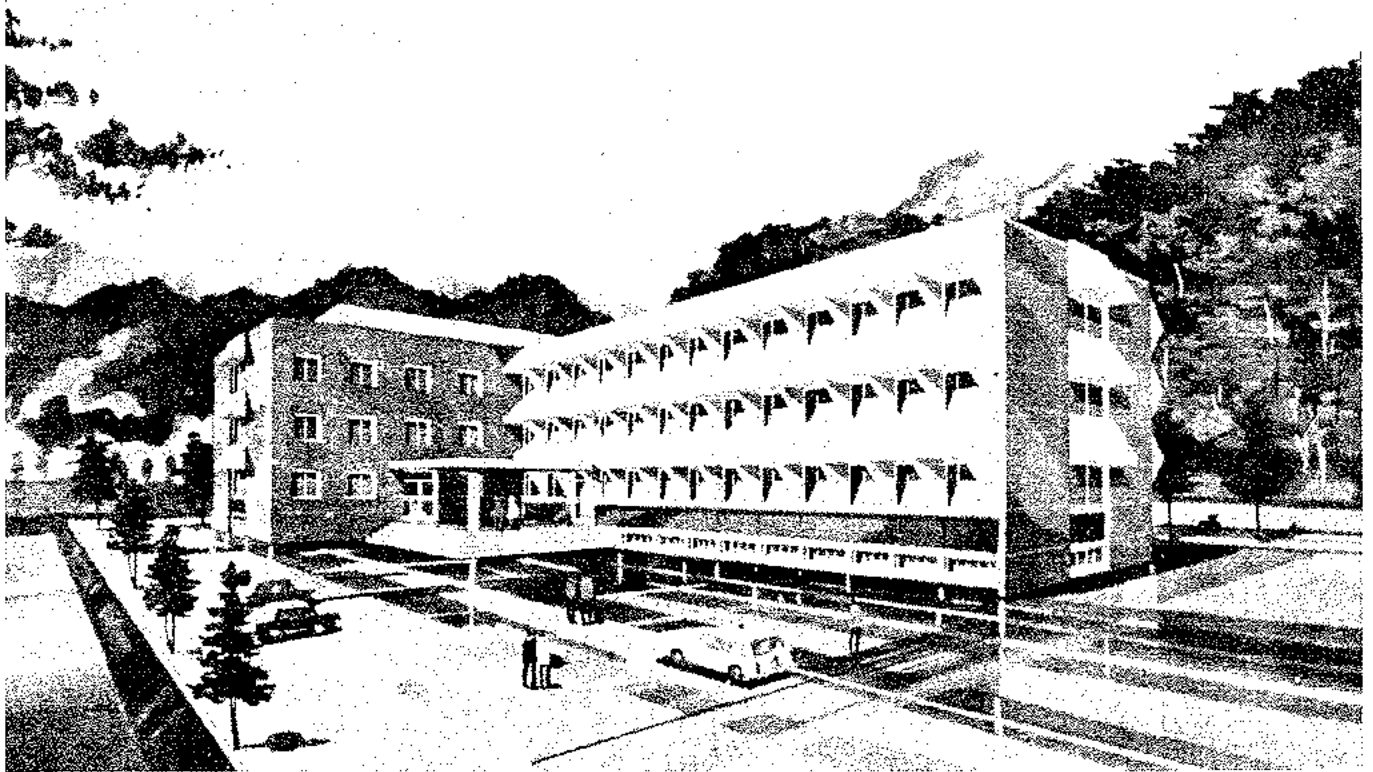
[例] 메타세코이아, 히말라야시다, 가이즈까향나무, 주목, 곶술, 사철나무, 식나무, 아왜나무, 녹나무, 동백나무, 추립나무, 당단풍, 미류나무, 버즘나무, 야까시아, 은행나무, 참나무, 철쭉, 은수원사시나무…… 등.

— 參考文獻 —

1. 韓國綜合造景公社 研究開發室, 1975 工場造景
2. 建設部, 1975, 造景設計 基準.
3. 工業綠化 研究会, 1974, 工場綠化의 うこりい
4. 三木秀隆・増田三夫・1974 インダストリアルバ79 構想
5. 工場 美化建物 推進 委員會・1970・美 い 工場.
6. A・E Weddle, Ariba, Mtpi, Fila. 1970 Tec hniques of Landscape Architecture.
7. Brenda calvin, 1971 Land & Landscape.

會員作品





투 시 도

동원 메디칼 센터 MEDICAL CENTER

설 계 : 金 東 珪 (김동규 건축설계사무소)

설 계 주 부 : 이신형

전 기 설 계 : 정하식

난방위생설비 : 박용한

구 조 : 이창남



병원 104(병상) 3385. ⁵ m²

보이라실 170 m²

시체실 84 m²

의사숙사 (4) 248 ¹⁶ m²

간호원기숙사 745. ⁵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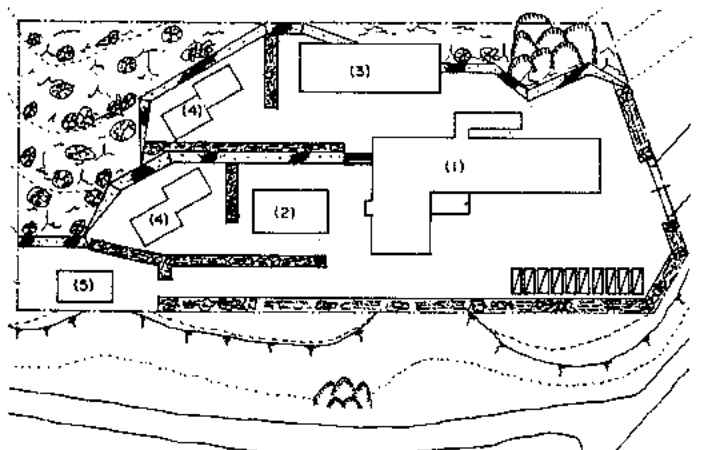
펌프실 7 m²

탱크실 16 m²

계 4654. ¹⁶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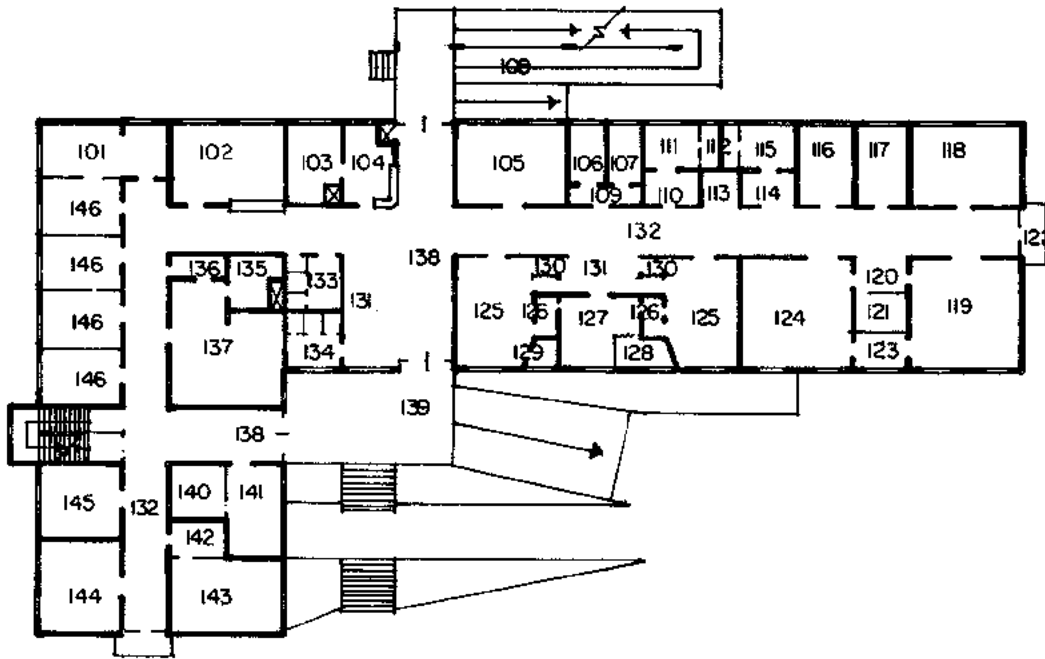
57% 준공

竣工開院 : 197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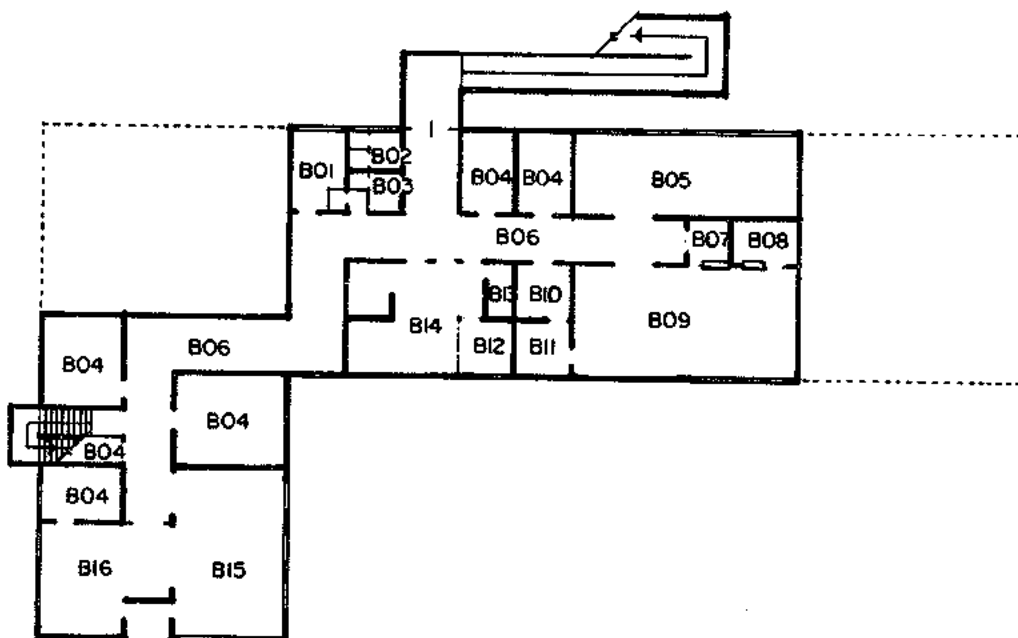


배 치 도

- | | | | | | |
|--------------|-------------|-------------|------------------|-------------|------------|
| 101. 의사사무실 | 108. 경 사 보 | 115. 간호원경의실 | 122. 발 코 니 | 129. 화 장 실 | 136. 혈청주사실 |
| 102. 약 국 | 109. 창 고 | 116. 부 속 실 | 123. 서비스썸크 | 130. 갱 의 실 | 137. 임상실험실 |
| 103. 기자기록실 | 110. 의사사무실 | 117. 마 취 실 | 124. 수 술 실 | 131. 대 기 실 | 138. 휴 계 실 |
| 104. 입·퇴수숙실 | 111. 의사강의실 | 118. 화 복 실 | 125. 엑스레이
촬영실 | 132. 복 도 | 139. 출 입 구 |
| 105. 소수수실 | 112. 사 위 실 | 119. 수 술 실 | 126. 조 정 실 | 133. 화장실(남) | 140. 숙 직 실 |
| 106. 예비 창 고 | 113. 환자운반차실 | 120. 오물썸크 | 127. 사 무 실 | 134. 화장실(여) | 141. 의사사무실 |
| 107. 기 구 창 고 | 114. 간호원대기실 | 121. 소독기실 | 128. 암 실 | 135. 수 세 실 | 142. 비 서 실 |
| | | | | | 143. 중 영 실 |
| | | | | | 144. 회 의 실 |
| | | | | | 145. 사 무 실 |
| | | | | | 146. 진 찰 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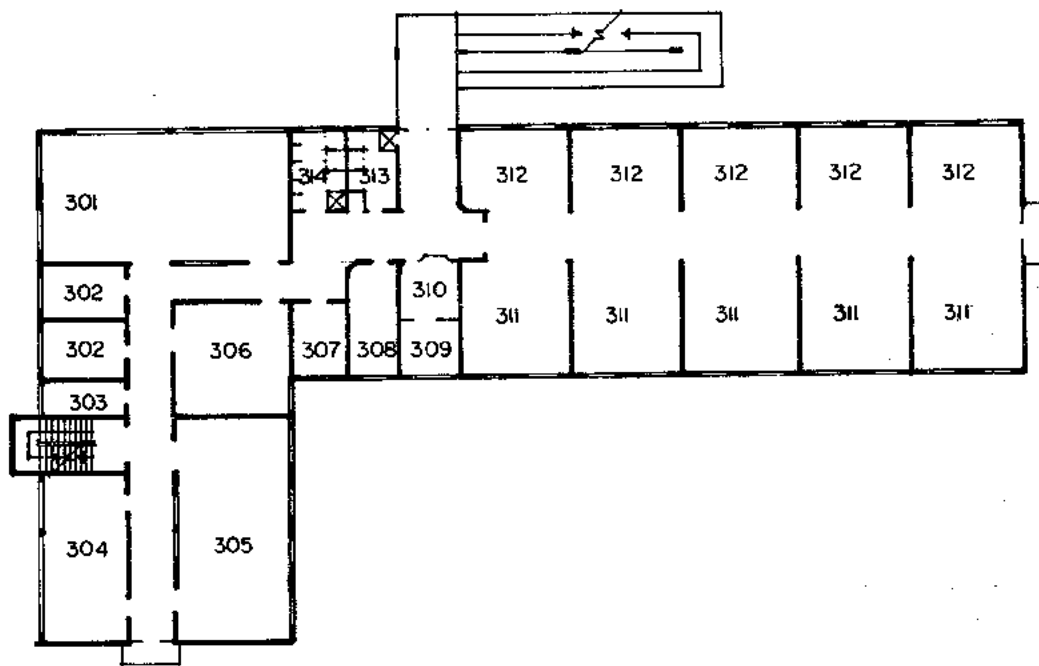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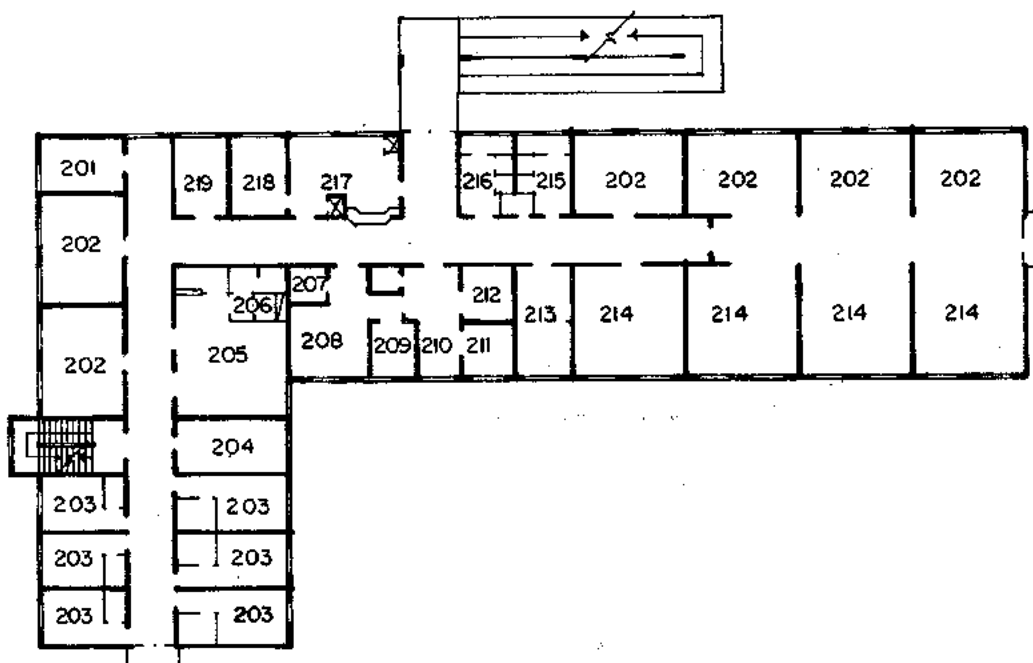
지층평면도

- | |
|-------------------|
| B01. 환자 욕실 |
| B02. 화 장 실(여) |
| B03. " (남) |
| B04. 창 고 |
| B05. 전 기 실 |
| B06. 복 도 |
| B07. 사 무 실 |
| B08. 재 봉 실 |
| B09. 세 락 소 |
| B10. 비 소 독실 |
| B11. 소 독 실 |
| B12. 장갑 소독실 |
| B13. 소독기실 |
| B14. 중앙소독및
공급실 |
| B15. 식 당 |
| B16. 주 방 |



- 300. 교 실(45석)
- 301. 교 수 실
- 302. 창 고
- 303. 도 서 실
- 304. 교실(40석)
- 305. 사 무 실
- 306. 배 급 실
- 307. 처 치 실
- 308. 부 속 실
- 310. 간호원 대기실
- 310. 병실(6 BED)
- 311. 병실(4 BED)
- 312. 화장실(남)
- 313. 화장실(여)
- 314. 화장실(남)

3층평면도



- 201. 의 사 실
- 202. 병실(4 BED)
- 203. 병실(1 BED)
- 204. 의사숙직실
- 205. 물리치료실
- 206. 화장실및 샤워실
- 207. 부 속 실
- 208. 분 만 실
- 209. 산 파 실
- 210. 준 비 실
- 211. 회 복 실
- 212. 회 복 실
- 213. 처 치 실
- 214. 보 호 실
- 215. 화장실(남)
- 216. 화장실(여)
- 217. 다용도실
- 218. 시트창고
- 219. 식품실

2층평면도

설계개요 :

江原道 壽北邑에 長省에 이어 두번째로 100病床 規模에 産
災病院이 建立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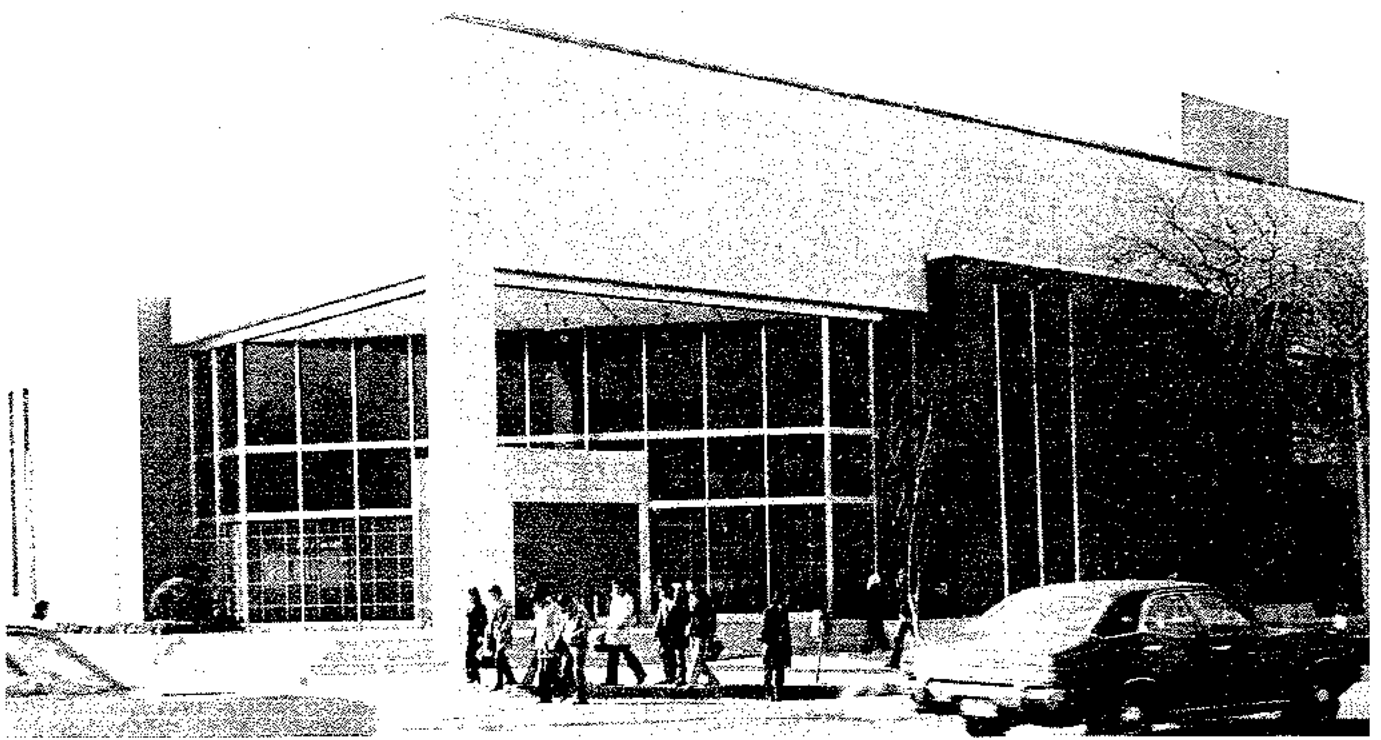
対象人口 40,000 名을 目標로 炭鉱地帯従業員과 그 家族 그
리고 壽北에 一般市民의 医療를 할 目的이다.



측면도



정입면도



전 경

제일은행 동교동지점

설 계 : 金 正 澈 (주식회사 경림건축)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3의 2

대지면적 : 1,477.54 M² (446.96평)

각층면적 : 지 하 327.90 m² 99.19평
 1 층 690.93 m² 209.61평
 2 층 381.38 m² 115.37평
 3 층 382.11 m² 115.59평
 옥탑층 41.62 m² 12.59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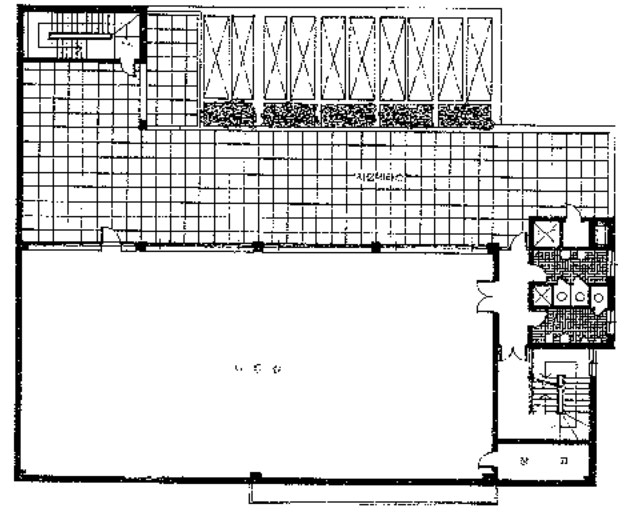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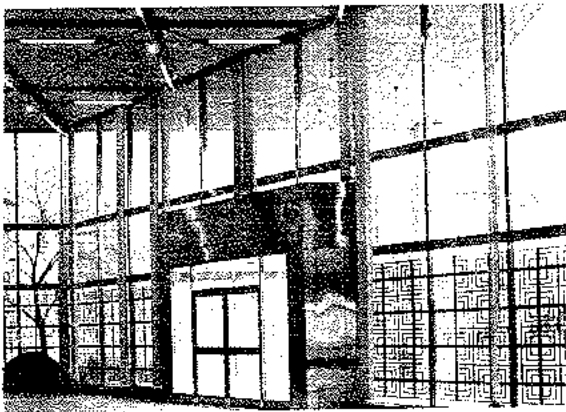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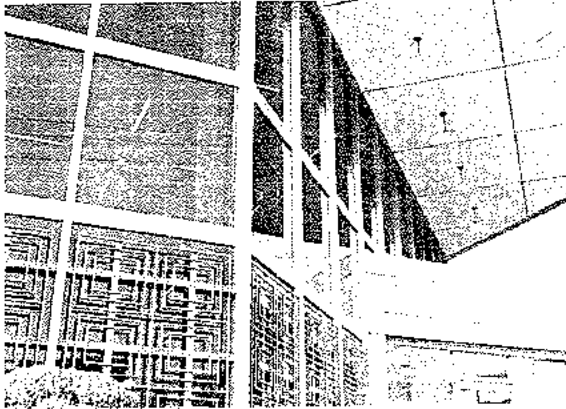
연 면 적 : 551.75평

건 폐 율 : 4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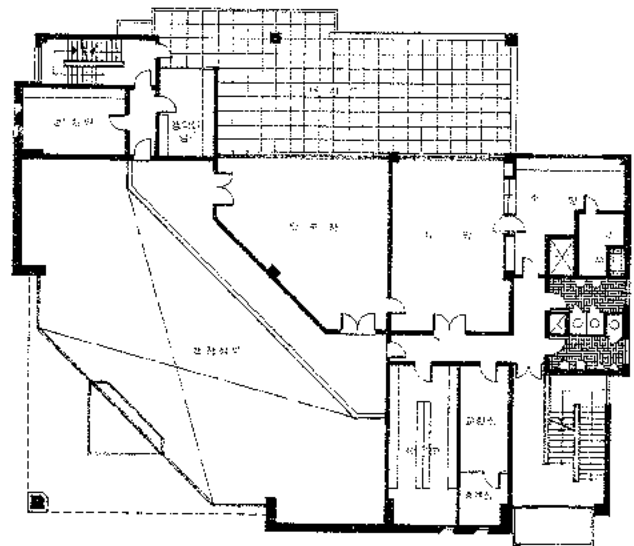
용 적 율 : 123.44%

주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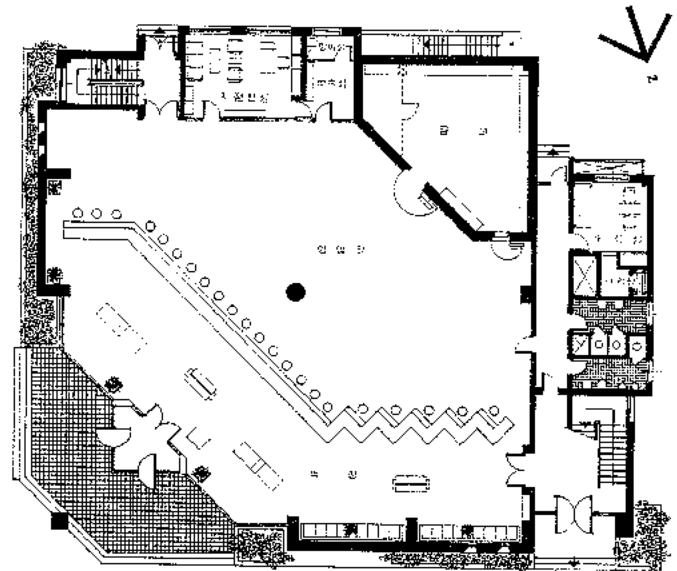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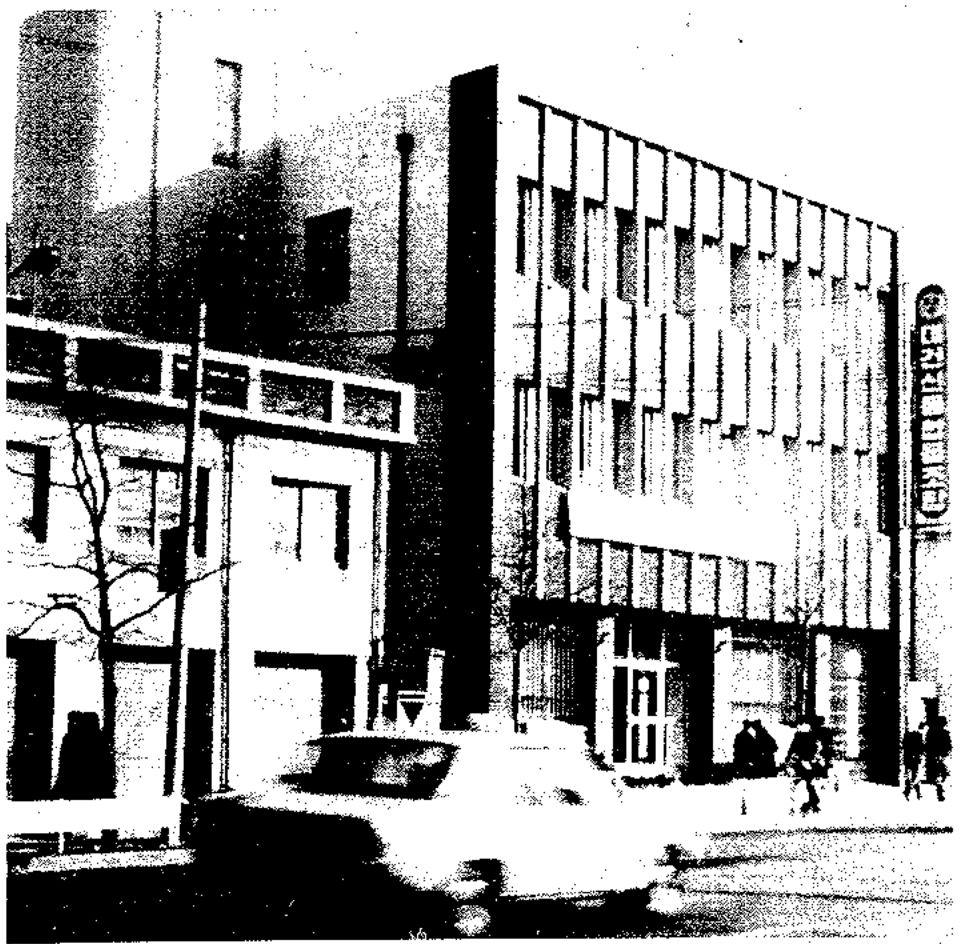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전 경

전주대건 신용협동조합

설 계 자: 金 光 瑞 (전주건축사연합사무소)

대지위치: 전주사 전동 2 가 58와 9

대지면적: 333.3 m²

건축면적: 232 m²

연 면 적: 912 m²

구 조: 철근 콘크리트 · 라메조

종별면적: 지하층 200.83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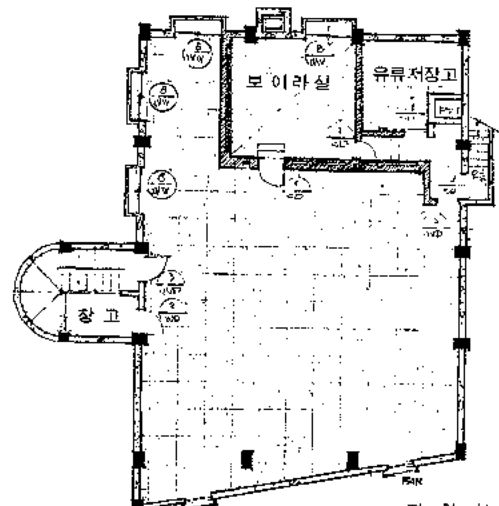
1 층 222.18 m²

2 층 232.17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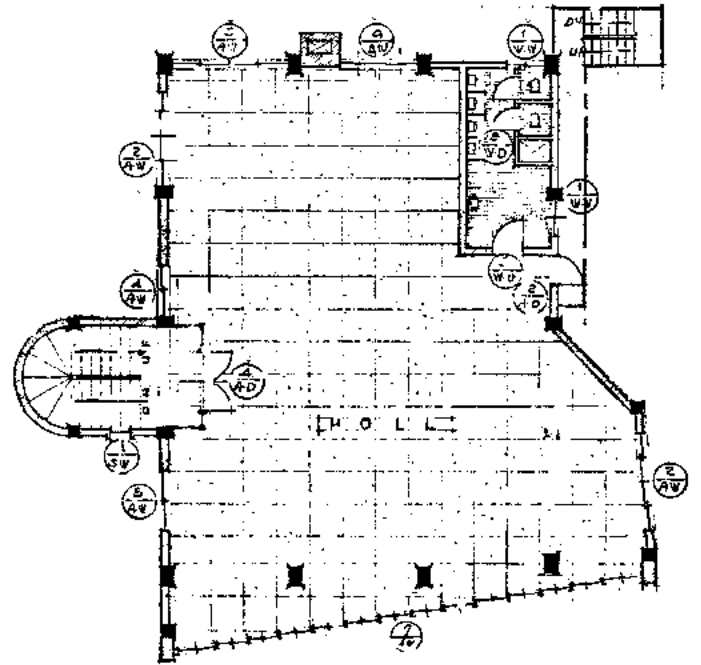
3 층 232.0 m²

옥 탑 24.37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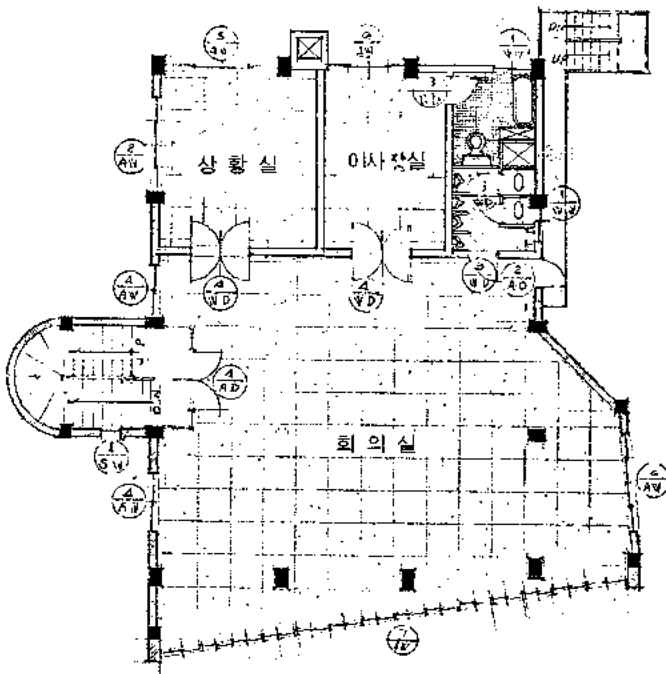
계 912.12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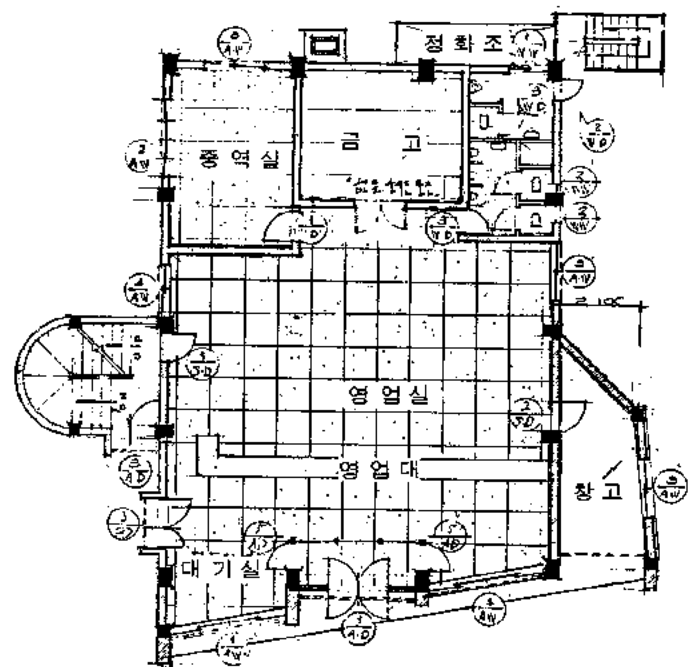
지 하 실 평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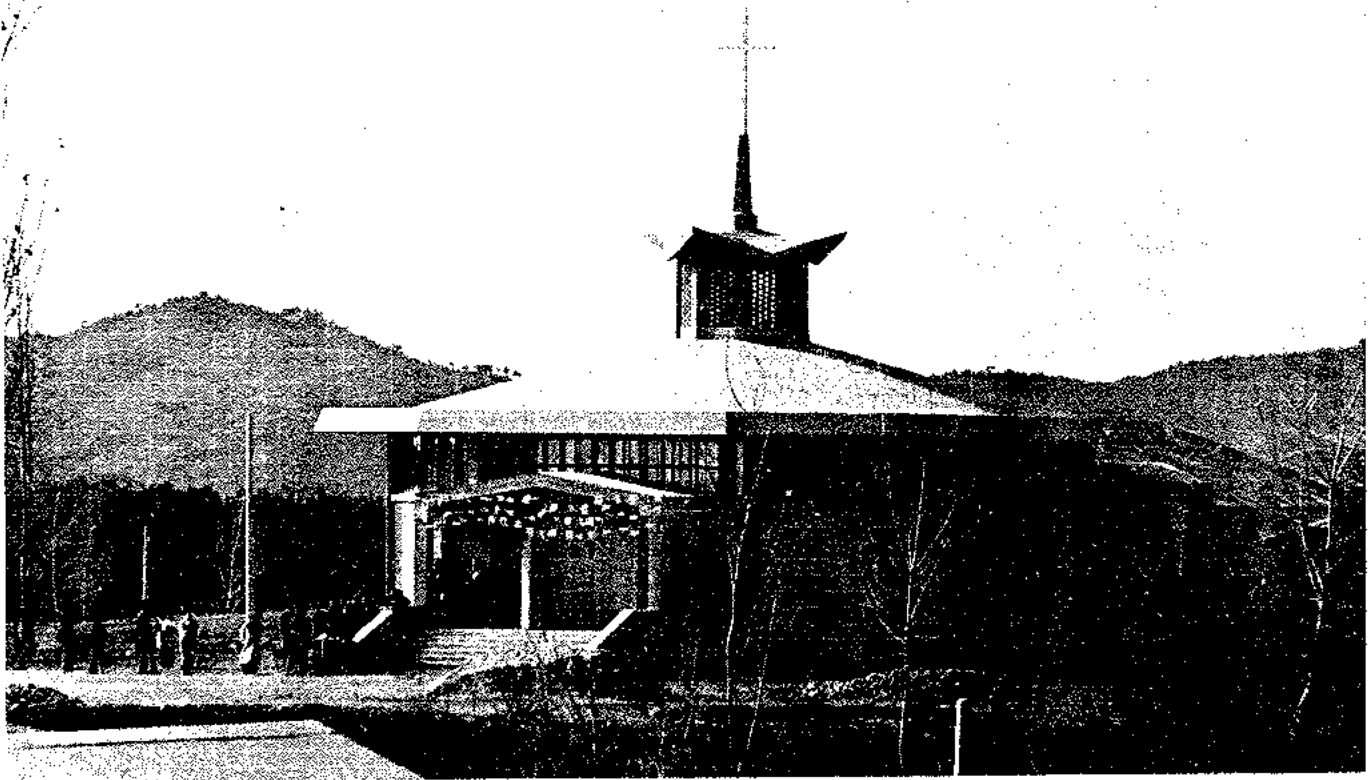
3층평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전 경

대부도 천주교회

설 계: 延 濟 振 (연제진건축연구소)

소 재 지: 경기도 용인군 대부면 북리 184

대지면적: 2,564¹² m²

연 면 적: 302¹⁴ m²

1 층: 262¹² m²

지 층: 139⁹⁷ m²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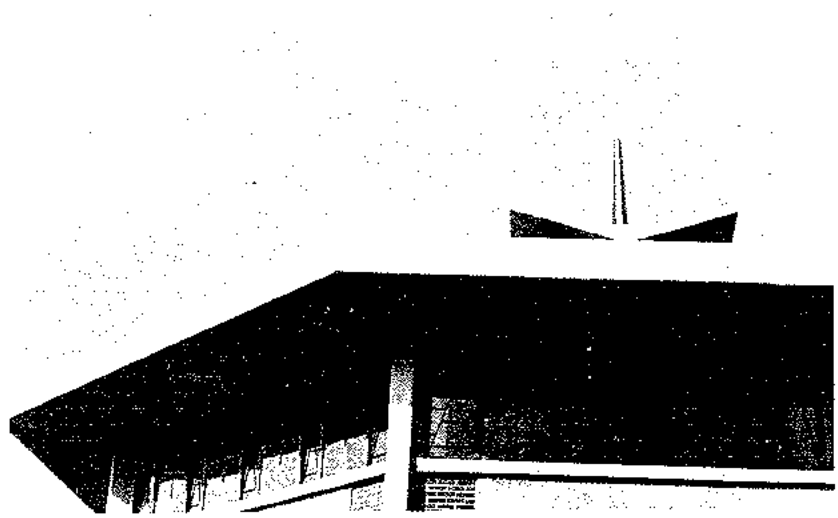
설계개요:

(11)에서 西海岸으로 1時間半 旅客船으로 가면 대부도란 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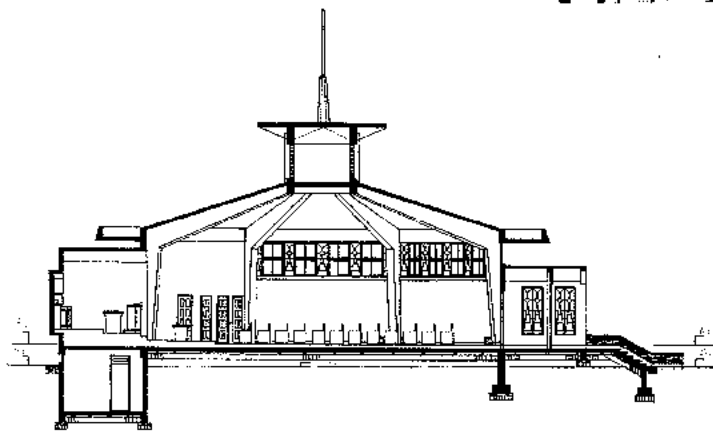
도시 地方의 宗教建築의 實現은 其規模가 크건 작건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다.

섬의 中央의 位置한 본 성당은 平面構成은 8角平面으로서 다루었고 立面도 종탑을 Core로 처리하여 특수라멘실을 혼합한 철근 Concrete조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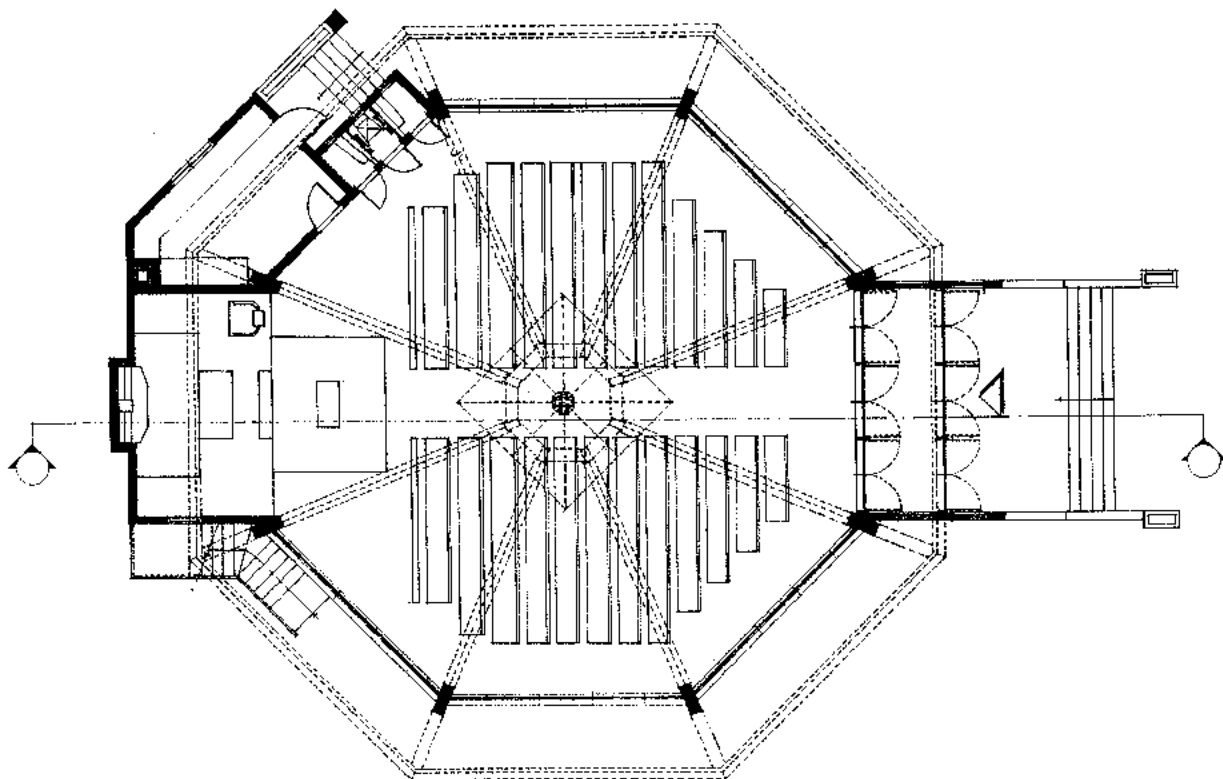
특히 國內에서는 도서地方의 철근 Concrete조의 宗教建物이 처음이라고 본다.



켄티레바



단면도



1층평면도



투 시 도

김두현씨 댁

- 설 계 : 金 寅 培 (강희설계)
- 위 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45-104 (주거지역)

대지면적 : 388.55m²

- 건물개요 : 가. 구 조 조적조 (시멘트벽돌조)
- 나. 건축면적 218.⁶⁶ m²
- 다. 연 면 적 218.⁶⁶ m²
- 자 총 29.⁸⁸ m²
- 1 층 112.⁶⁶ m²
- 2 층 76.¹⁵ m²
- 라. 공 지 비 29.¹⁵%, 용적율 56.⁶%

전기 김영목 (극동전기설계)

설비 김영찬 (정한설비)



• 의장설명 :

가. 단순한 외형을 가지면서도 중후감이 있도록 조형적 노력.

나. 全体的인 色感은 白色계열 + 흑색계열로 간결한 감각유도.

회색벽돌치장

물탄위 白色수성페인트

갈머샷슈에 진공유리 삽입

흑색광택가와 (스테인식)

다. 内部空間은 은화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주벽 및 천장은 도배 (경제성감안 및 보수용의) 바닥은 견고하고 시공하자가 없는 合板類 (복마루合板, 階단用合板等 3等) 使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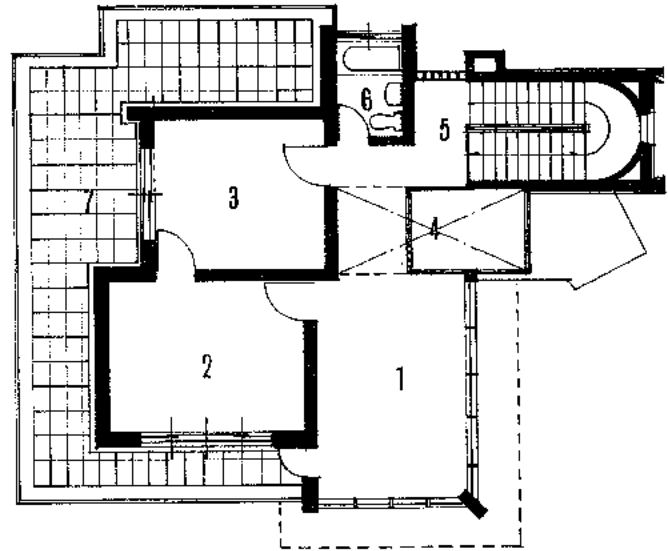
내부공간 최대 활용 방안으로 라지메타를 지양 콤팩타를 바닥에 설치.

라. 정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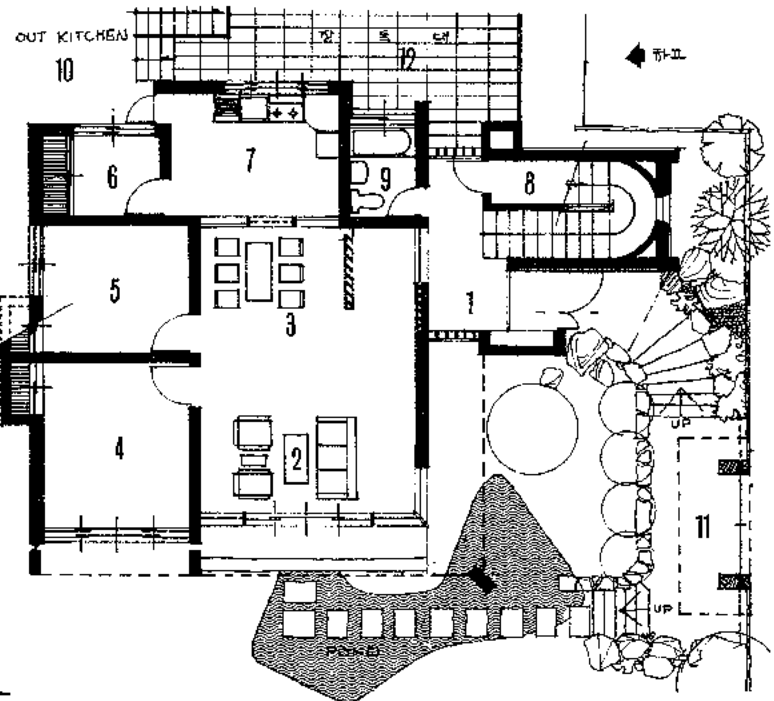
俗地 (道路보다 俗地의 높이기 2.4M)와 自然的 조건을 활용 단순한 주택외형에 반해 잔디 및 水벽돌, 대강석 등을 使用하여 화려한 바닥형성.

정원수를 지향하고 自然수목을 利用하며 구조물 (연못, 곡포, 웅달샘等) 설치로 보는 정원에서 즐기는 정원으로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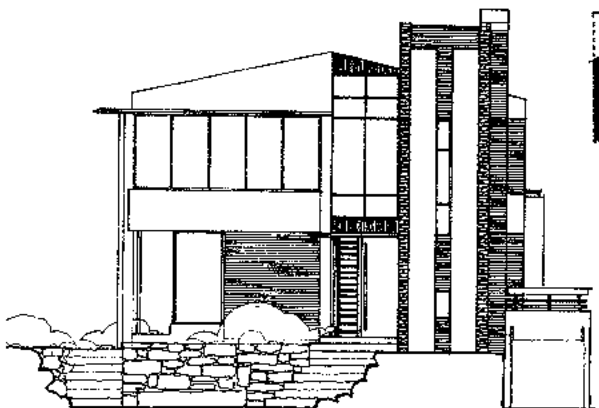
- | | |
|------------|-----|
| 1. 현 | 관 |
| 2. 거 | 실 |
| 3. 식 | 당 |
| 4. 온 | 돌 방 |
| 5. 온 | 돌 방 |
| 6. 식 | 모 방 |
| 7. 부 | 엿 |
| 8. 창 | 고 |
| 9. 욕실및변소 | |
| 10. 욕 의 부엌 | |
| 11. 대 문 | |
| 12. 장 독 | |
| 13. 정 | 원 |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측면도



전 경

○氏宅

설 계: 尹 鳳 源 (건축연구소 원전사)

위 치: 강남구 삼성동

대지면적: 264^{·3}m²

건축면적: 지층 13^{·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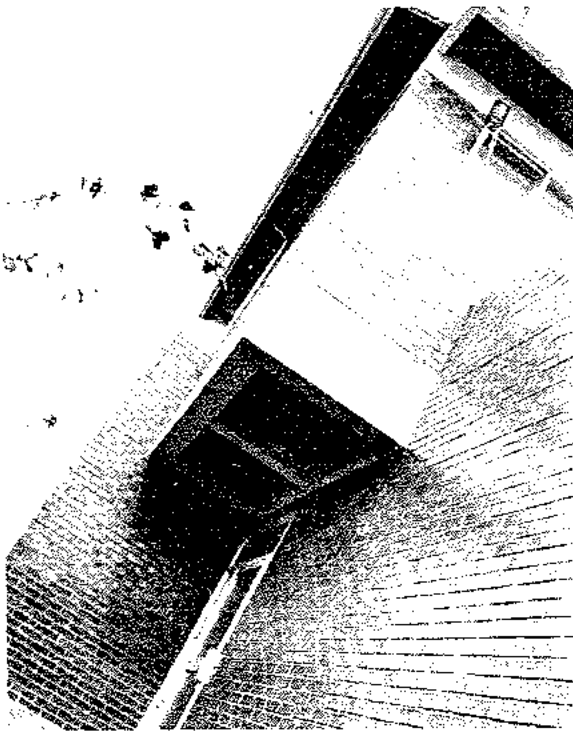
1 층 92^{·4}m²

2 층 56^{·1}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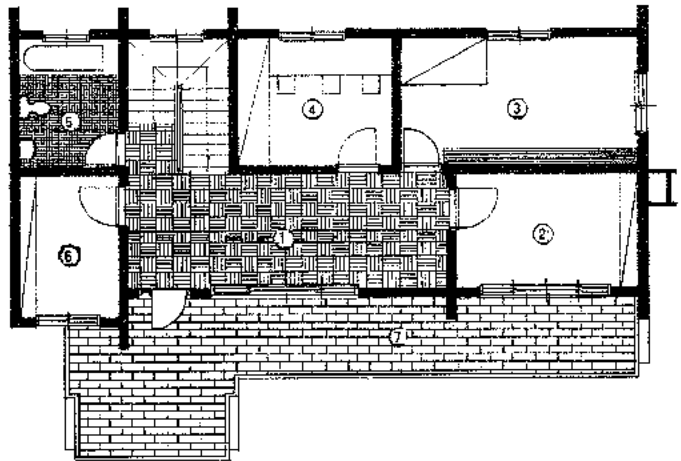
연 면 적: 161^{·2}m²

구 조: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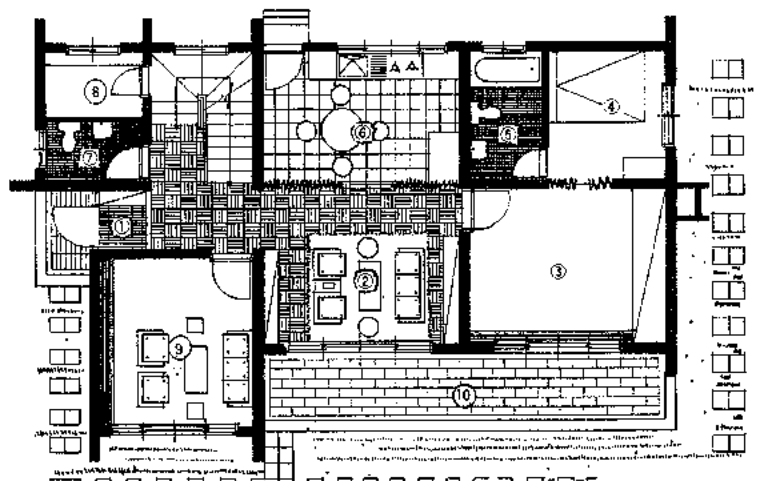


1. 거실
2. 아동실
3. 서재
4. 학생방
5. 욕실
6. 아동실
7.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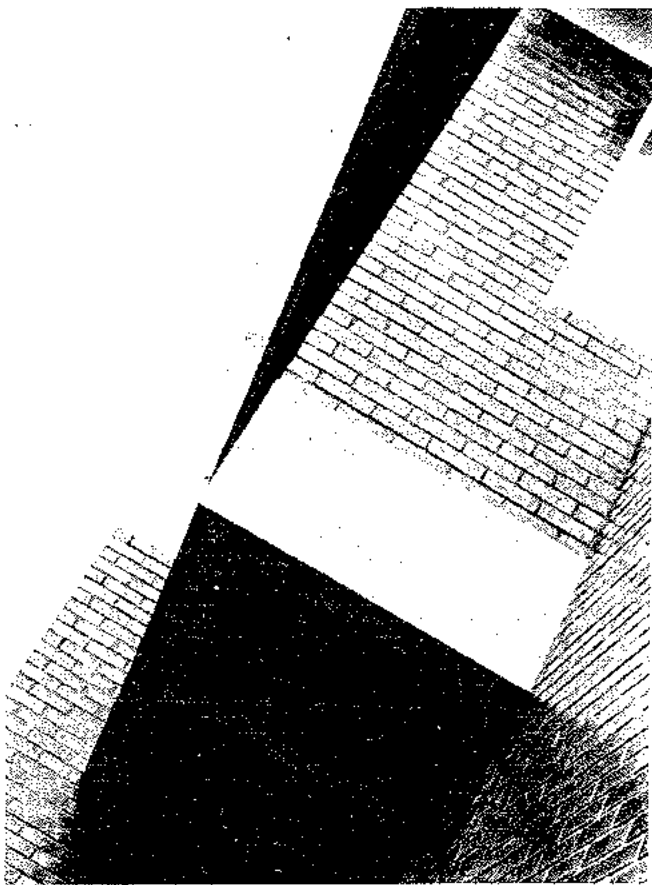


2층평면도

1. 현관
2. 거실
3. 안방
4. 부부침실
5. 욕실
6. 부엌
7. 화장실
8. 작업실
9. 응접실
10. 베란다



1층평면도



현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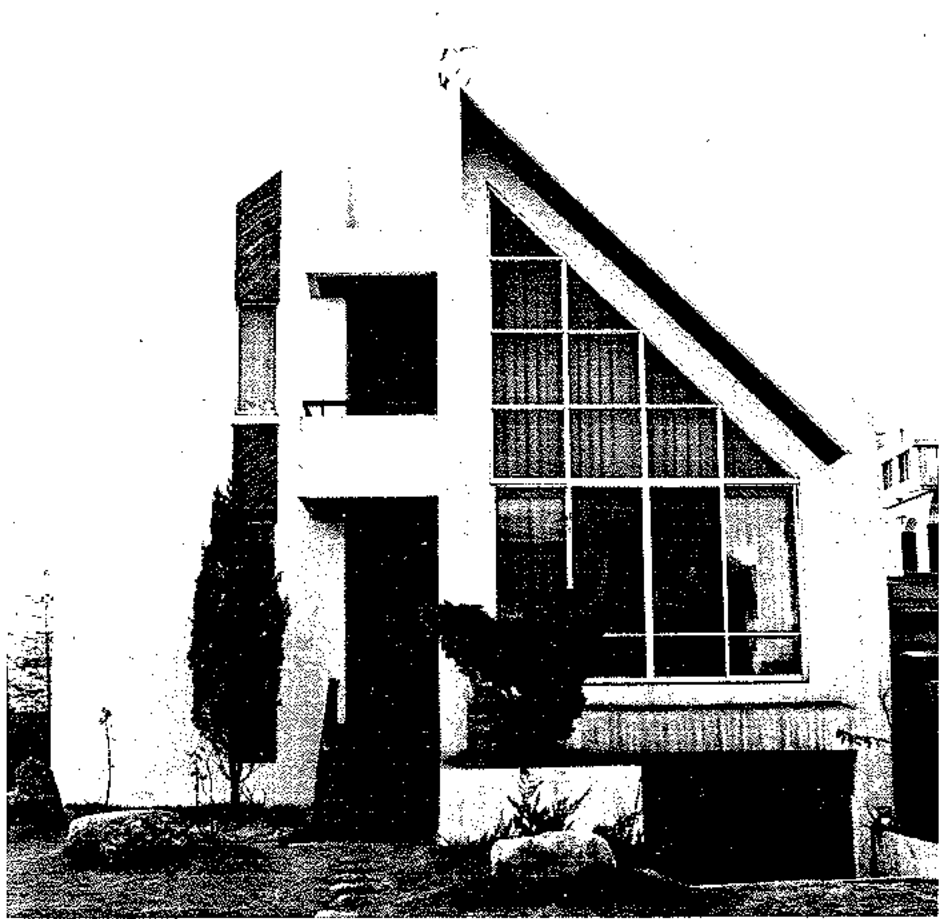
거실쪽에서 본 식당주방



남쪽외관



2층거실



전 경

중곡동 정씨댁

설 계 : 金 英 琪 제 3 건축연구소

담 당 : 정운승 문상철

위 치 : 성북구 중곡동

대지면적 : 101평

건축면적 : 지층 · 8. ⁵⁰평

1층 · 25. ⁵⁰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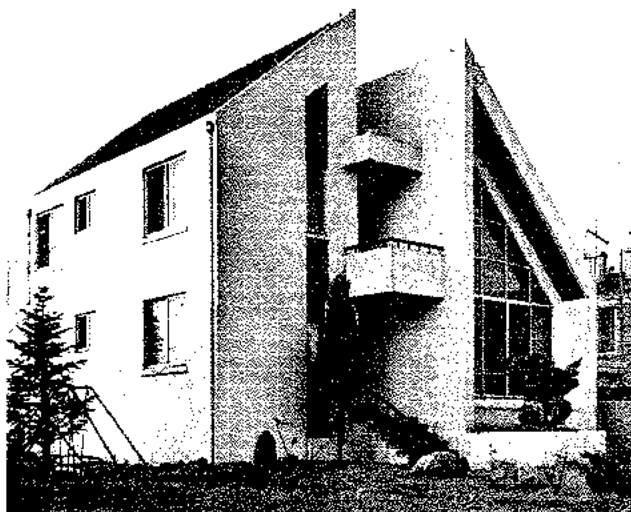
2층 · 14. ⁵⁰평

연 면 적 : 48. ⁵⁰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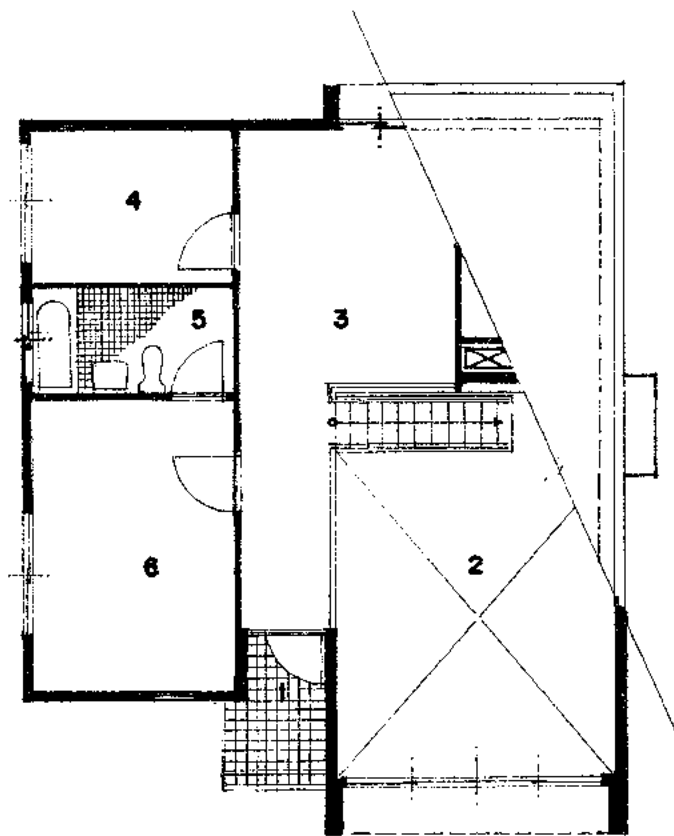
구 조 : 조적조

마 감 : 백색 수성페인트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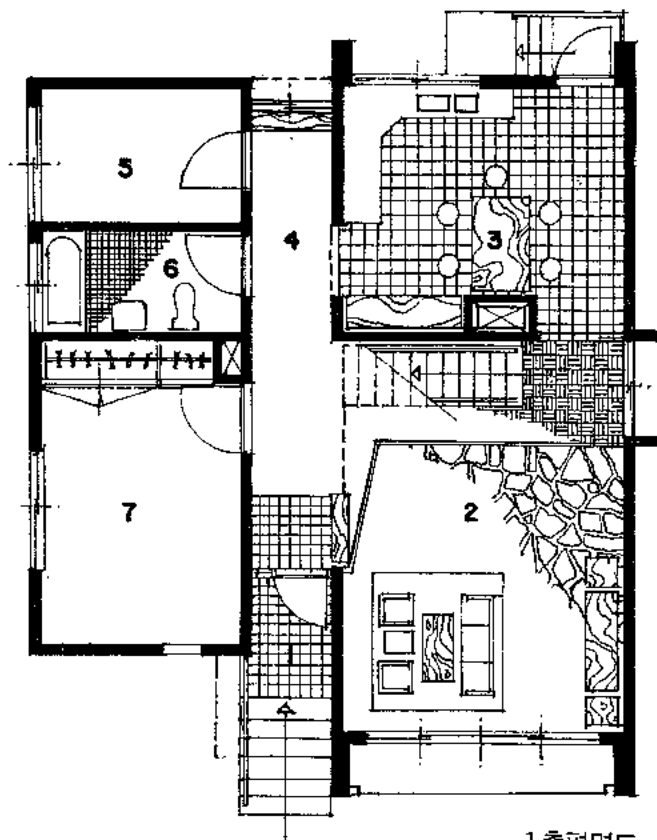


1. 발코니
2. 거실상부
3. DECK
4. 침실
5. 욕실및변소
6. 침실



2층평면도

1. 현관
2. 거실
3. 부엌및식당
4. DECK
5. 침실
6. 욕실및변소
7. 침실



1층평면도



전 경

낙골 ○씨 댁

설 계 : 洪 哲 洙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대 지 : 100평 330m²

건물면적 : 1 층 43평

2 층 15평

지하층 4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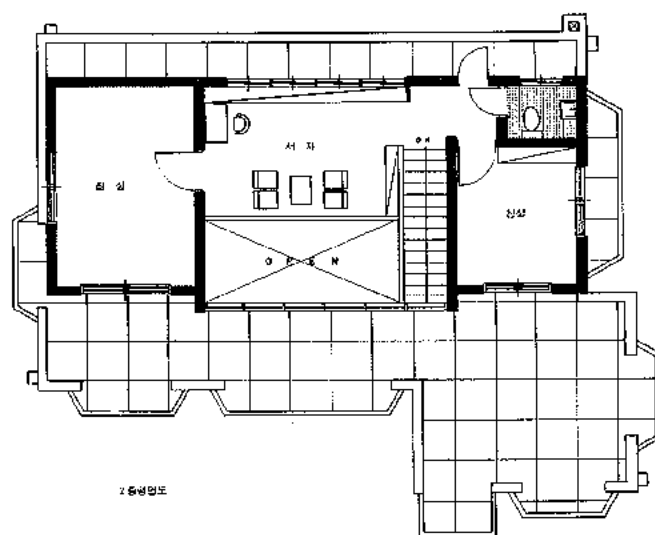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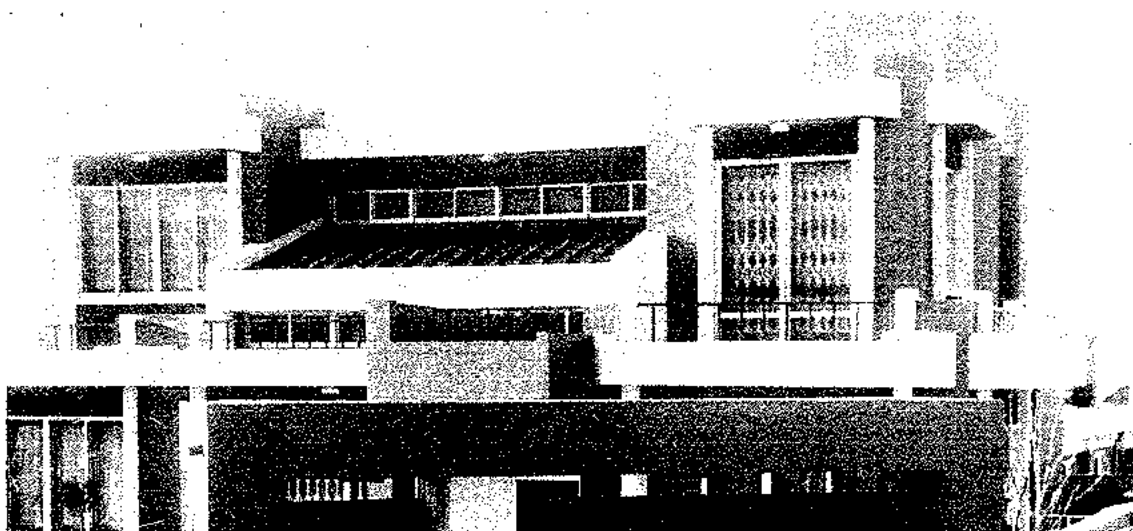
차 고 7 평

계 69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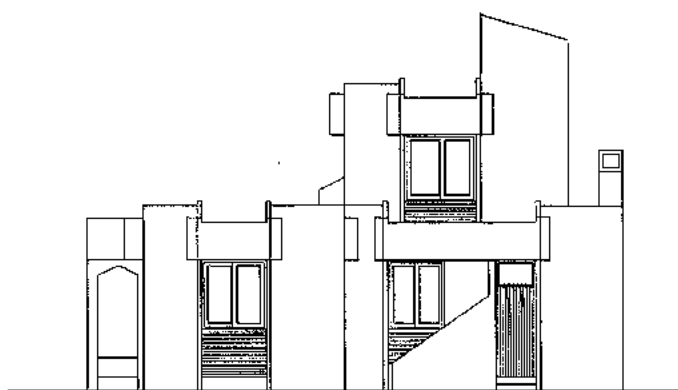


설계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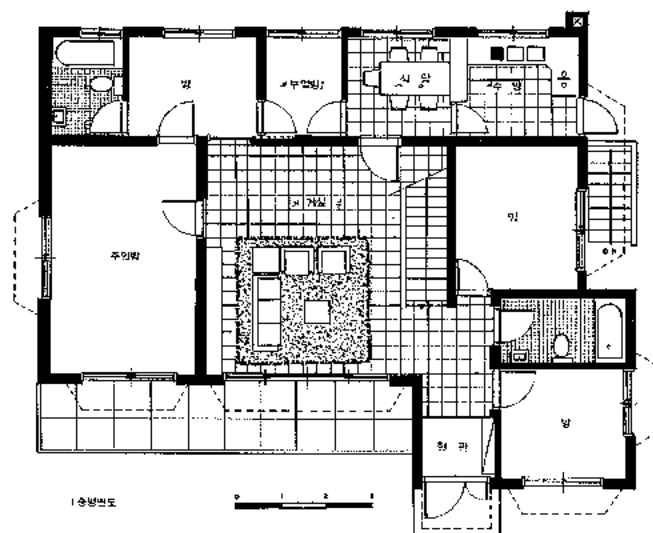
기존건물 1층위에 2층 15평을 증축한 것으로 1층 거실과 2층 서재를 오픈시켜 시각적공간 확대를 이루어 보았음.



2층평면도



동측입면도



1층평면도

또 公 害 放 談

崔 昌 奎 (新進建築設計事務所)

前般에 弄半眞半의 公害放談을 썼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남아 있어서 “또 公害放談”으로 써볼까 한다. 公害란 말할것도없이 加害者가 少数이고 被害者가 多数인 境遇 公害로 認定된다는 것과 加害者나 被害者 둘다다가 人間이라는데 妙味가 있는 것이다.

勿論 이 글이 研究發表論文이 아니고 小雪이 지난 요즈음 爐邊放談程度이니 글 内容이 漫調가 되는 것은 먼저 謝過해야겠다.

人間은 先天的인진 後天的인진間에 많은 矛盾을 지니고 있는 動物임엔 틀림없다. 예를 들면 그렇게도 實利를 찾으면서도 담배(煙草)가 몸에 利롭다고 알고 피우는 사람은 없듯이 몸에 害로운줄 알면서도 기를쓰고 피운다든지, 平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戰爭을 한다든지, 殺生이나쁜줄 알면서 殺生을 한다든지, 敵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도 戰爭터에서는 쓰러진 戰友를 看護하면서 敵에게 當한다든지, 能히 解決할 수 있는 것을 解決은 안하고 問題의 周辺을 일부러 맴돌면서 걱정과 부산을 떠다든지 하는 境遇가 許多하다. 이렇듯 人間은 公害가 되는 것을 알면서 즐겨 그 公害를 더 造作하고 結局은 自己도 그 公害에 被害를 입고 나중에는 滅亡의 길로가야 하는 運命에 있게 되는것은 人間自身들에게 그 責任이 있는것이다. 이러한 일을 長久한 時間해온 人間들은 요즈음 갑자기 公害를 云謂하며 떠들어댄다. 可笑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卽 生覺과 言行과 말과 行動과, 理論과 實踐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 現 人間社會 生活인것만 같다. 바로 이같은 그 矛盾되는 點들을 公害로보고 放談形式으로 써볼까 하는것이다. 그것들은 前般의 열네가지의 例舉에 이어 1. 오만 2. 배짱 3. 생색 4. 체 5. 時間 6. 流行 7. 多目的 8. 韓國的 9. 電話 10. 崇拜 11. 卑屈 12. 清潔 13. 寬容 14. 忘却 15. 勸誘 16. 慈善 17. 獨善이다. 이것들을 붙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오만公害, 人間은 靈長이라고는 하지만 따지고보면 動物임에 틀림없다. 動物이기에 本能을 가지고 있다. 그 本能中엔 種族繁殖이란게 있다. 自己種族을 増殖시킬려면 性의 對象이 있어야한다. 모든 動物과 같이 交尾, 交配, 合宮, 性交가 있어야만 하기에 對象性에게 好奇心이나 興味를 갖게 하든지 人氣가 있어야 한다. 人間은 (男性) 相對的인 女性에게 남보다 돋보이게해서 女性을 自己에게 끌리게 해야한다. 거기서 여러가지 몸짓, 衣服, 言辭, 才操等等으로 他男性보다 女性을 가까이 하자는 本能에서 別난操作을 다한다. 그中에 오만도 包含된다. 현대 이때 異性에게는 好感이가든지 끌리든지 하겠지만 同性끼리는 嫉妬와 같은 或은 “라이벌”意識같은게 일어나서 不快하기 짝이없다. 따라서 한男性이 오만한 態度나 行動을 했을때 같은 男性들은 다같이 氣分이 언짢고 利害關係도 一面不知의 사이라도 그가 미워지고 不快해진다. 따라서 한 사람의 오만이 많은사람에게 不快을 주든지 憤怒까지 일어나게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公害인 것이다. 오만은 心理學의面에서보면 劣等感이나 自己不足, 無能力, 自信이없을때 이것들을 감추기 爲해서도 나타난다 何如間 오만은 자기性이되든, 誇張性이 되든 한사람의 오만이 萬人에 不快하게 느껴지면 公害인 것이다. 예를들면 우리周邊에 오만公害가 充溢되어있다. 市内 버스속에서, 會議席上에서, 거리에서, 到處에서 이런 公害에 부딪친다. 그 오만한자가 一面不知의 사이라도 한대쯤 휘어박고 싶은것은 비록 筆者뿐만은 아니리라 믿는것이다.

②배짱公害, 怪常한 公害도 다있구나 생각할지 몰라도 배짱이 센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虛勢에 가까운것이 事實이고 内容을 分析해 보면 배짱이란 性格이나 氣象에도 關係는 되겠지만 大概의 境遇는 職業的, 習慣的인때가 많다. 배짱이 세보았자 別것이 아니고 結局은 힘 (power)

인것이다. 힘이 金力이건 權力이건 體力이건 힘인것이다. 제아무리 배짱이 센 사람에게서라도 上記한 세 가지 힘만 剝奪해버리면 卑屈한 사람이 되고말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배짱이 公害가 되는가? 即 배짱을 부리는 사람은 한사람인데 到處에서 마구 이배짱을 부리니 公害가 된다는 것이다. 交通巡警에게 배짱을 부리는 運轉手, 官庁에서 부리는 市民, 市民에게 부리는 官公吏, 先生에게 부리는 學生, 男便에게 부리는 아내의 배짱等等... 許多하지만 어딘가 배짱이라고하면 自己보다 윗사람이나 紳사, 또는 그런 機關이나 對相에게 부리는 것은 確實히 反抗的인 面이 있다는것은 뜻하기에 公害치고는 좀 善良한 高級에 屬하는 公害일것만 같다.

③ 생색公害, 생색이란 남에게 物心, 便宜等을 提供(援助, 協助)했을때 일어나는 狀態로서 公害가 될 理由가 없는데도 公害의 例에 올려놓는 것은 바로 善意나 適當한 생색이 아니고 當然한것을 또는 하지않고 한것처럼 내는 생색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末端官公署에서 民願處理等에서 當然히 할일을 하고 안되는 것을 自己의 職責이나 裁量으로 한것처럼 내는 생색(손돈내밀고 恩惠를 입힌다)

學校先生이 學生에게 생색을 낸다면 平常時의 그는 勤務怠慢이었던 것이다. 이 생색의 反對는 謙讓이다. 理知的인 現代人들은 謙讓같은 것은 옛날의 美德이지 現代에서는 安撫한 妥協이다라고들 하지만 善意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謙讓은 現代에서도 美德임에 틀림없는 것이고 다만 이 謙讓이 程度를 지나칠 때에 正反對인 오만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美德인 謙讓도 언젠가는 公害의 列에 끼워질 可能性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④ 害公害, 아—이 害公害만은 할말이 없다. 너무도 많아서 常識化, 習慣化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모르는체, 모르면서 아는체 等等 正反對되는 害가 共存하면서 適所適時에 마구 亂用된다. 이 害公害에 對하면 不愉快는 勿論이고 唾棄, 嘔吐가 날 地境이다. 그래서 公害가 되는 것이다

특히 無識이 有識한체 能力이나 實力이 없으면서도 있는체 하고 行勢하고 있고 또 그 行勢가 通하는 社會이니 이 社會는 벌써 害公害에 浸害當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害公害를 發散하고 다니는 사람 自身도 泰然하지만 害公害에 被害를 입지 않고 앓는 체할 뿐이다. 이 世上에 살면서 남을 속이는 것은 그래도 보아줄 수가 있다고 해도 自己自身을 속이고 있으니 害公害만은 加害者도 被害者가 되고 있다는데 이 害公害의 特徵이 있다.

⑤ 時間公害, 建築哲學에서는 人間의 가장 貴重한 生命을 時間+空間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람들은 社會와 時代

가 發達하면 할수록 時間의 貴重함을 認定하고 時의 記念日(六月十五日)이니 많은 標語 即 “時間은 黃金” “寸刻不可輕”이니 “時間은 生命”이니하며 이 時間의 價值와 效能의 威力을 잘 理解하고 있으면서도 時間을 浪費하거나 疎忽히 하든지, 지키지 않는다. 小數의 時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因해 多數의 사람들이 弊를 입기 때문에 公害라고 불러보는 것이다.

所謂 Korean time이라는게 있고, dead time이 있고, Local time이 있다. 특히 우리 韓國民이 時間觀念이 없어서 Korea time이란 不名譽스러운 單語가 생긴 모양이다.

作故한 前 比律賓의 “막사이사이”大統領이 在職時에 時間을 嚴守해서 會合의 主催者를 唐惶케했다는 痛快한 逸話가 있다. 會議나 모임에 일부러 늦게가야 偉大하고 大端한 것처럼 생각하는 可笑로운 所謂 文化人이나 知識人들이 있다. 이런者들은 文化人이나 知識人이라고 부를 必要도 없는 價值도 없는 似而非族屬들이다.

우리 建築界에 이런 者들이 許多하다. 그들 心理는 到底히 理解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가 그런 職이나 層에 있는지가 疑心스러운 程度이다. 그러한 心理는 劣等感이나 無能力을 감춘다든지, 獨高한체하는 어리석은心事인것만 같다. 現代人은 時間에 끌리어 살고있고 물려 살고있다. 하기야 時間과 힘이 全宇宙를 支配하고 있는것도 事實이지만 이 地球속에서 사는 人間따위야 時間의 絶對인 威力앞에 어쩔 수 없는것도 當然한 일이지만 옛사람들은 그래도 人間답게 時間에 물리거나 풀려서 살진 않았다.

나의 祖父의 境遇만 해도 一年에 한번씩 三南을 巡廻(始祖祭나 門會로)했는데 나귀타고 悠悠히 自然과 時間에 順應하면서 景致가 좋은곳에서는 정마군에 “여봐라 말을 세워라”하고는 詩調한 前쯤 읊으시고 또떠나고 親한것들을 고루고루 찾으시고 始祭나 門會에 參席하고 20日이나 한달만에야 돌아오시곤 했다. 현대 現代 筆者만 해도 무슨 일이있어 釜山엘 갈라치면 마르면 飛行機이고 普通 高速버스나 汽車인데 옛날에 비하면 大端한 速度로 가서 허둥지둥 볼일보고 親旧도 찾을 사이없이 飛行機나 汽車時間에만 神經을 쓰다가 그냥 와 버린다.

이렇게 빠쁘게 時間에 쫓겨다녔다고 해보아야 옛사람들 만큼 일을 했다거나, 自然이나 人間의 潤氣있는 生活을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한것이면서 왜 이렇게들 時間에 쫓겨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時間과 自然에 適應이나 同化할줄 모르는 것이 現代人들의 特性인가보다 그러면서도그 아까운 時間을 지키지도 않고 남에게 被害를주니 害公害는 틀림없는 害公害인 것이다.

⑥ 흉내公害, 흉내는 流行과 半同意語가 된다. 더욱 이것을 煽動하는 것이 “매스컴”이다. 現代가 “매스메디어”의 時代라고 하지만 各種情報가 快速으로 傳達되니 어제

巴里에서 流行한 것이 一週日以内に 서울에 導入된다.

이 흉내는 衣服에서 色에서 形에서 言語와 思潮에서 事件에까지 多様하다. 뚱뚱보아가씨가 東京이나 巴里모드라고(날씬한 모델들의 写真을보고)나도 너도 그 흉내를 내니 보는 사람이 피롭다. 한사람의 뜻없는 或은 無意識의인 흉내가 三者에 不快感을 주니 公害가 되는 것이다.

이 흉내는 비단 服裝程度뿐만 아니다. 小説서 映画, 政策에서 行政方法까지 多彩롭다. 문득 생각나는 것만도 淸溪川高架道路, 市民証 가승의 名札付着에서 日用品, 各種商品, 書籍에 이르기까지 日本이나 西歐의 흉내아닌 것이 거의없다. 主体意識을 絶叫하고 있으면서 創意로 한것보다는 越等히 흉내를 내는것이 많다는 점에 一種의 悲哀마저 느끼게된다.

⑦ 多目的의 公害: 多目的의 왜 公害가 되는가 反問이 나올만한 말이다. 近來 우리들 周辺에서 多目的이란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曰, 多目的의 땀, 多目的의 흥, 多目的의 廣場, 多目的의 女人等等 특히 建築部門이나 建設部門에 多目的이란 말이 흔히 쓰여지고 當然한 것처럼 常識化 되어있다. 이것은 建築에서 機能主義가 판을 치듯이(建築理念의 全部도 아니면서도) 多目的의 建物이나 綜合建築이란 것이 가장 옳은것으로 되어있는데에서 問題가 되는것이다.

建築的 “아카데미즘”이 아니라도 多目的이란 中途半端, 模糊 曖昧한 것이고 어느것 하나도 完全치 못하고 使用이나 管理에도 不利하기 때문에 多數에게 弊를끼치고, 또비위에 거슬리게 하므로 公害라고 불러보는 것인데 이것은 新單語의 流行이나 체에도 關係이 있는것이고 結局은 經濟力의 貧困으로 慾心을 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싶다는데서 多目的이라고 이름 붙이고 伸縮性이나 融通性이라는 美名아래 盛行되고있다.

例를 들어 多目的의 홀이라는 建物을 보자 集會에도 演劇에도 會議에 쓸 수는 있어도 어느것 하나에도 滿足이나 充實하게 쓰여질 수 없을때 使用하는 多數가 그만큼 不使即 弊를 입는다. 이것은 建築主의 要請이였는지 建築家의 創案이였는지問에 可笑로운 일임엔 틀림없다.

우리 俗談에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있다. 적은 돈으로 여러가지 좋은것을 짓겠다는 心思는 一種의 強盜的인 點이 없지않다. 正當한 投資에 正當한 結果를 要求한다는 正當의 길이 있는데도 流行이나 慾心이나 체로서 多目的의 하나 가가막힌다.

⑧ 韓國의 公害, 韓國人이 韓國的인 것이 왜 公害가 될까? 그 以前에 韓國人은 왜 韓國的의여만 하는가? 始初부터 韓國人은 韓國的의 아니었던가 萬一韓國的의 아니었다면 그는 確實히 反國家的의였다고 보아야 하겠다. 反國家行爲 処罰法이 있는데 구태어 韓國的이란 號令인가.

韓國의 民主主義! 民主主義에 美國的이고 英國的 이고 日本的이란게 있는지? 大體 韓國的의 民主主義란 무엇인지 늘리는것인지 가지고 노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韓國의 精神, 韓國의 行政, 韓國의 現代建築, 韓國的의 協會, 韓國的의 建築家, 韓國的의 生活概念.

아~ 韓國的이란 무엇에든 붙이고 이것을 붙임으로 해서 가장 愛國한다는 뜻처럼 생각들 하는 모양이다. 이 公害는 國家至上이나 民族至上이라는 말과 同意語가 되는것이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多目的인 術語인것만 같다. 愛國 公害와도 一脈相通하는 點이 있다.

여기서 韓國的인 것이 公害가 된다는데는 事實은 우리들이 가장 不愉快하게 느끼는 外國人에 對한 韓國的인 待遇나 態度인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開國以來 어느때보다도 가장 強力한 行政力을 가진 때가 아닌가보는데 바로 이 強力한 行政力이 國民에게만 強力했지 外國人이나 外國機關에 對해서는 無力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金科玉條같이 내세우는 韓國的이라는 말과 佐家의 寶刀같이 使用되는 行政力이나 司法權이 外國機關, 外國商社, 外國人에게는 너무도 無力하다는 점이다. 觀光이나 商用으로온 外國人이 韓國의 여러點에 對해 그 系統에 專門家도 아니면서 저쩌려면 몇마디의 無責任한 發言이 國內의 專門團體나 專門家들이 發言한 것보다 더욱 比重무겁게 報道되고 取扱된다는 點이다.

曰 “韓國의 建築家들은 建築設計를 해본經驗이 없어서 Hotel같은 것은 設計할 수가 없다. “韓國같은 發展途上의 國家의 아파트는 一世帶가 13坪 以上の 것은 必要가 없다” “韓國의 古建築이 아름다운데 왜 現代建築을 할 必要가 있는가” 等等의 專門的인 建築에 關한 發言을 新聞記者나 장삿군들이 바꾸 저쩌려했고 또 그것을 옳은 말이라고 믿고 있는 行政家, 經濟人, 文化人들이 意外로 많다는 것을 알게 愕然한할 수 없다.

果然이런것 이 韓國的이라고 떠드는 層이 더 많다면 무슨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옛부터 弱者에 強하고 強者에겐 弱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요즘 公害라고 말할 수 있게까지 된 韓國的이란 것인것만 같다. 萬一 그렇다면 가엾고 불쌍한 일이다. 왜 우린 우리들끼리에는그럴사하게들 말하고 行動하면서도 外國人에게는 寬大하고 尊敬하고 同情的인까?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의 自由도 守護못하면서 他國의 自由를 爲해 派兵해야 하는가라고”

⑨ 電話公害, 남의 집이나 남의 事務室에 가서 電話機만 보면 쓸데없이 電話를 거는 버릇이 있는 親舊들이 있다. 어떤 誘惑을 느끼는 模樣이다. 이런 親舊들은 公衆電話는 걸지 않는다.

이런것도 電話公害의 一種이지만, 한밤중이나 바쁜 勤

務時間中에 事務나 公務以外の 하찮은 不必要한 電話를 作하는것.

한번 電話機를 들었다하면 몇十分키녕 몇時間을 饒舌을 늘어놓고 三年前의 고사뻘 얻어먹은 人事까지 하는 中年以上の 婦人들 沐浴中에 오는 電話, 用便中에 오는 電話 그것도 잘못걸려오는 電話 相對가 보이지 않는 電話 이진만 벗어나서 未安합니다라든지 高官에게 電話筒에 머리를숙여 人事하며 받는 電話, 恐喝電話脅迫電話, 아무리 바빠도 本人과 直接 相面했다면 叱咤안해도 좋을일도 電話가 왔기에 안받을 수 없다는 電話의 魔力에서부터 現代文化의 利器는 結局 人間을 奴隸로 만들고 있다.

이 現代文明의 利器처럼 便利한 것도 없지만 또 이것처럼 故障났을때 不便한 것도 없다. (代替할 것이 準備 되어 있지 않다. 또 故障가 자주난다.) 우린 電話를 비롯해서 數 많은 所謂 文明의 利器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勿論 우리生活을 便利하게 하겠다는 단 한가지 理由로서 었지만 그 利器가 어떤때는 搖地不動의 不便과 困難을 便利와 같이 가지고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 困難과 不便이 나아가서는 人間에게 주어진 오직 神이준 一回의인 生命에까지 危脅을 준다면 利器란 뜻은 우스운 것이된다. 하키야 이 世上의 모—든 公害가 다 便利하고 살기좋고 人間爲主의 便에서만 서서만든 어떤科學, 機械, 商品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만 그래서 電話도 亦是 그런部類中의 하나이니 公害라고 이름붙여 보는것이다.

① 崇拜公害 / 崇拜란 남이 훌륭할때 (人格, 知識, 教養, 業績, 健康等) 그를 崇拜하는 것이며 이것이 公害가될 理가 없는데도 구태어 公害의 列에 올려놓는 것은 그런 崇拜를 말함이 아니고 特定人을 崇拜한 나머지 그를 偶像化하고 더욱 나아가서는 神格化까지 하는 따위의 崇拜를 말하는 것이다.

過去 日本天皇의 境遇나 獨逸의 “히틀러”等 第二次大戰의 戰凶들이 바로 그런 親旧들이었음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이런 일은 政治나 宗教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들인데 似而非宗教의 教主라는 者들은 거의 이것을 強要하고 있다. 政治面에서는 共產主義나 社會主義國家들 即 唯一思想을 政治 “이데오로기”로 하는 体制의 國家엔 흔한 일들이다.

이럴때 그들은 真心이진 假字이진 그를 崇拜하는 체라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公害인것은 確實해진다.

② 卑屈公害 / 이 卑屈公害부터 以後에 列挙할 公害들은 前般에 列挙한 것의 正反對되는 것도 亦是 公害의 素地가 있는지 또는 公害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만의 反對가 卑屈한듯이 不潔의 反對인 清潔, 記憶對忘却等等...

國家나 軍隊나 團體나 學校에서 한사람의 卑屈함으로因해 입는 被害는 때에 따라서는 絶對的이고 決定的인 때가

많다. 가장 좋은예가 軍隊에서 上部 指揮官의 卑屈한 行動이 그 部隊全體에 미치는 點을 像想만해도 소름이 끼친다. 國家를 代表하는 外交官, 團體運動競技의 한 選手의 卑屈에서부터 家長의 卑屈, 對外的인것 뿐만아니라 私的으로는 同僚의 卑屈, 上官의 卑屈 等은 참을 수 없는 苦역질 나는 일들이다.

③ 清潔公害 / 清潔한 것이 왜 公害가될까 異常한 이야기이지만 不潔한것이 公害가 된다는 것이 確實한 마당에야 그 逆 또 眞이 아닐 수 없다. 나만이 清潔하고 即 潔癖性인 것임에 市內뻘스를 타면 若干濫洩한 衣服이나 洗手 안한 사람만 있어도 그와 몸이 닿을가봐 避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손수건을 가지고 입과 코를 막고 야단을 치는 사람이 있다. 特히 女子인 경우 모든 便所속의 男子가 다 癩癩이나 된듯이 몸을 도사리고 툴치고 증얼대고 하는, 世上이나 世上사람들이 다 不潔하고 自己만이 清潔하다는 式의 言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不快感을 주는가를 像想만도 해보라.

이런것은 確實히 害公害와도 通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 일수록 一年에 沐浴을 한두번 밖에 안하는주제 그렇다면 일은 더욱 佳境에 들어가서 蔑視하게끔 될것이다. 事實異常하게도 世上에는 自己劣等意識으로서 自己가 不潔한 것을 自覺하고 그것을 反對로 外部에 表現하는 境況가 많은것을 어찌하라.

④ 寬容公害 / 寬容이란 一段은 多小間에 自己가 損害을 (物, 心的으로)보고 들어가는 것이기에 損益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精神的或은 思想的인 卑怯性이라까 無主觀性을 들어 불러는 것이다.

大概의 境遇 政敵이든지 事業의 競爭者이든지가 死亡하면 거의 다가 寬容한다는 버릇이 있다. 죽은者가 生前에는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도 그가 죽어버리면 그의 功勞를 讚揚하고 生前의 그의 잘못을 容許하고 哀悼한다. 이러한 心情을 人間의 常情이란 말로 表現하지만 事實인즉 어떤 意味에선 安心 即 神經쓰자 않아도 되겠다는 安情感乃至는 痛快感이 作用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그는 죽었으니 나와 競爭할 수도 없다는 고소한 마음이 表面에 寬容이란 形式으로 나가면 남들도 훌륭하다고 볼 것이니 一挙兩得이 된다는 心理作用이 多分하다는 點이 많은 點이다.

中國의 古事에서 그들의 寬容과 反對되는 澈底한 心理를 그린 예를 들어보면 大概의 境遇 敵이나 怨讐가 죽으면 萬事終焉으로 끝나는데 비해 이 예는 너무도 始終一貫 澈底하기에 眞迫感마저 느낀다.

即 中國 古代에 自己아버지가 政敵의 謀陷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그를 죽일려고 따라다니고 그 亦是 그것을 알고 避身해 다니다가 結局은 病으로 죽는데 그의 아

아들도 相對方의 아들이 復讐해 울것을 알고 아버지의 屍體를 깊은 湖水속에 石棺으로 해서 埋沒시켰는데 끝내 그것을 알고 그湖水를 찾아 물을 다 퍼내고 石棺을 부수고 白骨을 꺼내서 散散히 부셔버리는 死後의 白骨에까지도 復讐를 했다는 古事가 있다. 이것은 寬容과는 正反對가 되는것이나 眞意의 寬容이 人間의 美德임엔 틀림없으나 그 寬容이 반뜻의 表現일때가 不道德하다는 것을 말하고자하는 것이다. 敗北를 寬容으로 變質시키고 아침을 寬容으로 表現하고 快哉를 寬容의 形式을 벌려서 속으로 滿足하는 따위의 行為가 公害에 屬할 수 있다고 보기에 別한 公害로서 말해보는 것인데 이때 가장 被害를 입는 것이 寬容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진 術語일 것이다.

⑭ 忘却公害, 記憶公害의 反意語로 約束을 時間을 信義를 境遇를 原則을 秩序를 倫理 道德을 立場이나 處地를 自己의 實力이나 能力 力量을 却忘하는 일은 우리 周邊에는 너무도 많다. 바로 이 忘却 때문에 社會 問題에서부터 個人 人間의 紛吵에 이르기까지 家庭 不和에서 官弊, 民弊, 秩序 破壞에서 違法反逆에 까지 헤아릴수 없을 程度의 許多한 被害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全人類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이 公害야 말로 科學的 物理的도 아니면서 그것들 보다 더 무서운 威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⑮ 勸誘公害, 煽動, 廣告, 強要, 誇張 公害들과 一脈相通하는 것으로서 特히 利權이나 장삿군인 面이 많은 참을 수 없는 公害인 것이다. 保險加入 勸誘의 끈질김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強要性을 띤 勸誘公害가 橫行하고 있는가 이 勸誘라는 것은 一種의 說得인데 說得力이란 特殊한 本質을 가지고 있다. 即, 가장 強한 說得力을 가진 것은 亦是 힘으로서 權力 經濟力 雄辯力인데 絶對權力者의 부드러운 勸誘는 命令的인 色彩를 가지고 있어 싫어도 說得當하게 마련이다. 金力亦是 方法手段을 가리지 않고 相對에 作用해서 說得을 시킨다. 言辯의 能熟으로 說得을 시킨다. 여기서 建築하는 사람들은 不幸히도 이 세가지의 힘이 없으므로 建築主나 發注者를 說得은 커녕 도리어 그들에게 反對로 說得을 當하고 만다. 이런 現實이 오늘날 우리 社會에 좋은 建物이 못서는 理由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權力, 金力の 所有者들) 無知와 耽慾을 充足 시키는데 利用當하고 있으니 좋은 建物이 실수가 없는것은 當然한데 社會는 이 責任을 建築家에게만 써워 버린다. 이렇듯 說得 公害 라고도 할 수 있는 (점잖게 말해서) 勸誘 公害라고 해 보는 것이다.

⑯ 慈善公害, 慈善이란 社會的으로로나 人間的으로나 훌륭하고 좋은 일임엔 틀림없다. 그런데 公害라고 하는 理由는 簡單하다. 法 理論에 “法の 虛를 알고 罪를 犯하는 者에 對한 罰은 더욱 嚴하다”라고 있다.

이와같이 慈善의 美名을 利用해서 惡을 行하는 者들을볼 때 이것이 萬人에게 公害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와 時를 가리지 않고 거리에서 機關에서 洞會에서 慈善이란 口號아래 義捐, 救援, 援助金을 半強要當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열매 부는 무슨 色리본, 水災民 赤十字費 等 法에도 없고 規定에도 없고 오직 本人의 自意에서 이루어 질때 그듯이 있는 慈善金 慈善心을 여러가지 方法으로 強要가 아닌것처럼 強要받고 있었지 않았는가.

水災義捐金이나 사랑의 열매 크리스마스 慈善金 等の 使用한 곳과 明細가 新聞이나 其他의 方法으로 發表된 일이 몇번이나 있었을까. 不信의 時代이기에 우리 그모인 額數와 使用處(傳達處)가 疑心스러워 지는 것이다. 萬一 그大部分이나 一部分이라도 半 意味에 或은 몇몇 사람이 着服을 했다면 慈善의 뜻은 흐려질 것이고 疑心은 더욱 커지고 다음 부터의 慈善은 成果가 나빠질것은 當然한 것이 되겠다. 이런 疑心の 証據로서는 不良學生들이 힌 掌印을 끼고 힌 마스크를 하고 힌 箱子를 먹고 거리에 募金해서 學費도 않인 放湯費에 썼다는 報道를 몇번 본 記憶이 있다.

問題는 報道되지 않은 곳에 있고 또 像想될 수도 있다. 慈善이란 果然 疑心을 품고 半強要되여서 까지 慈善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慈善의 뜻이 있는지? 到底히 알수가 없다.

例로서 賦課되는 赤十字 會費라는 것은 法이나 規定으로 義務化된 것도 아닌데 洞職員의 推則에서 金額이 配當 賦課되고 各種民願書類 處理時에 赤十字會費 領収証을 提示하지 않으면 民願書類를 處理 않해 준다는 것 等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理解가 困難하다.

言必則 弱한 洞職員을 좀 보아 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募金額數가 即 그職員의 勤務成績의 點數가 된다는 것이다. 長髮族의 責任檢拳數量 交通違反 車輛의 摘發責任 數量 税金의 徵收 責任割當 額數 等과 뭐 別다를 것이 없다.

萬一 慈善이 이런 式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면 慈善이라고 하지말고 法이나 規定을 明確히 定하고 그 範圍內에서 하면 될터인데도 慈善으로 그냥 두고 行하기때 慈善公害란 말도 있어서 나쁠것 없다고 본다.

⑰ 獨善公害, 善은 善이나 自己 혼자서 만의 善이될때 問題가 생긴다. 善이란 人間의 完全 圖然과 眞과 美를 內包한 것을 말하는데 獨善이 되면 惡으로 通한다. 勿論 法的인 것은 아니고 倫理나 道德인 面이다. 그러나 獨善이 마치 習慣이나 常識化 될때 많은 사람들이 弊를 입는다.

獨善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被害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 公害는 틀림없는 公害인 것이다.

大概 獨善者들은 滔滔한 雄辯으로서 自己의 獨善을 肯定化, 正當化 시킨다 이때 大部分의 大象은 그럴사하게 넘어간다. 여기서 獨善者는 意氣揚揚해서 自身도 도취되

여 始初意識했든 獨善도 正當한 것으로 認識하고만다. 바로 이때가 무서운 公害의 毒素가 發効하기 始作하는 때이다. 自己만이 萬能이고 唯善이다.

小數의 自己들만이 選人이라는 錯覺(狂信的)에서 唯我獨尊이 된다. 獨善, 獨高, 獨裁, 獨尊等等 自己만이 自己들만이라는 生覺은 歷史的으로도 滅亡의 길을 걸었다는 史例를 잘 알면서 이 獨善의 公害에 浸害되면 그런것조차 忘却하고 繼續 獨善을 強行한다. 그의 가는 길은 오직 滅亡뿐이다. 近者公害가 우리 人類世界에 重大한 關心事가 되고 이글과 같은 漫調公害 放談도 나오게 되는 줄 안다. 何如間 公害는 廣義의 意味를 가지고 있고 그 本質

에서 科學的이건 物理的이건 또는 心理學的의든 그 原菌이 人間이고 被害를 입는 것도 人間이라는 即 加害者도 被害者도 모두가 人間이라는데 特徵이 있고 아주 “아이로닉”한 농이다.

따라서 人間이 있는 곳엔 반드시 公害가 있게 마련이고 公害는 永遠히 그度の 差異는 있어도 人間과 共存한다는 運命에 있고 同時에 人間은 公害와 共存할 수 밖에 없다는 結論인데 要는 그害의 危險度가 人間の 制御限界를 넘었을때 遇해 시켜서 廻避할 方法이 없을때 또는 公害의 眞意를 把握도 못하고 關心을 기울이지 않을때 人間은 地球는 이 公害로 因해 滅亡할 것이다.

會員奇稿 公告

1. 作 品 . ㄱ) 平面圖, 透視圖, 或은 全景寫真

ㄴ) 設計概要 (POINT)

ㄷ) 寫真은 되도록이면 墨白사진으로 內裝, 특수部分

ㄹ) 규격(도면)은 $\frac{1}{100}$ 축척으로

ㅁ) 圖面說明文은 한글로 表記할것.

ㅂ) 作家 명함版 사진 1매

2. 論說이나 論文 .

ㄱ) 會員코너

체험기, 기행문, 취미

低温貯藏庫의 施工 과 施工上의 問題点

李 丞 雨 (綜合建築設計事務所)
提供

目 次

- § 1. 低温貯藏庫의 一般의概念과 種類
 - 1-2 防湿層의 施工 및 施工上의 問題点
 - 1-3 貫通部分 및 角部의 施工上 問題点
 - 1-4 施工에 있어서 바탕만들기 할때의 注意
 - 1-5 木造바탕의 防湿層施工과 施工上 問題点
- § 2. 断熱工事(防熱工事)의 施工 및 施工上의 問題点
 - 2-1 断熱工事의 概念과 断熱材의 種類 및 性質
 - 2-2 基礎周圍의 断熱工事의 問題点
 - 2-3 바닥面의 断熱工事와 問題点
 - 2-4 壁面의 断熱工事와 問題点
 - 2-5 반자断熱工事와 問題点
 - 2-6 屋上断熱(最上層반자)工事와 問題点
 - 2-7 貫通구멍의 断熱工事와 開口部(扉部分) 断熱工事施工의 問題点
 - 2-8 防熱扉施工의 問題点
 - 2-9 断熱工事に 있어서의 接着劑使用上의 注意
- § 3. 軀體施工과 問題点
 - 3-1 軀體施工工程과 機械設備工事等の 着工時期와 搬入問題
 - 3-2 軀體施工과 防湿断熱層工事와의 關係와 問題点에 對하여
 - 3-3 機械設備와 軀體施工上의 問題点
 - 3-4 荷役設備와 軀體施工上의 問題点
 - 3-5 마감工事의 施工에 對하여
 - 3-6 低温貯藏庫의 基本的原理와 加工의 見地에서의 觀察

§. 1 低温貯藏庫의 一般의概念과 種類

低温貯藏庫는 一般倉庫와는 달리 特異한 特徵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貯藏하는 品質에 따라서 틀려지나 一般的으로 倉庫와 冷却機械裝置를 必要로 하며 貯藏品에 따라서는 生産工場(處理場 加工場)을 兼할 必要가 있다. 一般倉庫에 比하여 採光窓을 必要로 하지 않으며 大氣에 接하는 部分 및 溫度差에 依하여 区劃되는 部分에 断熱을 하고 冷却設備을 하며, 庫內溫度(保持溫度)에 따라 除湿裝置를 設置한다.

普通 一般倉庫일 때에는 施工上 또는 計劃上의 mistake는 營業을 하면서 施工補修가 되지만 低温貯藏庫일 때에는 庫內溫도와 外氣溫度差, 断熱, 冷却機械裝置 등이 있음으로 손쉽게 施工補修 또는 變更等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施工当初에 充分한 施工計劃의 檢斗가 必要한 것이다.

또한 低温貯藏庫는 食生活 向上과 國民經濟의 高度成長에 따라 여러가지 物品을 保管하게끔 되어으며 그 保持溫度에 따라서 大體로 다음 4 種類로 分類한다.

- 1) SA 級低温貯藏庫.....-20°C 以下の 保持溫도의 倉庫
- 2) A 級低温貯藏庫.....-10°C
- 2) a 級低温貯藏庫.....-10°C 以下の 保持溫도의 倉庫
- 3) b 級低温貯藏庫.....-10°C ~ -2°C 以下の 保持溫도의 倉庫
- 4) c 級低温貯藏庫.....-2°C 以上(普通+4°C 程度)의 保持溫도의 倉庫

또한 保管物도 凍結鮮魚 凍結肉類, icecream 物類 butter, 塩魚 ham, cheese 燻製品 果實 酒類 茶 毛皮品

煙草, 米穀類 등의 保存保管부터 麥酒工場에서의 hop 의 保存庫 및 麥酒貯藏까지 多種多樣하다. 따라서 各 保持溫度 및 保管物에 따라서 低溫 恒濕의 條件도 달라지며 施工上의 注意點, 施工法도 달라진다.

庫內溫度가 $\pm 0^{\circ}\text{C}$ 보다 낮을 때에는 冷却管에 서리(frost)가 붙기 쉬우며 庫內는 乾燥하기 마련이다. 이 乾燥空氣가 庫內에서 對流하며, 保管物의 水分을 吸收하고 따라서 品質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問題點이 發生한다.

이러한 問題를 여러가지 方法으로 除去하기 위하여 低溫貯藏庫의 設計時에는 充分한 檢査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設計上 充分한 計劃과 充分한 對策이 세워져 있어도 施工不可能한 計劃이든가 또는 施工은 充分하나 施工할 時點에 있어서 施工上 問題點 등이 解決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机上空論일 뿐이다.

第一 먼저 乾燥를 시키기 않기 위하여서는 物品의 溫度와 冷却시키는 冷却管의 溫度差를 적게 하거나, 外部부터 侵入되는 溫氣, 熱 등을 絶對로 없애 지 않으면 안됨으로, 斷熱工事, 防濕工事 등이 必要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低溫貯藏庫의 施工上 가장 많은 問題點이 되는 것은 斷熱 防濕工事인 것이다.

1-2. 防濕層의 施工 및 施工上의 問題點

1-2-1. 施工에 있어서의 一般의 注意事項

防濕層에 使用되는 felt 는 勿論 roofing 類도 切斷面부터의 吸濕性이 있으므로 野天에 두어도 雨露에 맞거나 直接地面에 두어서는 안된다. 絨毯 등에 두어 바닥에 適當한 板材를 깔고 세워서 두어야 한다. 옆으로 쌓는 것을 嚴禁하고 lap 保護를 위하여 2段으로 쌓지 못하게 한다. 또한 asphalt 溶融釜(釜)의 設置는 가장 施工場所에 가까운 곳을 選定하여 設置할 것이다.

溶融釜의 數는 施工面積을 考慮하여 設置하나 大體로 施工面積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定한다.

施工面積 300 m^2 以下 釜 1~2個

施工面積 300~1,000 m^2 以下 釜 2~3個

施工面積 1,000 m^2 以上 釜 3個以上

콘크리트의 모체는 充分히 乾燥한後 防濕工事を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밀바탕 콘크리트의 乾燥測定은 密閉 cup 內의 平衡溫度를 測定하는 方法, 高周波水分計에 依한 mortar 의 電氣容量의 變化를 測定하는 方法 등이 있다.

防濕施工을 할때의 mortar, concrete 의 乾燥度는 前者에서는 平衡濕度 88% 또는 그 以下, 後者에서는 電氣量 80PF 또는 그 以下가 되어야 한다.

또한 氣候가 不順하여 施工途中에 降雨이 있어 壁體, 바닥 등에 雨水가 드리갔을 때에는 一端施工을 中止하고 붙여 놓은 felt,

roofing 등의 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asphalt 의 刷毛塗 등을 完了할 必要가 있다.

또한 防濕層이 施工되어있지 않은 部分부터 防濕層의 下部에 물(水)이 돌지 않게끔 処置養生을 할 것이며 felt, roofing 類는 바닥에 板類 등을 깔고 세워 쌓으며 防水 sheet 등으로 씌워야 한다.

防濕層下地의 表面이 울퉁불퉁하면 felt, roofing 類가 下地와 密着하지 않으며 air pocket가 생기기 쉽고 上部荷重이 있을 때에는 防濕層이 破損되어 漏濕의 原因이 된다.

바탕만들기 및 乾燥가 充分하게 施工된後 asphalt primer 를 防濕層施工 部分에 刷毛引 또는 spray 를 한다. asphalt-primer 의 完全乾燥는 約24 時間 以上 必要로 한다.

asphalt primer 를 바르는 것은 바탕 concrete 内部에 있는 濕氣의 滲出 및 外氣부터의 濕氣의 滲出을 防止하는 것과 高溫 asphalt 를 使用할때, 下地 concrete 의 水分을 急激하게 誘出하고 asphalt 層에 氣泡가 發生하는 것을 防止하고, 바탕(下地)부터의 濕氣를 防止하는 役割이 크다.

asphalt 分을 充分히 浸透시키고, 또한 어느 程度 撓水性을 가질 수 있는 良質 asphalt primer 는 大略 1 m^2 당 約 0.3 ℓ 의 比率로 塗布(吹付)하면 充分하다.

asphalt 의 施工溫度는 軟化點에 140°C 를 가한 것이 適當하다. 普通使用되는 asphalt 일 때에는 軟化點이 90°C 임으로 適正施工 溫度는 $90^{\circ}\text{C} + 140^{\circ}\text{C} = 230^{\circ}\text{C}$ 가 된다.

現場狀況에 따라서는 施工時의 asphalt 溫度는 낮게되기 쉽고 施工不良일 때가 많으므로 溶解溫度에 注意를 하지 말고 施工時의 溫度를 適當히 保持하는 것이 重要하다.

重要的 것은 asphalt 의 高溫加熱이 長時間에 걸쳐 있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長時間加熱 때문에 asphalt 의 品質을 變化시킬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防止하자면 asphalt 를 小片(約 200 m^2/m^3 정도는 約 4 kg)로 쪼개서 釜(釜)에 넣어 攪拌하여 녹은곳부터 使用하도록 하여야 한다.

炎天時에 斷熱先 工法으로 防濕層을 施工할 때 felt, roofing 類의 表面上에 asphalt 를 刷毛塗 하고 또한 흐르게 하면서 felt roofing 類를 부치는 것이 좋다. 그러나 施工 作業員의 진발 등에 刷毛塗한 asphalt가 附着하고 防濕層의 被覆이 破損될 憂慮가 많으므로 刷毛塗를 하지 않고 asphalt 의 施工溫度를 조금 낮추어 m^2 당의 使用量을 約 1.5kg의 比率로 흐르게 하면서 felt, roofing 類를 붙이는 것이 좋다.

felt, roofing 類를 바르는 方法은 普通하고 있는 staggerd (干鳥) 工法과 主로 外國에서 使用되는 重接型 工法이 있다. 重接型 工法은 同 roofing 連續적으로 使用될 때에만 施工되는 것으로써 lap가 充分히 된다는 長點이 있다. felt roofing 의 lap 되는 치수는 普通 100% 程度이며 lap 되는 곳에는 上下層을 通하여 同一個所에 오지않게끔 부칠 必要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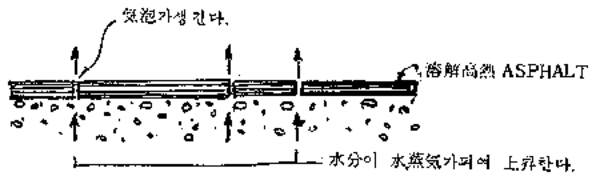


圖-1. PRIMER를 바르지 않을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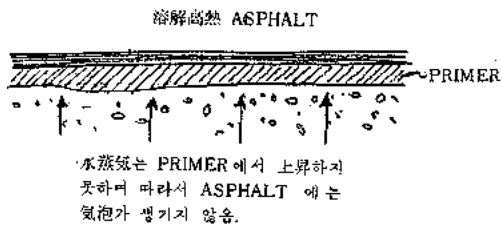


圖-2. PRIMER를 받았을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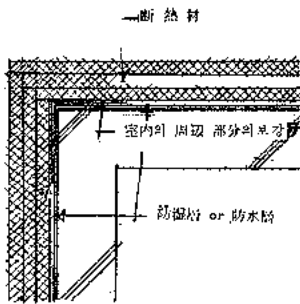


圖-3. 出隅部分 濕層施工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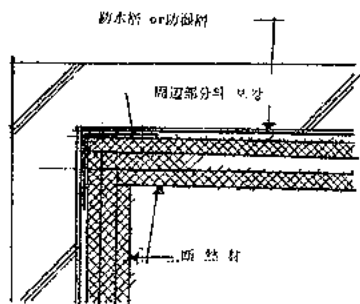


圖-4. 入隅部分 濕層施工例

1-3. 貫通部分 및 角部の 施工上 問題點

低溫貯藏庫에서는 冷却低溫인 까닭에 冷媒流通할 管이 貯藏庫 内部에서 外部에 貫通한다. 이 部分은 slab, wall의 concrete가 貫通구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防濕層에서 제일가는 軟弱部分이 되기 쉽고 營業中の 低溫貯藏庫에서 貫通部의 防濕處理 잘못으로 結露, 서리 등이 발생하는 것을 가끔 본다.

貫通 部分의 防濕에 對하여 網狀 roofing 類의 덧부치기는 貫通 구멍 部分을 單獨防濕되게끔 貫通 sleeve 등으로 處理하는 것이 좋다. (fig 3, 4)

角部에 對하여서는 出角, 入角共히 網狀 roofing 類를 asphalt로 덧붙이고 防濕層 施工後 또한번 바르면 된다.

開口部分 (防熱扉)의 防濕層에 對하여서는 荷物 (保管物)의 出入때마다 開放되는 部分임으로 庫內溫도와 庫外溫도가 틀리기 때문에 대단히 濕度를 가지기 쉽다. 또한 바닥에서의 立上 部分의 防濕層의 施工이 부치는 木棼과 concrete, 붙이는 木棼과 袖棼와의 間이 좀도 힘들고 防濕層의 不連續部分 連續된 防濕層으로 되지 않은 關係로 不連續된 部分부터 濕度가 侵入하여 防濕層 防熱層이 侵犯되어서 漏濕, 漏冷氣의 原因이 된다.

袖棼를 부치기 前에 concrete 取付木棼 部分의 防濕을 施工하고 袖棼取付後에 網狀 roofing 등을 asphalt로 붙이고 防濕層 下部에 濕氣가 滲入하는 것을 防止하게끔 充分히 注意하여서 施工하여야 한다. 바닥과 壁과의 立上 部分에 對한 防濕에 對하여서는 施工順序上 concrete의 joint 個所가 됨으로 下地에 不良 部分이 많이 보인다.

立上 取合部分에 asphalt primer를 바르기 前에 角面을 角丸面 mortar 바르기를 할 必要가 있다.

asphalt primer felt roofing 類의 防濕層 工事は 바닥을 壁體보다 먼저 할때와 壁體를 바닥보다 먼저 할때가 있지만 施工工程 管理上 有利한 點이 많은 關係로 普通은 壁體보다 바닥을 먼저 施工한다. 이때 바닥과 壁體의 取合 部分에서는 後에 바닥의 防濕層을 施工할때에 붙일수 있게끔 充分히 注意할 것이며 그 部分의 一部를 壁體와 同時 施工하여 줄 必要가 있다.

바닥과 壁體와의 取合上 一部分만 施工된 部分에 對하여서는 바닥防濕을 施工할 사이에 壁體施工의 作業員 其他 各種 作業員의 通路가 될 念慮가 있다. 또한 壁體의 防濕層 施工을 하기 위하여 asphalt 바르기 할때의 asphalt의 落下付着等에 依하여 防濕層에 弱點을 만들기 쉬운 關係로 網狀 Roofing 類를 덧붙이고 適當한 養生을 하여야 한다.

1-4. 施工에 있어서 바탕만들기 할때의 注意

防湿層 施工에 있어 그 目的인 湿氣의 庫內滲出을 防止하기 위하여서는 concrete 下地の 良否가 其後の 防湿層 施工의 良否와 大端히 密接한 關係에 있다.

concrete 面의 concrete honeycomb (豆板) 또는 울룩불룩한 面은 撤去하여 mortar 로서 適當한 補修를 할 必要가 있다.

下地 concrete 에 고르기 mortar 가 全面的으로 施工되게끔 設計 示方일때라 할지라도 바닥과 壁體와의 取付部分 壁體와 beam 의 取付部分 beam slab 와의 取付部分 柱와 壁와의 取付部分 柱, 梁, 壁體의 出角 및 入角 部分 등의 個所에는 充分히 注意하여 될수록 丸面으로 取付되도록 mortar 下地를 만들것이 必要하다.

그러나 最近에는 工費, 工期 등의 問題, 마감後 表面에 나타나지 않은 點, 庫內에서 特히 使用上 問題가 없더라는 理由로 concrete 打放 下地示方이 많아졌다.

concrete 打放 下地에서는 型枠의 joint 部分의 段差 柱壁의 型枠取合의 耳板 部分 등에 많은 不良個所가 생긴다.

下地不良個所는 撤去하여 mortar 바르기로서 補正하고 上地 만들기를 한다. 特히 普通 panel 型 枠에 의한 concrete 打放할때 型枠解体 作業直後 빠른 時間 안에 締付鐵物, bolt 類의 撤去와 段差 없애기 mortar 補修 등을 하는 것이 좋다.

1-5. 木造下地の 防湿層 施工과 施工上 問題點

防水層의 下地가 木造일때는 木材의 湿乾狀態에 依한 伸縮이 甚함으로 防湿施工에 對하여서는 格別히 注意를 하여야 한다.

下地에 防湿層을 密着시켜서 붙이면 下地板의 伸縮에 依한 防湿層이 破裂된다. 防湿層의 一般仕樣에 對하여서는 前記 防湿仕方과 變함이 없지만 第一層의 防湿紙 (asphalt roofing, asphalt felt 類)는 asphalt 點 붙이기로 하고 座跌付 못을 박음으로써 防湿紙의 剝離를 防止하면 된다.

또한 이 釘頭는 asphalt 로 刷毛塗를 하고 防湿의 完全을 期하는 것이 重要하다.

二層 以上の 防湿層을 施工함에 있어서는 一層에 다 伸縮性を 주기 위하여 下地에 잘 부착되는 것 (asphalt felt, asphalt roofing 類)를 使用하면 된다.

이때에 第一層이 asphalt 點 붙이기일 때문에, 表面 (下地面)에 asphalt 被覆이 되지 않으므로 felt 類의 老化의 問題도 考慮하여 第一層의 防湿材를 施工할 必要가 있다.

또한 木造下地와 concrete 下地の 取合 部分의 防湿에 對하여서는 lath 붙이기를 하고 網狀 roofing 類로서 덧붙이기 할 必要가 있다.

§ 2. 断熱工事 (防熱工事) 의 施工 및 施工上의 問題點

2-1. 断熱工事의 概念과 断熱材의 種類 및 性質

断熱材의 種類에 따라서 施工方法도 달라지는 同時에 低温貯藏庫의 使用目的에 따라서 断熱材의 種類, 断熱方法이 많이 달라진다. 또한 施工示方 等級에 따라서 달라진다.

断熱工事は 冷却機械 設備에 따라 一定溫度가 된 庫內를 断熱材로써 庫外와 断熱함으로써 庫內溫度를 長期間 保持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庫內溫度의 變化는 庫內에서 庫外에 熱이 달아나는 것과 庫外에서 庫內에의 熱傳導에 依한 것이 있다.

庫內에서 庫外로 빠지는 熱은 断熱材로서 防止하고 庫外로부터 庫內에의 熱傳導에 依한 溫度 變化는 溫度 變化時에 大氣中の 溫度를 가지고 그 溫度 變化를 일으키는 것이 普通으로 되어있으며 이것에 對하여 防湿層과 断熱層이 이것을 防止하고 있다.

低温貯藏庫의 良否는 그 断熱材料의 品質과 防湿層에 使用되는 材料의 良否에 따르며 同時에 材料에 適合한 施工方法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断熱工事に 使用되는 断熱材에 對하여서는 rock wool, glass-wool stylo 樹脂發泡材 炭化 cork 塩化 vinyl 樹脂發泡材 ulhtan 樹脂發泡材 poryetllen 樹脂發泡材 硫化 고무 發泡材 alumi 箔等 그 種類도 많고 各各 性質도 다르다.

防湿層 材料에 對하여서는

- 1) asphalt (asphalt compound blown asphalt strait asphalt)
- 2) asphalt 의 混合材 (asphalt caking asphalt 乳劑 asphalt primer 等)
- 3) tar 製品 (tar felt)
- 4) roofing (網狀 roofing, vinyzol mesh, silver-mesh, permanent roofing flash-roofing, hesian sheeting, hemp sheeting, glass 網狀 roofing 等)
- 5) 鈹物性 roofing (alhanple roofing, meta sheet, superalsoid, assoid roofing, alcan roofing, golden roofing, silver roofing, p.m roofing, 金網入 roofing, 石綿 gilsoid roofing, 石綿 roofing 等)
- 6) asphalt felt (asphalt felt, vinyhamp felt dual roof sheet silver, felt, 石綿 asphalt felt, poras, felt)
- 7) asphalt roofing (asphalt roofing wild roofing, gilsoid roofing, nocal roofing, vinyloid roofing, ninyhamp roofing, ronthing roofing 等)

等 各 各 製造法과 性質이 不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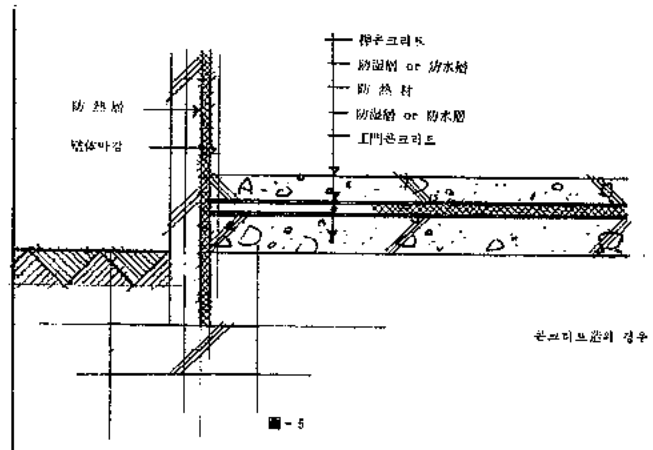
이와같이 材料는 多種임으로 施工에 있어서는 工事目的에 알맞는 施工計劃의 檢討가 必要하게 된다. 施工計劃의 檢討에 있어 使用되는 斷熱材 防濕材의 各種 性質을 下記 項目에 따라서 充分한 調查와 檢討를 하여야 한다.

- (a) 機械的 性質 - 壓縮強度, 引張強度, 曲強度, 剪斷強度, 壓縮에 의한 彈性率, 曲에 의한 彈性率 剪斷에 의한 彈性率, 天井 壁, 床等에 대하여 構造上 充分한 強度를 가지고 있는가의 與否.
- (b) 熱的性質 - 熱 伝導率, 耐熱性(融解開始溫度, 加熱變形 溫度) 線膨脹係數, 比熱等에 대하여서는 接着劑의 使用溫度 施工途上의 發熱에 의한 變化.
- (c) 耐水性質 - 吸水率 水蒸氣透過率 施工途上의 養生에 대하여.
- (d) 光安定性質 - 長時間 太陽光線에 비쳐 있으면 表面 構造에 變化는 없는가.
- (e) 耐藥品性質 - 耐 알카리, 施工時 使用하는 接着劑의 有機 溶劑等에 대하여 侵害를 받는가의 與否.
- (f) 難燃 性質 - 施工 時發生하는 熔接 作業의 spark 電氣 工事中的 short 等의 原因으로 發生하는 火氣에 對 하여서의 施工 上의 養生等.
- (g) 耐油性質 - 鉱物性油類 動物性 油類 植物性 油類 施工 途中의 諸油類 庫內貯藏品 부터 나오는 油類等에 對하여 侵害를 받는가의 有無.
- (h) 耐寒性質 - 長時間 추운데 두어두면 表面構造에 變化가 있는가 없는가의 有無.
- (i) 耐久性質 - 腐朽菌, 長時日에 걸쳐 上記性質에 變化가 없는가 있는가.
- (j) 工作性質 - 施工時의 工作性 및 concrete, mortar 木材等의 附着方法에 對하여 容易한가 어렵든가.

以上에 對하여 充分히 檢討하고 貯藏庫의 構造를 考慮하여 施工할 것.

2-2. 基礎周圍의 斷熱工事의 問題點

木造일때 土間 바닥부터의 熱損失은 面積이 아니고 周長에 比例한다. 周長 $l(m)$ 放散熱量 $h(kcal/h)$ 라고하면 $h=kl(q-q_0)$ 가 된다. 따라서 fig-5 와 같이 基礎周圍에 斷熱할 必要가 생긴다.



또한 鐵骨造일때에도 大略 같은 斷熱이 생각된다. 基礎斷熱의 垂直 깊이에 對하여서는 室內 保持溫도와 바닥 材熱化의 防濕處理 等에 따라서 틀려진다. 最近 床下地盤을 砂, 砂利 火山砂利 碎石等을 積層으로 만들어 下層部分에 asphalt 乳劑를 散布하여 防濕의 役割을 하게 한 斷熱 工法도 採用되고 있다.

下層部의 asphalt 乳劑散布는 下部부터의 濕氣滲出을 防止하기 爲하여 施工되는 것이다.

또한 濕氣 滲出을 防止하는 層을 만들때에는 充分히 使用 碎石의 粒徑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使用碎石은 60%~10%를 두께 約 100% 程度 잘아두고 軋壓을 하여 asphalt 乳劑를 m^2 당 約 1.5l 程度 散布하여 그 上層에 碎石 5%~2% 程度를 두께 6%~8% 程度 잘아두고 水平 調整을 한後 asphalt 乳劑를 m^2 당 約 1.5l 程度 散布하면 된다.

最近에는 低溫貯藏庫도 大型化되어 木造 鐵骨造는 적고 鉄筋콘크리트造의 多層建物이 많아졌다. 따라서 基礎周圍 防熱에서도 接地에 依한 熱損失을 防止하기 爲하여 基礎部分과 1層바닥 部分에 相當量의 空氣層을 設置하고 防濕과 防熱을 一般바닥 壁體와 같은 方法으로 熱損失을 防止한 構造가 많아졌으며 至今까지 가장 그 對策에 腐心한 바닥 凍損問題를 解決 하였다.

2-3. 바닥面의 斷熱工事와 問題點

바닥面의 斷熱工事に 對하여서는 바닥面을 直接地盤上에 接地하는 工法 地盤과 바닥面에 空間層을 設置하는 工法 各層을 保冷 溫度의 差異에 따라 区分하는 斷熱等 그 構造와 使用目的에 따라서 달라진다.

바닥의 斷熱工事等에 使用하는 斷熱材料는 積載貨物에 依한 壓縮強度에 充分히 耐應하여야 한다. 普通 바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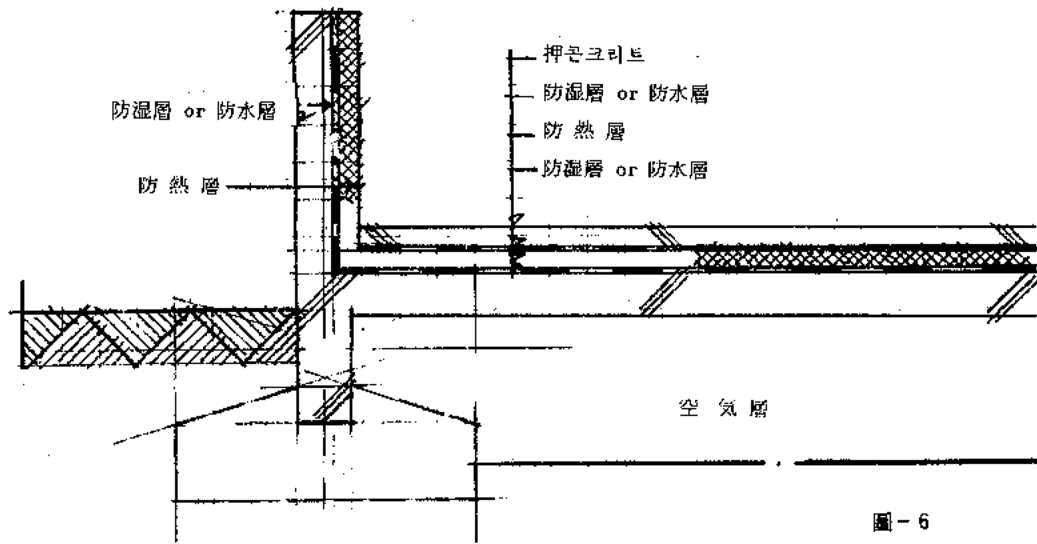


圖-6 콘크리트造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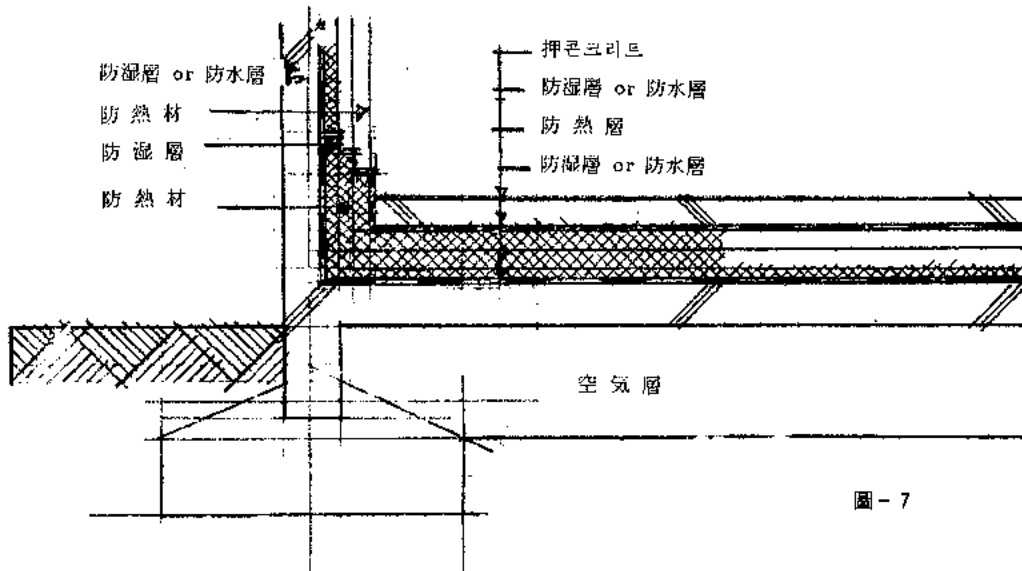


圖-7 콘크리트造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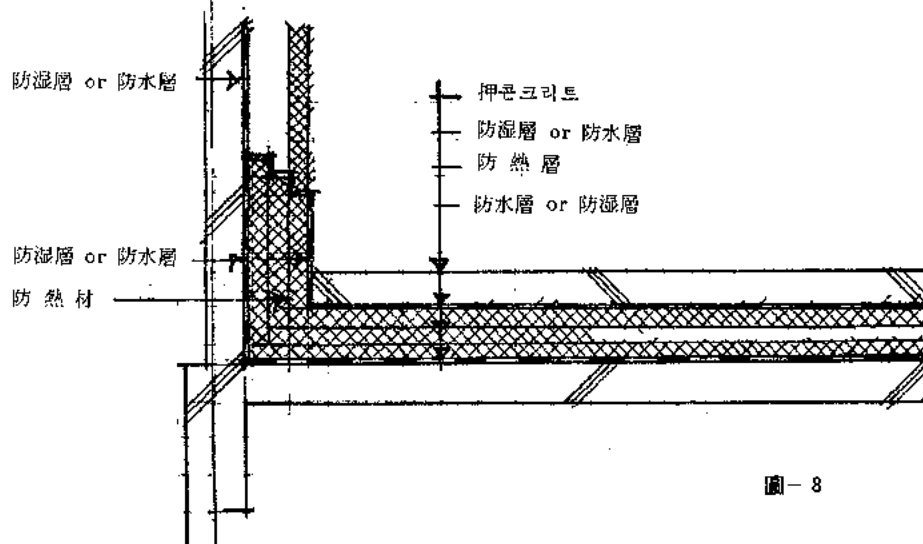


圖-8 콘크리트造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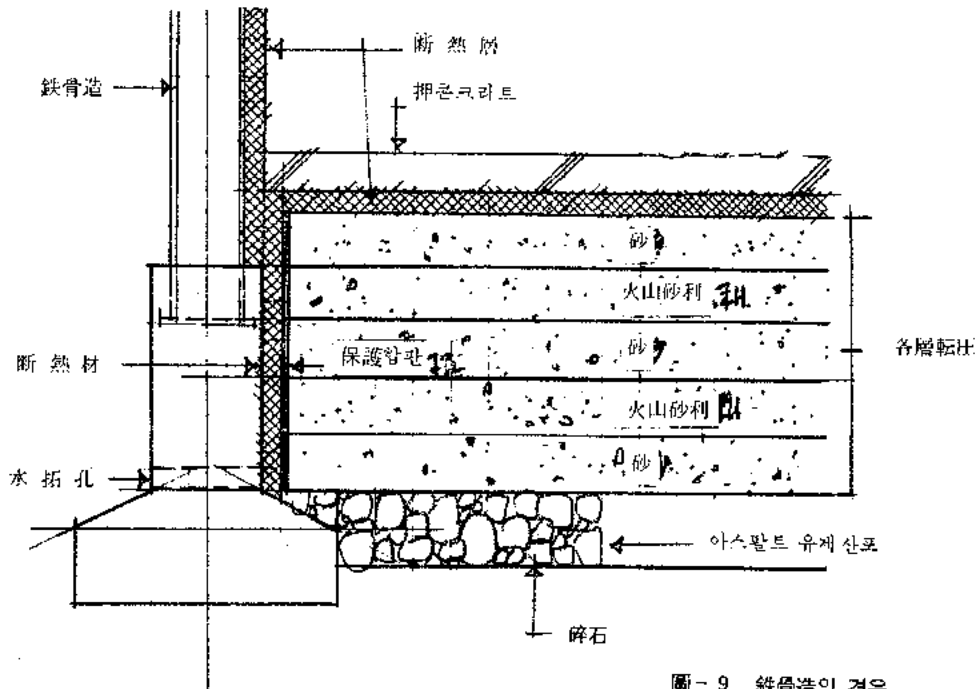


圖-9. 鉄骨造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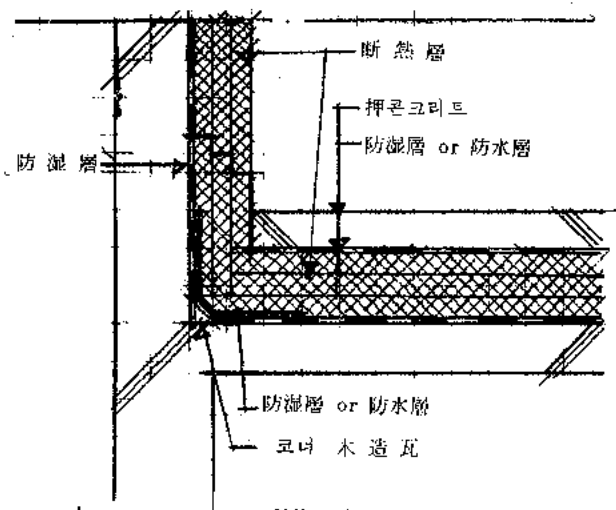


圖-10. 壁+바닥 部分施工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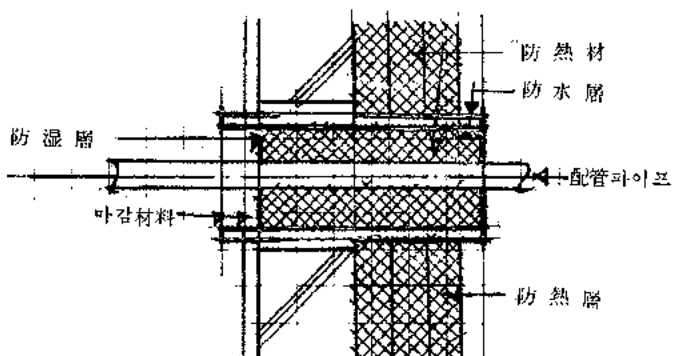


圖-11. S.H. 防湿層施工例

使用되는 断熱材는 “스티롤” 樹脂發泡材 炭化콜크, 塩化콜크 發泡材 等を 使用하고 있다.

各 断熱材마다 共通되는 規格寸法은 大略 605×605㎜ ~605×910㎜ 두께 50㎜와 75㎜로 되어있다.

바닥 断熱層의 두께를 決定하는 것은 工事費 庫内品の 品質 管理上 重要한 것이지만 計算 또는 經驗上 理想的인 断熱材가 決定되고 適正한 設計示方이 되어 있어도 施工 方法이 不良하면 断熱 工事は 理想的인 것이 못된다.

두께는 熱損失과 断熱材의 熱的 性質에 따라 決定되지만 50㎜와 75㎜ 두께의 断熱材를 所定示方 두께로 積層으로 組立하여 施工한다. 이때 下部断熱材와 上層 断熱材의 joint가 同一個所에 오지 않게끔 施工 하여야 한다.

joint 部分에서는 完全히 施工이 되어도 多少의 空間이 되기 쉬운곳이므로 이것에 依한 熱損失을 防止하게끔 한다.

空間部分에는 使用 断熱材의 粉粒을 充填하든가 콜크粒을 말로 부드럽게 하여 充填하면 좋다. 그러나 空間에의 充填이 困難하며 上部防火層을 施工할때 흐려 내리는 asphalt가 表面 氣泡과 同時에 流出되고 felt, roofing 類의 防水層에 凹凸 또는 空際 部分을 만들기 쉽고 保護 mortar 施工時 또는 押 concrete 打設時에 防水層의 破損原因이 될 수 있다.

또한 流化고무 發泡材, 스티롤 樹脂發泡材等を 바닥防熱에 使用하여 붙이기 用接着劑에 asphalt等 熱熔融 接着劑를 使用할 때에는 被接着物 및 断熱材를 녹히지 않은 溫度로 부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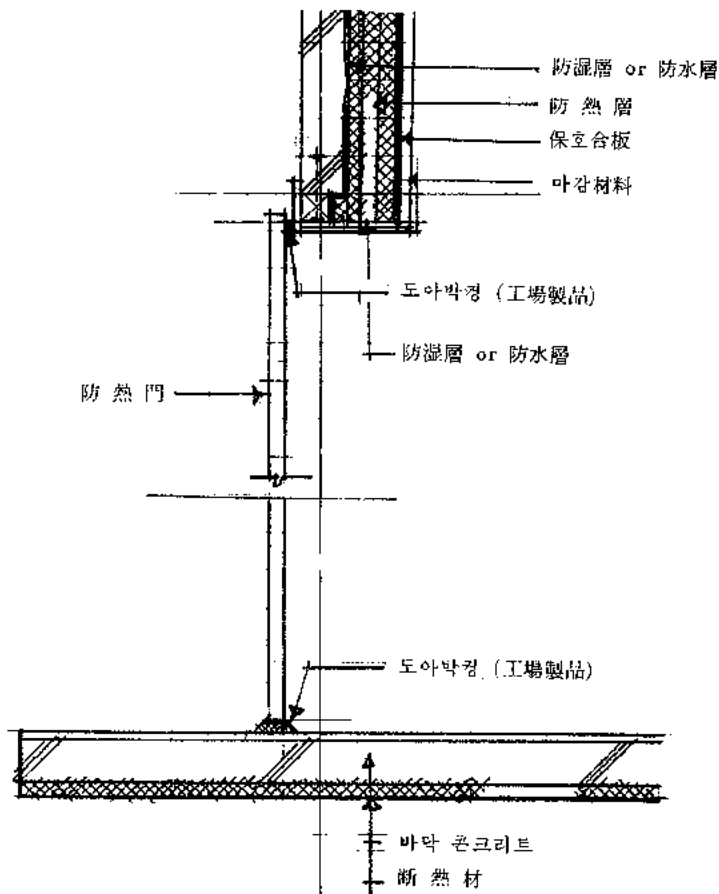


圖-12.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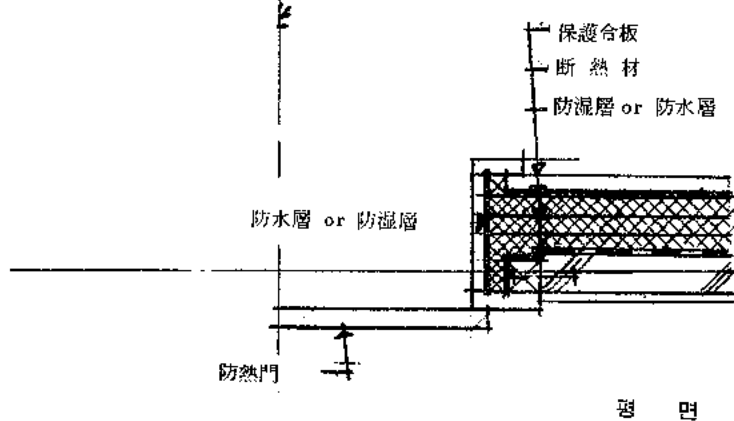


圖-13. 開口部 施工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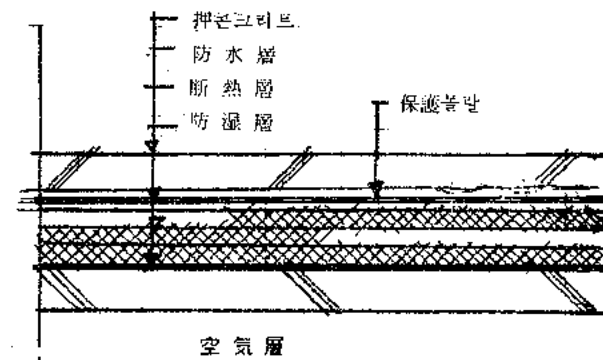


圖-14. 床斷熱施工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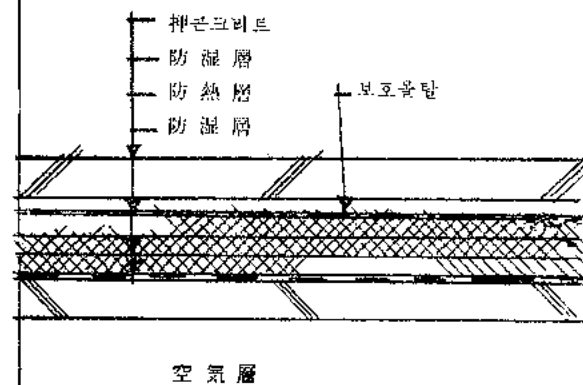


圖-15. 床斷熱施工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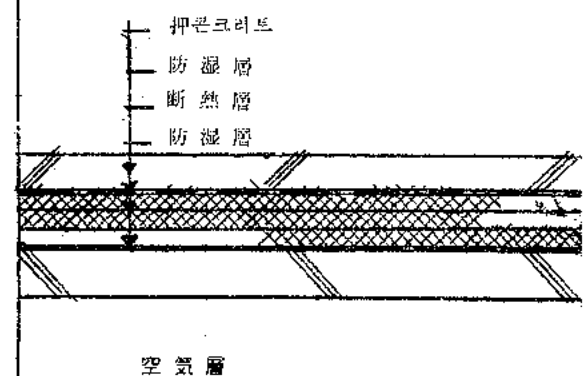


圖-16. 床斷熱施工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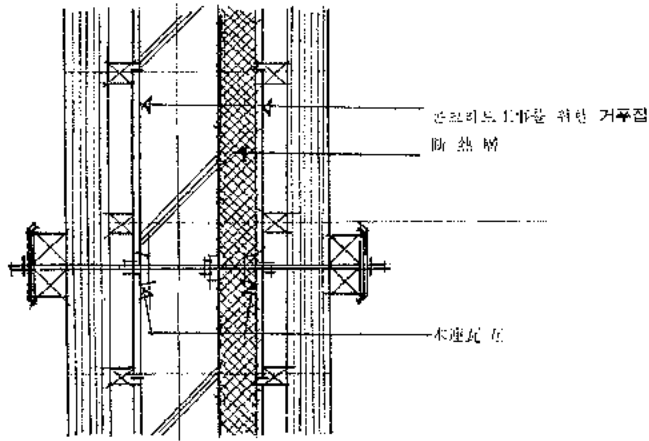


圖 - 17. 先工法 壁體斷熱施工例

接着劑의 種類 溫度 및 被接着物의 種類에 따라 塗布 붙이기 方法은 適當한 것을 選擇하는 것이 重要하다. 熱損失個所가 部分的으로 많아지는 壁體와의 取合個所든가 斷熱材 各各의 joint 等에 있어서의 施工上의 不完全은 熱損失만이 아니고 斷熱材에의 吸濕을 빠르게 하고 斷熱效率를 惡化시키고 또한 바닥 凍上의 一要因이 될 念慮가 있다.

2-4. 壁面의 斷熱工事와 問題點

建物の 構造體가 되는 concrete 壁 및 室内에 面하는 기둥·보 部分의 斷熱工事에 對하여서는 使用 目的에 따라 스티폴 樹脂打出發泡材든가 塩化비닐 樹脂發泡材 모리에치렌 樹脂發泡材 等의 吸水性이 적은 斷熱材를 使用하여 溫度差가 적은 低溫貯藏庫에서는 斷熱先工法이 採用되고 있다.

이 工法은 構造體가 되는 concrete 打設時 거푸집 內側에 斷熱材를 붙이고 concrete 打設을 하고 斷熱材와 concrete를 接着하는 方法이며 斷熱材에 取付 鉄物를 同時取付하여 接着하는 方法과 斷熱自体의 concrete 付着力에 依하여 接着하는 方法이 있다.

壁體斷熱先工法 에서의 거푸집 取付方法도 Fig-9 와 같은 取付方法外에 여러가지 方法이 있다.

斷熱先 工法에 對하여서는 거푸집의 外側을 建入時와 鉄筋組立時의 斷熱層의 破損과 打込時의 cement past 의 斷熱層의 거푸집에의 流入을 充分히 注意함과 同時에 slab, girder, beam 의 取合個所를 芋目地가 되지 않게끔 施工計劃을 세울 것. 거푸집 解体時 거푸집과 같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室内 마감材등과 荷揭材等의 事後取付 工法을 充分히 檢討하여 들 必要가 있다.

또한 外壁面에 防水層을 必要로할 때 壁體立上 部分에 熱溶解接着劑(asphalt) 類의 塗布時에 立上鉄筋 concrete 의 打設 joint 部分을 더럽히고 建物構造上 欠點을 만들 念慮가 있기 때문에 先 工法은 될수록 그 안두고 後工法으로 施工計劃을 세운다.

後工法에 對하여서는 使用되는 斷熱材에 따라 concret 壁體에 붙이는 方法도 달라진다. 岩綿, 硝子綿等은 工事費가 低廉하고 斷熱效果도 充分하지만 施工後 取合上部가 沈降하여 上部에 空隙이 생긴다. 또 吸水性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吸濕한 念慮가 있는 個所에는 吸水性이 적은 것을 使用하게끔 한다.

붙이는 方法에 對하여서는 機木을 concrete 壁體에 붙이고 그 機木을 利用하여 荷摺, 또는 内部 마감材 (合板等) 붙이기 바탕으로 할때와 insulation bolt를 使用하여 機木을 使用하지 않고 insulation bolt에 依한 斷熱層의 上部에 木機木을 붙이는 方法이 있다.

斷熱材의 機械的性質(壓縮強度等)에 依하여 斷熱層에 直接 庫內의 荷摺 其他 힘에 견디기 힘든 斷熱材(岩綿, 硝子綿等)에서는 獨立自立의 木軸組를 만들어서 荷摺로 하는 示方이 있다. 그 示方에 따라서 斷熱材의 取付方法도 多少 달라진다.

斷熱層은 熱損失을 防止하는 目的임으로 壁體斷熱일때 제일 弱點으로되기 쉬운 바닥과 壁體와의 取合部分 壁體와 天井의 取合 corner 部分 壁體와 壁體와의 取合部分의 出角, 入角部分은 充分히 目的을 達成하고 欠點이 나지 않은 斷熱層으로 하기 위하여 取合을 交互로 부치고 Joint가 一直線이 되지 않게끔 施工한다.

또 取付用 bolt 機木의 取付個所等도 防濕斷熱共히 弱點이 되기 쉬운 곳으로써 洩수량 數를 적게하게끔 計劃할 必要가 있다.

또 最近 施工되고 있는 curtain wall 斷熱工法에 對하여서는 外壁이되는 氣泡 concretes 取付鉄物의 取付位置等에 弱點이 있음으로 이部分만의 斷熱을 別途로 생각하고 우레단樹脂의 現場發泡로 하면 좋다.

壁體斷熱의 工法에 對하여서는 木造下地, concrete 下地 氣泡 concrete 下地, concrete block 下地等 使用하는 斷熱材는 製造業者의 示方에 따라서 다르지만 割付加工圖面을 作成하고 부치기줄눈等에 對하여서는 亂줄눈이 되게끔 施工할 것.

接着劑를 使用할때는 接着劑의 性質 品質을 檢討하고 冷却後의 化學變化든가 溫度差等에 依한 變化가 없고 持續性이 있는 것을 使用하는 것이 좋다.

2-5. 반자斷熱工事와 問題點

반자斷熱工事에 使用되는 斷熱材에 對하여서는 壁體, 바닥에 使用되는 斷熱材와 大概 같은것이 使用되고 있다.

斷熱工法으로서의 壁體와 같으며 斷熱先工法과 後工法이 있으며 兩者 모두 一長一短이 있다.

또 最近에는 外部壁體를 連續壁으로하는 斷熱工法을하고 있으며 貯藏庫의 各層庫內溫度를 同一保持溫度로하는 傾向이 많고 特別히 반자 斷熱을 必要치 않은 低溫貯藏庫도 各地에서 施工되고 있다.

先工法은 거푸집代身 마감과 断熱工事を 먼저 施工하고 그 上部에 鉄筋을 配筋하여 concret 打設을 한다. 断熱層 그 自体를 거푸집 代用으로 할수도 있다.

concrete 에 附着하는 方法은 事前에 마감과 断熱層을 支持할 수 있는 強度를 가진 bolt 鉄線 銅線等을 断熱層부터 突出시키고 突出部分이 concrete 에 打設되게끔한다. 이때 断熱工事完了後의 簡易防水工事와 鉄筋配筋工事 concrete 打設工事等에 依하여 作業員이 밟고 다닌다는가, concrete 打設時에 所定個所의 bolt, 鉄線, 銅線이 없어지든가. 施工上不注意로 그대로 concrete 打設을 하고 工事完了後 마감材 断熱材의 自重에 依하여 落下한例도 있다. 따라서 先工法일때에는 吊 bolt 吊鉄筋, 吊銅線等에 充分한 注意가 必要하다.

또 野天에서 施工하기 때문에 그使用하는 断熱材에 對하여서는 耐水性質(吸水率, 水蒸氣透過率)와 長時間光線을 받고있을때의 光安定性質, 耐候性質等을 充分히 檢討調査하고 使用断熱材를 決定하는것이 重要하다.

(先工法の 長点)

- 1) 断熱用木機材를 必要로하지 않는다.
- 2) 作業이 簡易하다.
- 3) 断熱層의 施工上的 確認이 容易하다.
- 4) 거푸집工事와 마감工事が 同時에 施工된다.

(先工法の 短点)

- 1) 使用断熱材가 concrete 打設時의 圧縮또는 外力에 견디어야 한다.
- 2) 天候에 左右되고 強風時降雨時에는 作業이 되지 않는다.
- 3) 吊 bolt 等の 周圍의 防濕이 問題가 된다.
- 4) 先工法部分과 後工法部分과의 取合個所의 断熱工事 防濕工事が 困難하고 事後確認이 힘들다.

後工法에 對하여서는 바탕이 安全하게되어 있는後 施工함으로 普通壁體断熱工事施工에 平行하여서 行한다. 그 工法과 施工上的 問題點이 되는 個所도 壁断面工事와 대체로 同一하다.

그러나 接着劑에 熱熔融接着劑 (asphalt 類)를 使用할때 上向作業이 됨으로 作業能率이 不良하고 부칠때 時間이 걸린다. 그 때문에 asphalt 의 熔融溫度가 낮게(低)되며 場所에 따라서는 熔融高溫의 낮은(低) asphalt 를 使用하고 부침으로 部分的으로 asphalt 가 두껍게 附着하고 断熱材와 다음層의 断熱材와의 空隙이 생길때가 있다. 施工에 있어서는 断熱層에 이와같은 弱點을 만들지않게 注意하여야 한다.

반자断熱에서 弱點이 되기쉬운 機械設備 冷風 duct 用의 吊 bolt 位置에 對하여서는 bolt 周圍에 空隙이 없게끔 断熱材를 부칠것이며 또 機械設備冷風 DUCT用 吊

bolt 에는 防濕層 施工前에 正確히 取付하고 防濕層또는 断熱層工事完了後에 位置를 똑바로 할 必要가 없으며 bolt 周圍의 弱點等이 적게된다.

2-6. 屋上断熱(最上層반자)工事와 問題點

低溫貯藏庫建築物에서 熱貫流量이 가장 많은것은 지붕이다. 지붕(屋上)에 断熱層을 만들고 熱貫流量을 減少시키면 庫内の 低溫保持의 效果를 높일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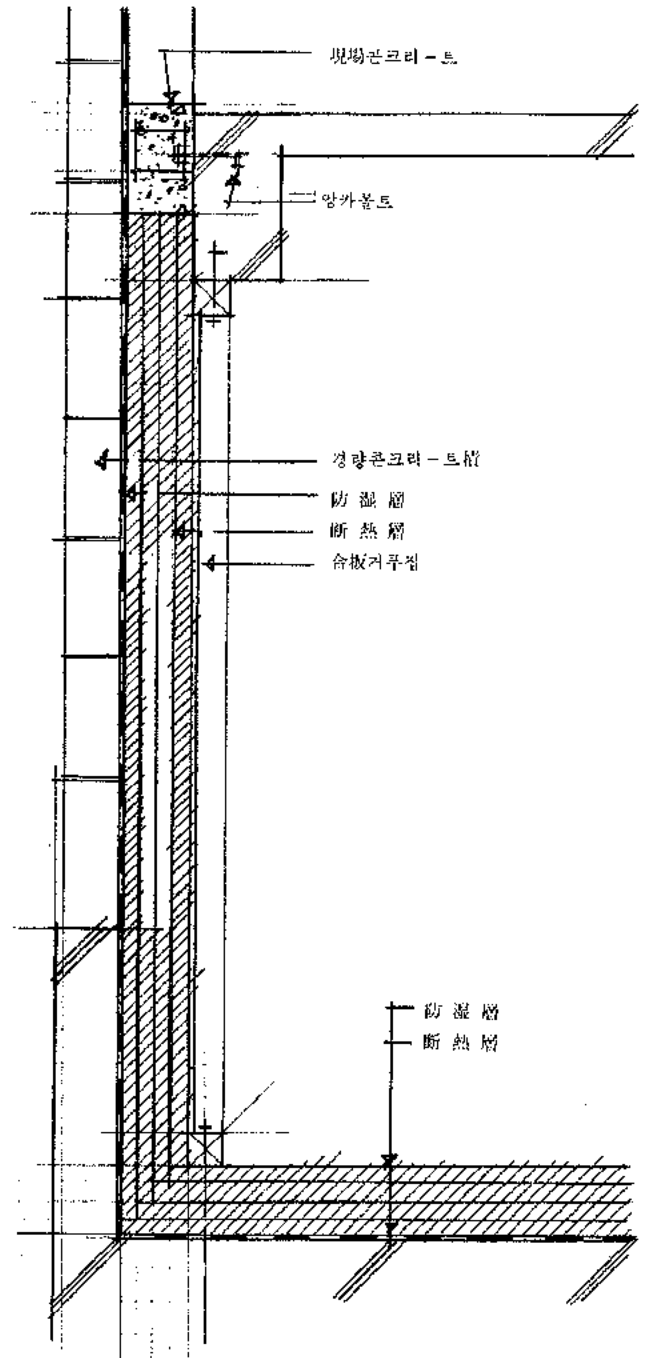


圖 - 18. 壁體断熱施工例

屋上断熱에도 반자断熱과 同一하게 先工法과 後工法이 있다. 또 構造体 slab 의 下側에 断熱層을 施工 할때와 slab 上에 断熱層을 施工할때가 있다. 従来の 断熱法은 構造体 slab 의 下部에 施工하는것이 普通이며 slab 上에 断熱層을 設置하는 傾向은 最近에와서 盛行하게 되었다.

従来の 断熱工法에 對하여서는 最上戸天井(屋上) 일때 先工法이 經濟的으로도 工期面에서도 또한 施工精度面에

서도 後工法에 比하여 優秀하며 後工法断熱과의 取合部分만에 注意하면 有利하다.

屋上断熱工事は 普通天井 断熱工사와 大略 같은 施工法이며 使用되는 断熱材 또는 施工上の 問題點에 對하여서도 大體로 같다.

低温貯藏庫의 建築構造도 従来の 普通 rhamen 構造(梁構造) 부터 最近에는 flat slab 構造로 變化하였다. 특히 屋上 断熱 先工法일때에는 普通 rhamen 構造보다 flat slab 構造쪽이 slab 와 girder 의 取合箇所 등의 熱工事上 弱點이 되기 쉬운 部分이 적어짐으로 有利하다.

屋上断熱先工法일때 施工範圍가 全面이 되기 때문에 野天에서 作業하는 期間이 길고 이點에 對하여서 施工時期가 天候狀況에 充分한 注意를 하고 時期는 될수록 避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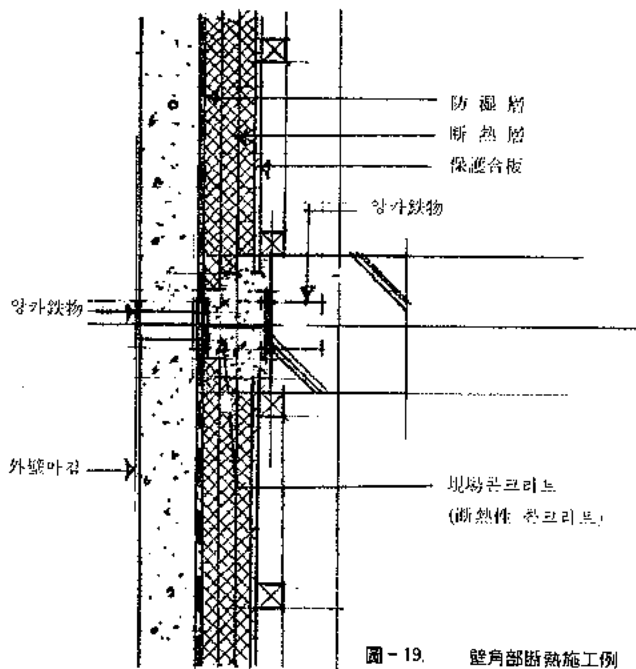


圖 - 19. 壁角部断熱施工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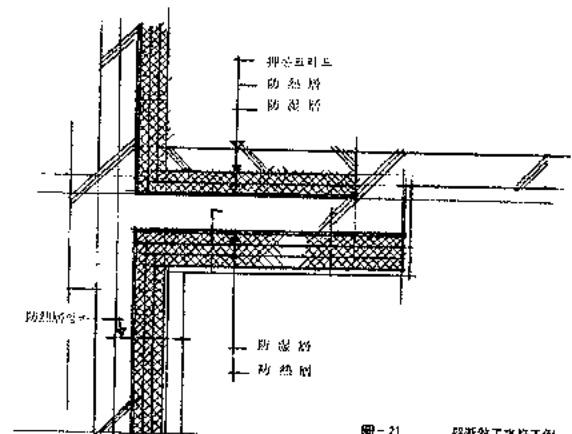


圖 - 21. 壁断熱工事施工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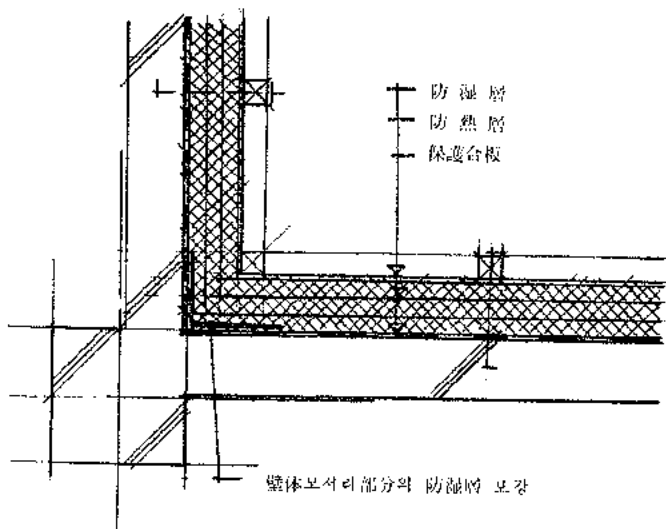


圖 - 20. 壁角部断熱施工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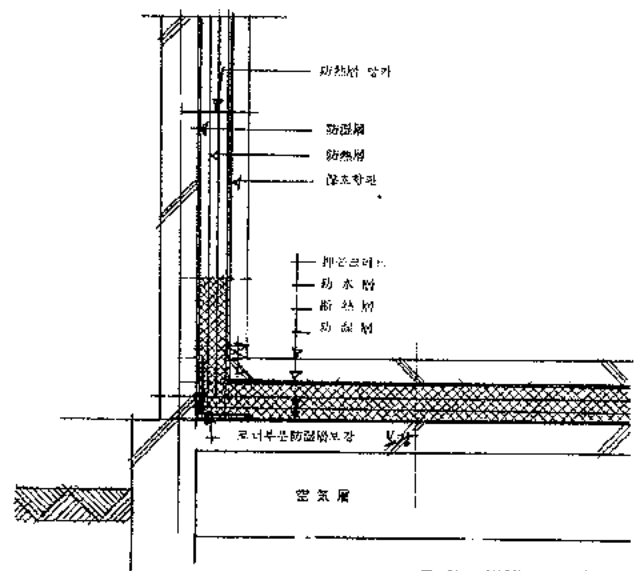


圖 - 22. 壁断熱工事施工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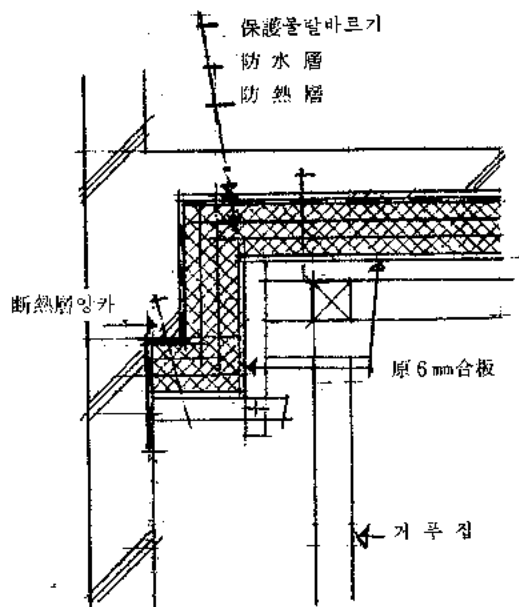


圖 - 23. 先工法斷熱施工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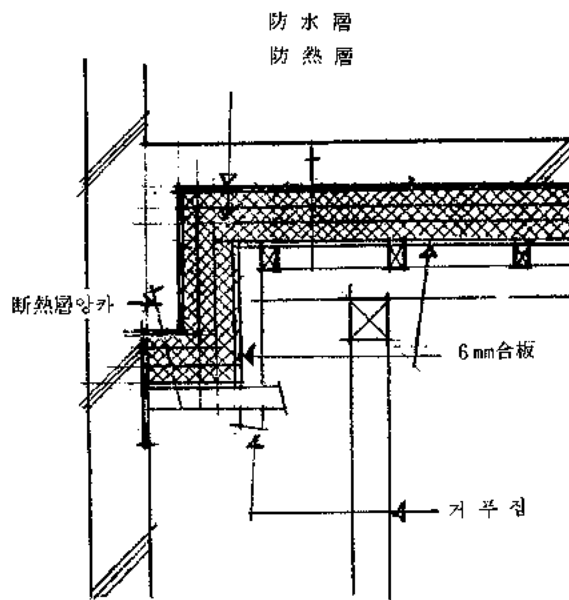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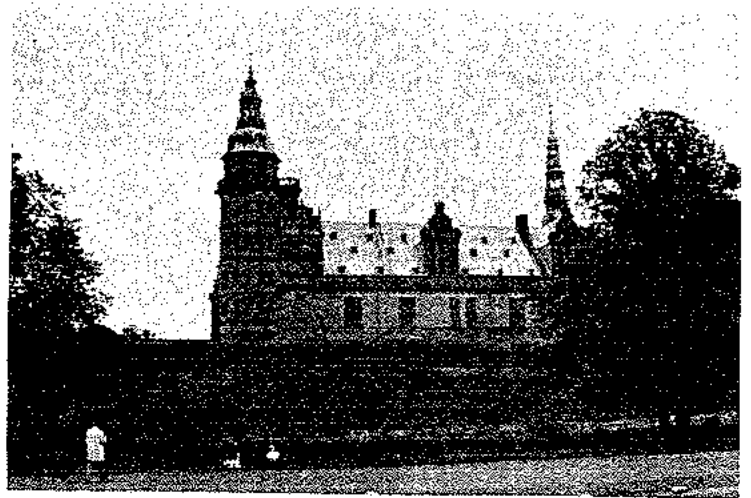
圖 - 24. 先工法斷熱施工例

使用斷熱材든가 簡易防水戶에 使用되는 資材에 對하여
서도 그날 그날의 使用量을 現場에 出庫시키며 施工範圍
를 擴大하지 않고 1日 防水 戶作業量의 範圍內에 工事
区分을 할것이 重要하다.

기행문 (4)

덴마크 · 독일 · 이태리

羅 永 均 東新建築 羅永均綜合設計事務所



덴마크의 함겔궁전
북조트라스의 장스판 처리가 일품이다.

9月18日

Denmark의 Copenhagen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면 대개 역사의 흐름속에서 地緣과 民族의 얼김을 살피면서 文化의 유사점이나 藝術, 音樂等の 共通性을 兪見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유럽을 여행하는 우리에게 마치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방문하고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사람 중국사람을 잘 구별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눈에는 유럽의 여러나라가 비슷하고 공통하는 유사한 습관으로 구별하기 힘든 것이 외형적인 관찰의 결과인것 같다.

코펜하겐 국제 공항에 닿았다. 이곳 역시 입국 수속이 란 간단하게 끝내고 들어서게 되니.

덴마크는 낙농의 나라요, 동화의 나라요 바이킹의 나라요 성 개방의 나라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저에게는 섬과 섬이 연결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코펜하겐에 첫발을 디더 무지무지하게 넓어 보이는 비행장과 비행장 끝에는 벼들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항구와 비행장이 나란히 위치한 것을 알고 벤스의 택시를 타고 Botanigue Hotel에 도착해서는 덴마크는 낙농의 나라라는 말

보다 중공업의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곳 역시 호텔사정이 나빠 방이 없다고 하여 3인이 한방을 쓰기로 해서 이동용 침대를 하나씩 더 깔다놓고수선을 피워가며 욕실도 없는 방, 좁은방, 넓은방 등으로 또 한번 엉망인 숙소를 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곳 역시 비는 계속오고 있다.

덴마크는 국민소득과 사회복지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대열에 끼는 유복한 나라이다. 유럽 대륙의 북단인 유트란드 반도와 약 500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구는 약 4천3백만으로 우리나라 크기와 비슷하다.

그들의 조상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고 또 바다 위의 섬을 다스리면서 해양국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으며 북 게르만족으로 구성된 태인(Dane) 사람이라고 불리우며 용맹하고 전투적이어서 바다를 정복하는 동안 한때 '바이킹'으로 사해를 누리기도 했었고 즉 9세기경 '고르프 레드' 왕에 의하여 통일을 이룬후 덴인인으로 된 '바이킹'은 뱃길을 따라 바다로 진출하여 영국, 스페인, 프랑스로 진출하고 11세기에는 독일의 일부와 영국, 노웨이를 정



북하여 국위를 떨치기도 했다.

그후 비대하여지는 중유럽에 밀리고 독일에 밀리면서 국위가 떨어지다가 19세기로 프랑스편에서 나폴레옹전쟁에 휘말리어 패전한 후 늘웨이를 잃고 1864년에는 프러시아와 싸우다가 「실레스비히 · 홀슈타인」을 잃어버려 국위는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때부터 덴마크는 外戰에서 눈을 돌려 內政充實에 集中하였다고 한다.

중앙역에서 멀지않은 곳에 있는 크리스찬 보르크城(Christians Borg Slot)을 찾았다. 길은 모두 10세기에 만든 돌로 깔아놓은 상태 그대로이며 (수년전까지 남대문에서 영천교까지 깔려있는 물도로와 같음) 2~3층의 파회 크지않은 궁성이 오가는 市民들 속에 자리잡은 모습이 임금님이 사는 궁같은 엄격함이 없고 좀 잘사는 동례에 그럴듯한 집앞에 온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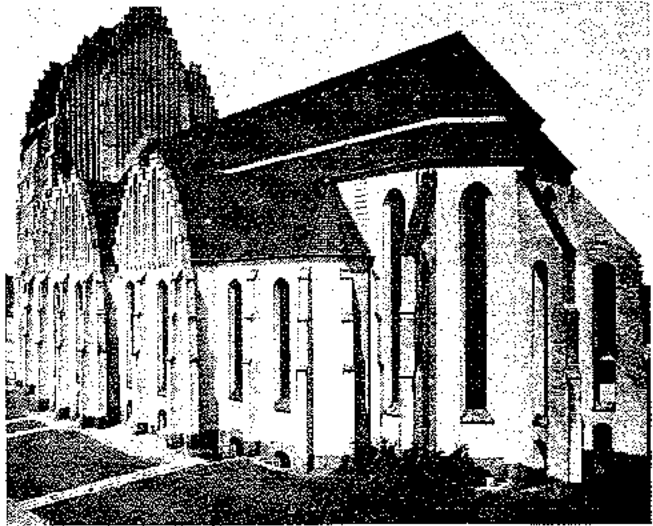
이곳에 왕은 이처럼 시민들과 동위치에 있기에 더 존경을 받는다하니 인간의 심리란 참 묘한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성은 코펜하겐의 창시자인 아브살론 매승정이 쌓은 성터에 세워진 궁으로 중세기풍의 바로크양식으로 지어졌다.

현재 이곳에는 국회의사당과 외무부의 공식 리셉션룸이 있고 건물의 일부는 왕실기마병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바로 운하 건너에 보이는것이 국립박물관 건물이고 여기서 파히 멀지않은 프레데릭스 교회와 아말리엔 보르크城(Amalienbolrg Slot)을 구경 하였다.

프레데릭스 교회와 마주서 있는 8각형의 로코코양식의 건물로써 1794년 이래 크리스찬 보르크성을 대신하여 현



프레데릭 교회

재 국왕이 살고 있는 城이다.

본성의 북쪽에 있는 고성엔 옛날 알렉산디르여왕이 거처하던 곳이며 남쪽에 이오니아식 주랑으로 잇대어져 있는 건물이 외국귀빈이 체재하는 곳이라고 한다.

8각형의 안뜰 중앙에는 덴마크의 명군인 프레데릭 5세 기마상이 서있다.

동상도 국민속에 섞여있어서 더욱 친밀감이 느껴지는 듯하다. 성의 안뜰은 돌 모자이크로 깔려있으며 출입이 자유롭고 차도타고 들어올수 있어 궁전의 개방하는 관리상태가 인상적이다.

저녁을 먹고나서 호텔 근처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의 명물에 하나라고 하는 티보리(Tivoli)유원지를 찾았다.

市内 中央에 市民의 休養을 爲하여 만들어진 놀이터로 어린이와 성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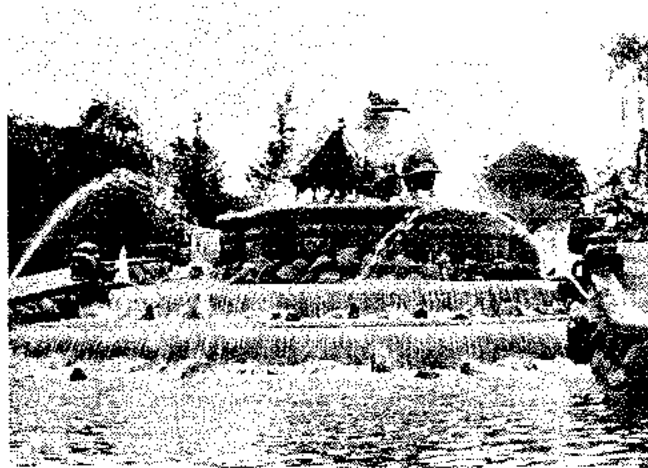
즉 낮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각종 오락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어린이 王國을 이루고 일몰이후에는 어른들의 공원이요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로서 야외음악장, 무도회장 각종 경기장이 있어 새벽 2시까지 성시를 이루고 있다. 생을 즐기고 피로를 풀며 무료함을 달래주는 인생 낙원인것 처럼 보인다.

티보리 공원의 광분에 속할 흥분도 주로 외국인과 관광객을 상대하는 유년들의 어울림이라기 보다 코펜하겐 시민들의 건강한 명랑함이 강하게 풍긴다.

큰소리로 노래하며 떠돌고 춤추고 돌아가는 모습에서 인생의 보람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구김살 없는 맑은 모습에서 나에게도 성에 관한 개념과 탁한일면이 씻겨지는듯 명랑해진다.

9月19日

市中心地인 中央線을 지나 가스텔레트성의 동북쪽으로 차는 가다가 뚝뚝에 아름답고 험한 분수가 우거진 가로



코펜하겐 “넵툰분수”

수와 잘 조화된 그림이 있다.

이곳이 바로 덴마크의 정신이 잘 나타나져 있는 게피온 (Statue Gefion)의 분수인 것이다. 아름답게 뿜어나는 분수의 중앙에 힘차게 돌진하는 4마리의 황소를 모는 늙은 여인의 동상이 서 있다.

사나운 말을 모는 여신 게피온의 조각상이다.

여신은 이 땅에 저 황소를 물고와서 농업국의 터전을 만들었고 그 후손은 게피온의 여신의 이름을 잘 이어 받아 세계의 낙농 대국을 건설하였다는 정신적 교향인 것이다.

언덕을 올라오니 각국의 화물선이 닿아있는 부두, 바다 냄새가 확 끼치는 속에 청동색·인어 동상이 보인다.

바다로 나간 왕자를 기다려 줄은 사연을 앓은채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안멜센」의 동화 주인공 인어아가씨가 파히 크지도 않은 압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바로 유명한 인어아가씨의 상(Den Lille Havfrue)이다. 「에르하르트 에릭센」은 이것을 남겨 덴마크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인간세계에서 예술의 가치는 무한한 것인가이다.

차는 다시 市内를 빠져 市外를 접어 들어서니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시야에 들어온다.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 한없이 뻗은 푸른 초원과 군데군데 모여있는 젖소떼들! 한쪽의 그림이다.

이곳이 바로 세계의 곡창이요 또 협동조합의 근원지라 한다.

약20분 달리니 셸란섬의 북단 헬싱퍼르(Helsingor)市에 닿았다. 이 조그마한 도시는 바로 코앞에 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웨덴이 헬싱보리(Helsing borg)市와 마주하고 있다.

이곳에 프레데릭 2世가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로부터 통과세를 받았으며 16세기경에는 군사요새으로 구축한 城이 지금까지 觀光客이 흥미의 대상이 되고 또한 「셰스피어」의 명작 「햄릿」의 배경과 전설을 듣게 하는 「크론보르크」 城이다.

城은 과연 古城답게 우중충 하다. 마치 유령이라도 나올듯 실다.

城의 들레에는 해자로 둘러쳐 있고 해자에는 백조배들이 유유히 놀고 있어 觀光客의 눈길을 끈다. 해자를 건너 석축으로 쌓은 골목을 지나 성의 뒷뜰에 오르니 바다 건너로 향한 16세기것처럼 보이는 대포가 놓여져 있고 스웨덴의 헬싱보르그가 건너 보인다.

이곳에서 지금도 매년 1회씩 늦여름에 「햄릿」의 「야의극」이 상연 된다고 한다.

城의 한편엔 海軍박물관을 만들어 바다를 지배하고 바다를 이용하는 바이킹의 후예답게 각종무기 배의 편린과 모양이 진열되어 있다.

城을 다시 나와 남쪽벽에 햄릿의 모델이라는 「암리이스」 왕자의 상을 본뜬 셰익스피어의 부조상(浮彫像)이 그려져 있어 펍 인상적이다.

웅충한 城의 역사도 암리이스의 고민도 아랑곳 없이 城을 이웃한 부두에서는 배만들기에 여념없는 사람들의 바쁜걸음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돌아오는 길에 덴마크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 하다고 프레데릭스 보르그 성을 구경 하였다. 헬싱퍼르에서 서남쪽으로 약 20km 지점의 힐레뢰에 있는 옛 성이다.

17세기 초에 크리스찬 4世가 구축한 城이다. 맑고 푸른 호수가운데 붉은 벽돌로 지은 성은 한눈에 매료 되어 버리고 말겠다. 여지껏 보아온 성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이 아닐까 생각 한다.

네덜란드 루네상스식으로 지은 4층의 궁성은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하겠다.

이곳에서 7대에 걸쳐 200여년간 임금님의 대관식이 거행 되었다고 한다.

1859년에 화재가 발생하여 「카알·야콥센」이 재건하여 지금은 국 립역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임금님의 궁전에서 대중의 관광유물로 되기까지 역사는 변천하며 인간사의 굴곡을 보는듯 하다. 내부는 고대의 유물이 그대로 잘 간직되어 17세기 이후 왕들이 사용 하던 의자, 책상, 집부실의 짐기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보관되어 있으며 천정의 벽과는 장중한 우아함을 나타내고 상물리에가 찬란한채로 보존되어 17세기의 궁중건축 미술의 우아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城의 내부를 나와 푸르기가 수경과 같은 호수며 울창한 궁전 옆뜰의 숲에 한동안 정신을 빼겼다가 BUS가 출발한다는 소리에 내 정신을 찾아 차에 올랐다.

내일 아침은 일찍 독일로 떠나야 하는 日程을 생각하며 덴마크를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 뫼섬(Fyn)의 「오덴세」에 있는 동화작가 안멜센(Hans Christion Andersen)의 生家와 고장을 못본것이 펍 아쉽다.

어데를 보나 푸르게 뻗은 부지런한 나라에 부러움마저 느끼면서 코펜하겐을 떠난다.

9月20日 独逸

독일의 함부르크.

독일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라인강의 奇蹟을 잘 알고 있는 터인즉 공산독일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으면서 용기를 잃지않고 침착하게 발전하는 독일 국민과 우리의 북한 공산당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반공을 국시의 제 1로 삼고 착실하게 건설하며 국가 경제의 부흥을 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속도를 보유한 국민으로 자부심을 갖고있어서도 독일국민의 근본을 다시한번 알아보고와 노력을 하였던 곳이다.

독일에 대해 좀더 알아보면 굳은 의지를 갖고있는 국민이요 음악에 조예가 깊은 고장이기도 하다.

1914년에는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분쟁이 원인이되어 제 1차 세계대전을 유발하여 1918년까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곤욕을 당하였고 이어 1939년에는 우리의 나라에도 생생한 나치스 독일의 집권으로 제 2차 세계대전을 유발 하였다.

1945년에 연합군측에 항복하기까지 세계사에 남을 유사이래 대전쟁의 주역을 반았고 그 폐허위에 독일국민은 꺾이지 않고 살아남아 다시 戰前의 부흥을 되 찾았으며 불굴의 민족으로 인정 받기에 이르렀다.

독일은 유럽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으며 유럽의 여러나라중 가장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다.

동독을 뺀 서독만도 면적이 약 25만km²에 6천만에 인구를 갖고 있다.

현재의 서독은 북부독일의 저지대와 중부 독일의 고지대 남부독일의 산지로 나뉘어져 있다. 즉 남쪽의 알프스에서 부터 시작하여 북해와 발트해 쪽으로 흐르는 지형이다.

독일의 국가 의식이 강하게 형성된것은 대략 9세기 경에 쾰트기 시작 하였으며 로마제국의 권력에 제압되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크고 심취되어 토착된 독일문화 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다.

그러면서도 유럽의 여러나라들 보다 생활수준이나 문명의 개발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가 19세기에 와서야 비로서 서구화하기에 이르렀으며 당시의 명재상 「비스마르크」는 독일 중흥의 공로자로 숭배되기도 한다.

또한 독일의 전통과 특질은 고대 게르만 민족이 북방의 험악한 자연환경과 싸우면서 主神「보란」의 용맹성을 굳게 믿고 용맹스러운자만이 세상에 살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독일적인 것을 단순히 북방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독일의 바깥 공사중의 한 BL

북방의 거센 풍토에도 평화스런 밝음이 있고 고요함도 깃들여있다. 그들의 역사가 후진적이며 험한 자연에 역마치는 동안 詩나 音樂등 청각적인 내향성 문화가 싹트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독일이 나온 시인, 음악가는 한차원 높은 곳에서 대중에게 어필하고 이해되고 사랑받고 있기도 한다.

로마제국이 고도로 발달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을 때 독일인은 야만족에 불과하던것이 4세기경 민족대이동을 기화로 로마제국을 멸망시키기까지 했으면서도 문화적 전통이 없는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여기에 자극되어 로마카톨릭을 받아들이고 로마의 문물을 연구 답습하여 독일인 특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彫刻을 하고 建築을하여 로마네스크 건축이며 고딕 양식의 보존등 문화적 유산을 충실히 물려받은 독일로 변하였다.

정신적 왕국이요 죽음의 잿더미와 파괴의 터전 위에서 불가사의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나라라고 하니 불사조와 같이 재생하는 그 비결은 어에서 나온 것일까 하는 의문을 앞세워 차근 차근 보기로 마음 먹었다.

一行은 오늘오후에 후랑크후르트에 도착하였지만 본인만이 동생이 살고있는 함부르크에 어제저녁에 먼저와서 함부르크를 혼자보고 후랑크후르트의 Seminar Hotel에서 다시 合流하게 되었다.

함부르크는 독일연방국의 북부주의 행정 경제의 중심지이다.

독일 제 2의 도시로 북해로 흐르는 엘베강 하류에 위치하면서 12세기 말부터 상업도시로 발달하였으며 13세기에는 자치권을 갖는 도시로 발전하여 한자동맹의 중심세력을 형성한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북유럽의 대표적 항구도시로 시설과 연결와 편리함이 있어 세계 무역항으로 발전 하였다.

동생의 안내를 받아 저녁식사를 집에서 오랫동안 푸짐하게 하고는 市内 中心部에 알스터호(Alster See)로 갔다.

엘베 강의 물을 끌어들여 만든 인공호로서 그 아름다움과 크기는 인공호라기보다 바다와 같다.

너옥이 밤에보는 호는 정박한 거선들의 불빛이 요란하게 비추이는 가운데 불빛이 반사되는 물빛에 황홀감을 감출 수가 없다.

함부르크에 올라가 밤거리를 구경하고는 집에 돌아와 5年만에 만난 가족들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옆집에 사는 독일 사람과 나눈 대화중에 독일의 동서와 한국의 남북에 관한 많은 토론을 하다가 한국사람 나쁘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열변을 토해가며 설명하고 이해시키던것을 소개하면 독일 사람은 동쪽끼리 살생을 하지 않았다. 현대 한국은 동쪽끼리 살생을 했다 하는점에서는 북에서 우리에게 충을 쓰니 우리는 방어하기 위하여 싸운것이지 우리가 동쪽을 살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독일 TV에서 한국의 南北을 소개하는데 북한의 탁아소의 시설이 독일보다 잘되어 있음을 소개받고 모든시설과 수준이 남보다 북이 잘되어 있는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해시키느라고 또한 진땀을 흘렸다. 북한은 강제노동에 나가기 위하여 집단 수용할 탁아소가 필요하지만 독일의 탁아소도 부부가 맞벌이 나가기 위하여 탁아소를 찾게되는 것이지만 우리 남한의 실정은 탁아소가 필요없다. 대가족 제도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외출을 하게 된다고 해도 노인들이 아이를 돌봐줄수 있으며 노인이 없다 해도 가정부가 있어 쉽게 해결되는 사항이란 점등을 설명하여 우리 자유 대만을 완전히 이해 하도록 설명하고나니 나의 가슴이 후련하고 밤잠을 못잔것이 조금도 피로를 느낄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유명한 교회 건물을 두 군데 구경하고 독일에서도 손꼽힌다는 함부르크 동물원을 찾아갔다. 1907年 카알·하젠베크(Karl Hagenbecks)가 창설한 하젠베크 자연 동물원으로 유럽에서도 굴지의 동물원이라 한다. 동물들은 모두 自然放牧하여 길르고 있다.

동물원이 마치 人間未開拓의 밀림처럼 고목으로 울창한 가운데 각종의 동물들이 넓지 않으나 충분한 자연환경속에서 放飼되고 있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다. 맹수의 放飼場도 그대로여서 호랑이나 사자 곰들이 달려들것 같은 공포감마저 생긴다. 허나 맹수가 사람을 구경하듯 나는나 너는너란식으로 자연스럽게 놀고 있다.

잠깐 구경을 하고 다시 市内로 들어와 1800年代에 지은 市庁舎를 둘러보았다. 市庁舎는 독일 루네상스식의 건물로 중심부에는 시계탑이 112m나 높이 솟아 있으며 건물외부에 조각품의 장식은 한개의 건물이라기 보다 조각예술품의 진열장처럼 나의 눈을 황홀하게 해준다.

午後 2時 비행기를 타고 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호텔로 찾아가니 一行은 이미 도착하여 쉬고



제-대 하우스

있는가 하면 地下室 풀장에서 수영도 하고 있는등 휴식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중이다.

동생집에서 싸온 김밥, 김치, 잡채등을 풀어놓고 처음 먹는 음식처럼 맛있게 나누어 먹으면서 단체로 여행할때 느껴보지 못한 고생을 혼자다니며 느낀 이야기를 나누느라 분주했다.

특히 언어의 장벽때문에 고생한 일이며 입국, 출국, 수속절차를 혼자 돌아가며 왔다는것 내가 생각해도 대견스럽기만 하다.

이곳에는 이미 반가운 사람이 마중나와 있다. 나와 鐵工 同期同窓인 문정희씨가 이곳 대학원에 건축공학박사 학위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벗이 와 있고, 禹團長의 妻인 김기환씨가 이곳 대학에 교환교수로 와 있는 차에 찾아와 제치고 李京鎬氏의 同窓 양석규씨가 와 제서서 이곳에 건축시찰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9月21日 獨逸의 Frankfurt

후랑크푸르트는 라인강의 지류인 「마인쯔」江을 끼고 발달한 도시이다.

都市의 發達은 2千年前 로마帝國의 통치를 받던때에 로마인에 의하여 개척된 이후 교통과 군사상의 요지로 점차 중요한 길목이 되었다.

獨逸의 금융, 商工, 交通의 中心地로 航空交通이 發達한 現今에와서는 獨逸의 하늘에 관문이 되는 都市이다.

2次大戰 以後 獨逸의 首都 백림이 東獨逸의 영역에 가지게 되므로 새로운 獨逸의 首都를 定하는데 지금의 首

그래서인지 허부러진 원형극장의 모습도 바닥이 세로
의 토굴로 파진 모습도 모두 장엄한 위압감 속에서 비극
의 그림자와 신앙의 위대한 모습이 보이는데 하다. 콜로
세움은 타원형의 대투기장으로 둘레가 527m, 장경이 190
m, 높이 57m에 약 5만을 수용하는 거대한 투기장이다.

서기 57년에 기공하여 80년에 티투스 황제에 의하여 개
장하고 82년에 완전 완공하였으니 지금부터 약 2천년전
의 건축된 것이 그 규모와 장대함을 보거나니 계속 놀라
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나온 불탄서 파리에서 13세기 8세
기 건물이 웅장하다고 감탄한바가 이곳에오니 BC 몇년
의 건물이라고 하는 천년에 앞서있는 성전의 본당이라는
실증이라는 바이다.

트레비 분수(Fountain di Trevi)

콜로세움의 장대함이 슬픈 여운으로 변한채 콜론나 광
장 동쪽에 있는 「트레비」분수를 찾아 분수의 시원함으로
마음을 씻기로 하였다.

로마에는 분수가 많다. 그래서 어떤 여행자는 로마의
조각 예술은 「물의예술」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어디를 가나 분수를 볼수가 있고 또 분수는 아름답다.
벽이건 기둥이건 조각이 있으면 물을 뿜는 모습과 함께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인상이리라.

분수에 닿으니 관광객들이 봄빈다.

일명 「애천」이라고도 하며 「치녀의 샘」이라고도 부르
다. 물은 파랑계 맑으며 조각은 생동하는 모습이나 원추
형 기둥으로 세워진 조각된 신전을 배경으로 생동 하는
말과 자연의 암석을 딛고 조개나팔을 부는 시종을 거느
리고 서 있는 海神 「네푸툼」의 모습이 500년전에 만들어
진 조각물이라니 로마의 고대문명을 어찌 이 하나를 보
고서도 인정하지 않으리요.

이 물속에 동전을 넣으면 로마로 다시 올 수 있다는
낭만적 미신이 있어 나그네들은 너도나도 동전을 뒤돌아
서서 던지고 있다. 연못의 바닥에는 동전으로 깔려진채
분수의 우아한 멋을 풍기고 있다.

카라칼라 욕탕(Terme di Caracalla)

아우구스투스 궁전을 지나 서기217년 카라칼라 황제 시
대에 동시에 1.600명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었다는지
금은 폐허가 되어 유두화만이 무성히 자란 카라칼라욕장
터를 구경하였다.

서기 206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 시대에 착공
하여 217년 카라칼라 황제까지 11년간에 걸쳐 지은 욕장
으로 한번이 330m 나 되는 세계 최대의 욕장시설이다.

1.6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함께 들어가 목욕할 수 있
는 욕조가 있었다. 그밖에도 도서관 회의실 오락 시설이
설비되어 당시의 생활이 대단히 사치 하였을 것이 라고
짐작이 간다.

이 욕장은 6세기 초까지 사용되다가 「고트」 전쟁
터에 파괴되고 중세에 이르는 동안 목욕탕에 장식된 각

종 장식품이 박탈당함으로 폐허가 되었다.

로마 올림픽때에는 이곳에서 체조경기를 하였다고 한다.

地下로 숨어버린 그리스 教徒

목욕탕을 나와서 로마시를 벗어나 약 8km 떨어진 산·

카리스토의 카타콤베(Catacombe)를 찾았다.

카타콤베란 지하의 동굴묘지의 이름이다.

동서남북으로 수없이 가로세로 뚫린 地下의 4~5 층
묘지로서 그리스도의 박해가 극심했던 서기 2~3 세기
경 신자들이 이곳에서 예배도 보고 비밀 집회도 열었던
곳이다.

신앙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으며 이것을 계획하고 종교
의 탄압이 얼마나 심했으며 태양의 밝음을 외면한채
깊이를 모르고 한없이 땅속으로 들어 갔을까.

땅속의 구조와 깊이는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로서는 가
늑하기만 불가능한 일이다.

내부를 표시한 지도가 없이는 누구도 동굴에 들어가서
찾아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기에 심한 박해를 받을때 쫓
기다가 이곳에만 들어가면 안심하는 피신처가 되고 안심
하고 예배를 볼 수 있었다. 고 한다.

우리 一行은 案内人을 따라 들어가 전등불과 화살 표시
가 되어 있는 곳으로만 찾아가며 폭 1m에 높이는 3~
4m 정도의 굴을 뚫아갔다. 땅속에서 확 풍기는 냄새가
음산하고 쿵퀴하다.

3세기 사람의 유골이 아직도 보이는 관속에 넣어 볼수
있게 되어있는 것등이 더욱 음산하게 하며, 가족 예배를
보던 곳이라는 넓은곳이 가끔 보이는가 하면 양벽에 관
을 넣을 수 있도록 파놓은 것이 숨는 곳으로도 이용 했다고
하니 항시 숨던 곳에 묻히는 곳이 된다는 것…… 가히 비
밀 결사를 해도 은폐할 수 있으리라 수궁이 간다.

이 동굴이 연장이 약 20km 이상이 되며 몇갈래는 로마
 시내로도 통하게 되어있다고 하며, 이곳 보다는 적으나
이와 유사한 카다콤베가 로마주변에 약 50개소가 된다고
하며 서로 통하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

이곳만도 현재 10만구의 유해가 묻혀 있다는 설명을 들
으니 10만의 유령이 쫓아 붙는듯 기분은 좋지않다.

허나 동굴을 나와 햇볕을 보니 기분이 달라진다. 시원
하고 깨끗해지며 건축사로서의 생각하는 의문이 생긴다.
동굴의 벽을 콘크리트나 벽돌등으로 쌓은것이 아니고 흙
의 원형 그대로 파낸 상태 그대로인데 4~5m 이상 깊
게 파어도 물기가 없으며 防水를 한 흔적은 더욱이 없으
니 궁금하기 한량 없다.

다행히도 이곳의 토질은 습기도 물기도 없으며 물에 신
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토질이라고 설명 한다.

카톨릭의 總本山 「바티칸」을 가다.

바티칸은 로마시 서북쪽 「테베레」 강 건너의 한 구역으
로 인구 약 천명의 독립국으로 세계 카톨릭의 총본산음

都인 본(Bonn)市와 격렬한 유치 경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Bonn 보다는 産業과 文化의 中心地로 후랑크 후르트가 훨씬 구석이 갖추어졌으나 당시의 「아데나워」수상이 Bonn市에 特別히 애착이 깊은 사유로 최종에 가서 獨逸의 首都를 Bonn에게 양보하기도 하였다.

이곳은 문호「괴테」의 탄생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도시의 형태는 8세기 以後부터 獨逸의 中心的 役割이 되어왔다. 中世의 獨逸 國王을 이곳에서 選舉하였고 황제의 대관식도 이곳에서 실시 하였다.

市街地는 마인즈江을 연하여 南北으로 발전하였고 북쪽이 中世紀부터의 都市로 旧市街라고 일컬어지며 많은 古蹟과 유물이 再建되고 보존되어 관광에 한몫을 차지하기도 하는 곳이다.

이러한 市内外를 돌아 보기 爲하여 中央駅前에 아침 8時에 集合하여 대절한 bus를 기다리는 동안 李種完氏 때문에 또한번 웃게 되었다. 설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니 이곳역에서도 便所를 찾는것은 例外가 아니다. 허나 찾아가면 便所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發生한 일이다. 급히가서 열려고 하니 열리지 않아 노크를 해봐도 반응은 없고, 손잡이 부분에 10×3이라고 써여진 것이 보인다. 10전짜리 동전 3개를 넣으라는 표시이다. 공중전화의 동전넣는것과 같은 것이 문에 달려있다. 급한판에 동전도 준비한 것이 없고 아침 시간이 일터 점포도 문을 연 곳은 없으니 기다리고 있는 일행 앞으로 뛰어와 동전 3개를 달라고 해서 뛰어간다.

동전을 넣고 문들여니 이상없이 열리긴 했지만 이 급한 사정을 발달된 문명의 기계만은 몰라 주었으니 얼마나 재미있고 웃스운 일인가.

Bus를 타고 한참을 가서 Heidlberg Castle에 도착했다.

폐허된 古城이지만 옛날의 彫刻솜씨나 높고 웅장하게 建築되었던 모습과 이성에 피난살이를 하면서도 먹고쓰던 술통이 어마어마하게 큰것. 그 술통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모습들은 인상깊게 받으며 매표원과 입장할 때 표를 받는 직원(男子 2人 女子 1人) 세사람이 전부 한국사람이란 것을 알고는 또한 반가움에 서울 소식을 잠깐 전해 주기도 했다.

Mannheim에 도착하여 市内的 일반건물과 교회건물, 분수등을 잠깐 돌아보고 Bus는 계속해서 마인즈江의 江邊路를 1時間余 달려가니 江邊 양쪽언덕에 포도밭이 무수히 넓게 자리잡고 있으며 山의 능선 전부를 포도밭으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프랑스로 수출까지 한다고 하는 포도이니 밭이 이토록 넓으니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새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포도밭은 방사로 쳐어놓은 모습까지 볼 수 있으니, 프랑스의 포도주 못지 않게 독일의 포도주도 유명한 것을 알만하다.

「Loreley 언덕」에 도착한 것이다.

어려서 부르던 노래속에 나 오는 아름다운 인어의 전설이 얹힌 「로라이언덕」 막상 앞에와서 보니 평범한 언덕으로 밖에 보이질 않으나 포도밭으로 능선을 만들어 놓고 울창한 수목으로 단장되어 있는 언덕, 그 언덕 아래의 江에는 수송선 아니 화물선이 짐을 얼마나 많이 적재했는지 무겁게 市内를 向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 뿐인 것이다.

그 화물선도 줄을이어 계속들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화물이 이 江을 이용하여 운송되는가 하는것을 생각할때 도시에 운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로레이언 언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다.

Bus 운전 기사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여 주는가 하면 우리가 편리하도록 필요하다고 하면 세워주고 사진을 찍은후에 다시 출발하는 최선을 다해줌에 고마움을 느끼게 했다.

페리호로 江을 건너서 되돌아오다가 Meiniz에 도착하여 약 1時間동안 市内관광을 하다가 우리끼리 4名을 만나 쿨라를 나누어 먹으며 반가운 담소를 잠깐 나누고 광부와 간호원으로 왔으며 관광 나온 중이라는 이야기와 몇일 남지 않은 독일의 수상 선거전이 치열하여 많은 관중이 모이는 시장에서 선거유세가 있어 노래가 밴드반주에 맞추어 즐거운 표정의 선거운동이라는 설명을 듣고 바쁘게 1,000년이 되었다는 「성 바르톨로미」성당을 외부에서만 구경을 하였다.

독일의 印刷術의 發明者 Gudenberg의 記念館으로 만든 박물관 Gudenberg museum-mainiz에는 印刷術이 한국이 최초의 사용국이며 世界에서 第一 먼저이고 독일이 두번째라고 하는 전시가 되어있어 한국사람이 보면 제일 흐뭇해 하게되며 주위의 관광객에게 내가 한국사람이라는 자랑을 하게되는 이곳에서도 잠시돌아보고시간에 쫓겨 Bus를 탔으며 버스는 市内에 도착했다.

獨逸文學의 巨星「괴테」살던곳 살던 집을 구경했으나 구경했다기 보다는 집앞에서 기념촬영만 했다고 하는것이 솔직한 표현이 될것 같다.

이토록 時間과 싸우며 호텔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했고 불란서와 똑같이 유명한 「라인와인」이나 「모젤 와인」 같은 포도주를 소개받고 대접까지 받았다.

내일 아침은 이태리 로마로 간다. 떠나게 되면서 독일의 본 정리를 나 나름대로 해 본다.

거의 戰화를 찾아볼 수 없는 독일의 再建은 무엇일까? 다시 의문에 떠오른다. 하늘에서 본 獨逸은 파랑고 平和스러우며 地上에서 본 그들은 한결같이 침착하고 부지런하다.

뒤늦게 現代國家의 大列에 참여하였으면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世界第一一次大戰을 유발할 수 있었고 다시 패전의 복수와 더불어 1940년부터 5年間 第二次 世界大戰을 일으킨 자신은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이들은 獨逸을 가르켜 精神的인 王国이라고 한다.

게르만 민족의 저변에 꾸준히 노력하고 한없이 연구하는 자질이 있다고 한다. 밋을 부리고 사치를 하기 전에 그들은 실속을 차린다고 한다.

하나의 물건이 이를 입증한다.

우선 세계적인 인기품목인 自動車만 하더라도 英國의 관습에 버금갈만큼 외형에 치중하지 않고 견고한 내부와 경제적인 설계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는것이 벤츠와 폭스바겐인 것이다.

또한 精神的인 王国임을 잘 나타내고 있는것은 音樂을 들어 알 수 있다. 제 2 차 대전시 나치군이 모스크바 진격 후퇴가 어려웠을때 방송국은 뉴스를 알리기에 앞서 베에토펬의 명곡 「운명」을 방송했다고 한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대패하였을때 뉴스보다 먼저 「운명」의 제 1 악장이 방송되고 이것을 들은 독일 병사들은 조국을 위하여 싸워야겠다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현대에 와서도 분단된 독일이 지난 멕시코 올림픽 때에는 양독 단일팀으로 출전하였고 양독을 대표한 국가를 부를때는 국가를 대신하여 베에토펬의 「제 9 교향곡」의 코러스를 부르기도 했다고 하니.

이러한 獨逸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우리의 실정에서 북괴의 김일성에게 참다운 음악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고 따지는가 하면 그것을 아는 능이라면 전쟁에 광분한 미친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남북대화가 끈키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가슴 답답하면서도 우리도 독일 부럽지 않게 되는날이 머지않을 기대를 하며 建築士의 모든 能力도 독일건축사를 능가하는 우리 建築士가 되리라 믿으며 독일을 떠날 차비를 완료 했다.

9月22日

이태리의 로마

레오나르도·다빈치(Leonard da vinci) 로마 국제공항에 닿으니, 먼저 이태리를 구경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태리의 관광 사적에 대하여 경탄한 이야기를 하며 첫부분 계획으로는 어떤것이 로마제국의 값진 유적이거나 判別하지 못한채 어리둥절하고 말에 쉽다고 하던 이야기를 화상하며.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과 로마시는 약 35km나 되는 먼 거리여서 이국땅의 농촌 풍경이 한결 새롭게 눈을 자극한다.

북구라과의 여러나라에서 본 들이 아니고 색채부터가 판이하게 구별이 된다.



바티강의 베드로 광장의 전경

알프스 남쪽과 북쪽의 차이는 대단하다고 다시한번 놀랐다. 눈에 들어오는 대지의 색채는 통털어 황갈색의 평원이다. 어데서나 보이는 올리브나무의 숲이 있고 땅은 좀 메마른듯 한것처럼 보인다.

한때 로마는 모든것으로 통한다고 말했다. 로마는 유럽의 중심지요, 세계의 중앙이라고 뽐내기도 했다.

또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것처럼 로마는 언제나 세계의 수도라고 주장하기도했다.

시내로 접어들면서 로마제국 시대의 유물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로마시내를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테베레」江을 건너 市内 中心地에 닿으니 12~3세기적 도시의 외형속에 허물어진 고적이 역사를 고증하는양 여기저기에서 눈에 뜨인다.

일행은 市内中心地에 예약된 Royal Santina Hotel 에 여장을 풀고 時間이 늦어서 各者 市内 쇼핑겸 구경을 하기로 自由時間으로 갖었다.

헌데 1 \$에 480원이라는 우리나라 화폐보다도 더 싸구려인 1 \$에 834 Lira 라는 엄청난 환율로 천밀감을 갖을 수 있으며 市内를 돌며보니 우리들의 수박과 똑같은 수박을 거리에서 쪼개어 팔고 있으며 군밤을 파는곳 옥수수를 구워서 파는등 우리실정과 똑같은 풍경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 지방 관광지에 관광 온 기분같기도 느껴져서 새삼 서울 생각도 해보고 가족생각도 하며 많은 염서를 써서 소식전하기도 했다.

2 차 세계대전전 콧소리니가 이태리를 지배할때는 너무나 많은 유물 때문에 로마시의 근대화를 이룰 수 없어 조상들이 이룩한 로마는 그대로 역사적 고증으로 보존한채 근대로마를 새로 설계하여 구로마의 서편에 뉴로마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를 닦고 건설에 착수하고 이것이 현재까지 계속 사업으로 이룩 되었다.

로마의 아파트군이나 모던한 현대 로마는 뉴 로마에 위치하고 있고 원로마는 유물보존과 유적발굴 작업이 1년중 쉬는 날 없이 진행되어 차츰차츰 원형을 되찾고 형태를 복구하는일로 정부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다.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가 구획정리는 완벽에 가깝고 시내를 유통하는 교통 수단이 편리하여 지하철이 발달하여 다량 수송과 시간을 절약 한다.

그러나 유독 로마에는 지하철이 없다. 소위 세계의 수도요, 유럽의 중심이라고 자랑하는 로마시로서는 좀 생각해볼 교통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설명을 들으니 2차대전전 못소리니도 로마의 지하철을 착공하려 하였으나 땅을 파면 팔 수록 새롭고 귀중한 기원전후 로마제국 시대의 유적들이 예기치 않은곳에서 계속 발굴되므로 지하철의 부설로 선조가 남긴 유적에 흠이 갈것 같아서 지하철 공사를 단념 하였다 한다.

로마의 지금 살고 있는 후손들은 언제 더 훌륭한 고적이 발굴될지 무한에 가까운 신비가 로마 시내 곳곳에 더 묻혀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로마시는 약 130km²에 人口 300만의 都市로 紀元前 7世紀경부터 도시 국가로 출발하여 기원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의 로마제국 건설로서 유럽의 최강자가 다스리는 도시국가로의 기틀이 잡혀 있다.

이태리 전체가 로마제국이 모체로서 기원전부터 강력한 통일된 도시국가이었던 로마를 기점으로 남쪽으로 사실리섬에 이르는 남부는 아직도 농업에 의존하는 낙후된 생활을 하는 빈곤이 존재하고 로마이북으로 부터 알프스에 이르는 북부부 산악지역의 거수로 자저할만큼 공업화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고있어 아직까지도 유럽의 타국에 비하여 빈부의 차가 심하여 국민소득도 과거의 영광은 아랑곳 없이 제일 뒤떨어진 상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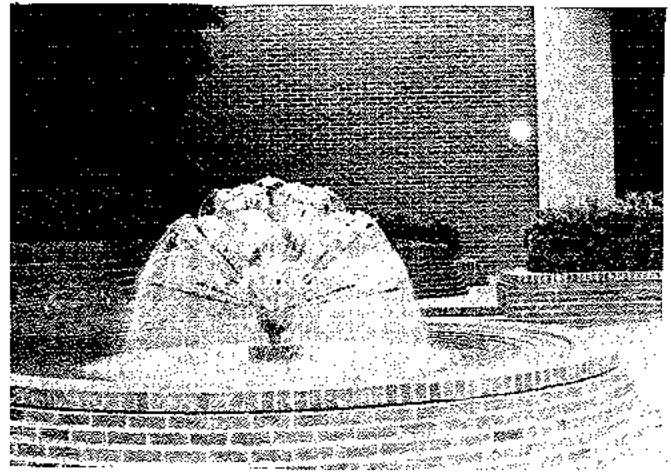
로마의 민족구성부터가 단일민족이 아닌 혼합민족의 집합체이니까.

여하튼 짧은 기간에 로마를 완전히 보고 알고 자기 위하여는 로마의 역사와 로마의 예술문화를 어느 정도라도 알지않으면 무의미하다. 로마의 기원이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예술문화는 루네상스를 맞아 꽃피기 이전에도 조각 예술이 고도로 발달 하였다.

루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레오나르도·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등의 거장이 출현하였으며 그리스도교의 박해와 국교로의 성장등 길흉의 역사를 갖은만큼 우여곡절이 심하였다.

이태리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카톨릭의 본산을 이룰만큼 종교와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부터 종교음악의 중심지가 되어 루치니, 베르디, 푸치니등 오페라의 대가를 탄생시켜 가극「세빌리아의 이발사」「리고렐」「라·트라비아라(春姬)」「아이다」「나바부인」등은 세계의 걸작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은가.

로마는 세계 유적의 寶庫며 一年을 걸려도 다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태리의 어디를 가던지 성당이 있고 신전이 있으며 돌의 문화가 있고 城이 있으며 시이저의 역사가 있고 로마 제국의 유적이 있다. 카톨릭의 본부가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다. 루시가 있고 베르디는 리고렐을 만들었다. 이러한 많은것을 어디서부터 봐야하나 욕심만 앞서지 머리가 혼돈된다.

9月23日

로마시 全体가 遺蹟博物館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행을 먼저 호텔에서 가까운 에마누엘 2세 紀念塔(Monument a Vittorio Emauele II)을 찾았다. 마치 큰 궁전의 전면을 연상할만큼 16개의 대리석 원추를 기둥으로한 백색기념탑은 탑이라기 보다 하나의 우아한 건물이라고 칭함이 옳을듯싶다. 이태리 통일의 영웅인 빗도리오 에마누엘 2세를 기념하기 위하여 1885~1911년에 걸쳐 건축한 것으로 그리스신전의 모양과 흡사하다.

16개의 石柱가 늘어선 양편에 4두마차의 상이 이태리의 통일과 자유를 상징하고 신전앞에 여러명의 여신이 조각되어있고 그 위에 에마누엘 II세의 기마상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26년간을 걸쳐서 만든 그 재료가 돌이요 대리석이다 이곳 로마는 돌의 문화요 돌의 조각이며 물이 잘받쳐주면서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 인간의 아름다운 정신이 또 남겨주고 싶은 조각과 건축의 기술이 가장 오랫동안 변치않고 먼 후세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돌의 견고성 내구성을 따를것이 없기 때문에 돌로 조각하고 돌로 정성을 들여 지어야만 했을지도 모른다.

기념탑을 돌아 바로 이웃하여 있는 콜롯세움(Colosseum)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양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콜롯세움은 직접 만져보기는 못했으나 그 모습과 여기에서 일어났던 영광과 비극의 모습은 낮이 익으리라. 현대 영화를 통하여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교 탄압의 일환으로 이곳에서 교도들은 사자의 박으로 하고 통쾌해 하는 모습은 우리는 「퀴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하여 눈에 익었던 곳이다.

이루고 있다.

세계 3억 5천만의 교도를 주재하는 교황청과 성베드로 대성당이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대사관계를 유지하고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의 순으로 성직자들을 지휘 통솔하는 곳이다.

카톨릭의 축제임에는 전세계에서 모여든 교도들이 성베드로 광장에 운집하여 예배 하기도 한다.

성베드로 광장은 「베르니니」가 1656년부터 10년간 설계하여 착공 하였다는 대회광도 둘러싸여 있으며 회랑의 옥상에는 140명의 성직자의 石像이 서 있다.

광장에서 마주보이는 거대한 건물이 세계의 寺院中에 으뜸이 되는 성베드로 사원(Basilica di san Pietro)이며 이는 교황의 주례로 예배하는 성당으로 규모는 세계 제일이며 내부의 장치도 장엄, 화려함이 극치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다.

건축은 이태리 바로크식의 대표적인 건물이며 건물의 앞쪽이 217m 옆쪽이 156m에 면적 이 약 2만천 평이다.

카톨릭 교회의 총 본산이며 범황 직속의 대성당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서기 326년에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묘위에 건립 하였으며 그후 증축과 보수를 하여 루네상스로부터 바로크에 이르기까지 120년간에도 여러차례 보수하여 건축미의 극치를 살린 예술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1546년에는 율리우스 3세에 의하여 루네상스 미술의 거장 「미케란제로」가 주임 건축가로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건물 중앙의 돔을 설계 하였다.

미케란제로의 설계가 채택되어 공사가 진행되다가 미케란제로의 사후에도 계속 계승되어 기본 건축과 미술품이 완성을 보았고 다시 17세기초에 마테르나가 설계를

추가하여 율바누스 8세때에 헌당식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햇수로 1546년부터 1626년까지 80년에 걸쳐 건축이 완성된 것이다.

건물내부에 들어가니 입구 우측에 미케란제로의 「탄식하는 피에타」란 제명으로 성모마리아와 십자가에서 풀려 내려온 그리스도의 유해를 안고있는 그림이 장식되어 있고 정면 중앙에 베드로의 묘가 안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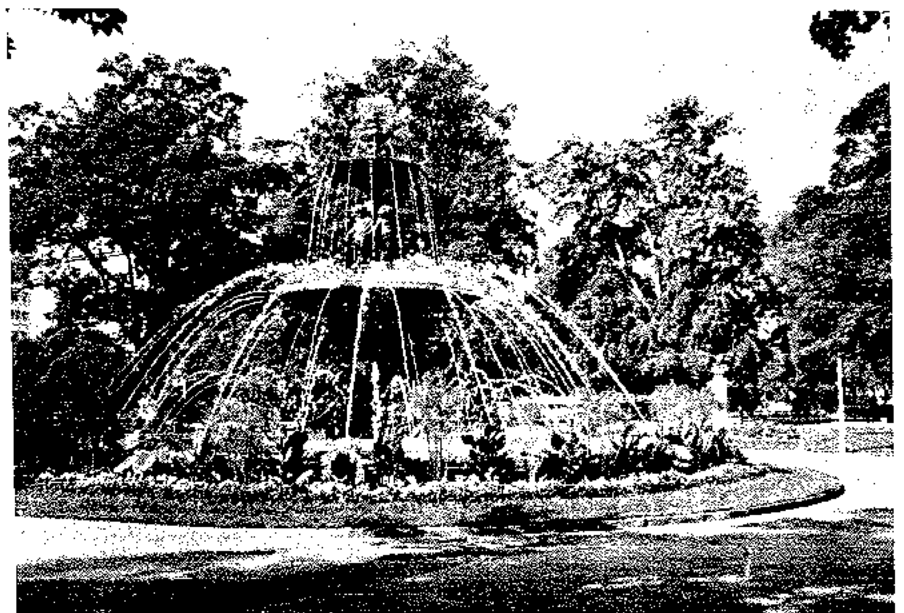
이곳이 범왕전용의 제단이다. 제단의 우측에는 베드로의 상이 세워져있고 정면의 안쪽에 베르니니의 작품인 청동성좌가 4 사람의 성자들에 의해 높이 5m나 되는 크기로 만들어 보셔져 있다.

중앙 천정에 그려진 聖畵는 그 규모와 장엄 화려함이 보는이들을 압도하고만다. 성당의 내부 조가이나 건물의 대리석 기둥의 설계된 모습은 중세의 로마시대의 발달된 건축미술을 웅변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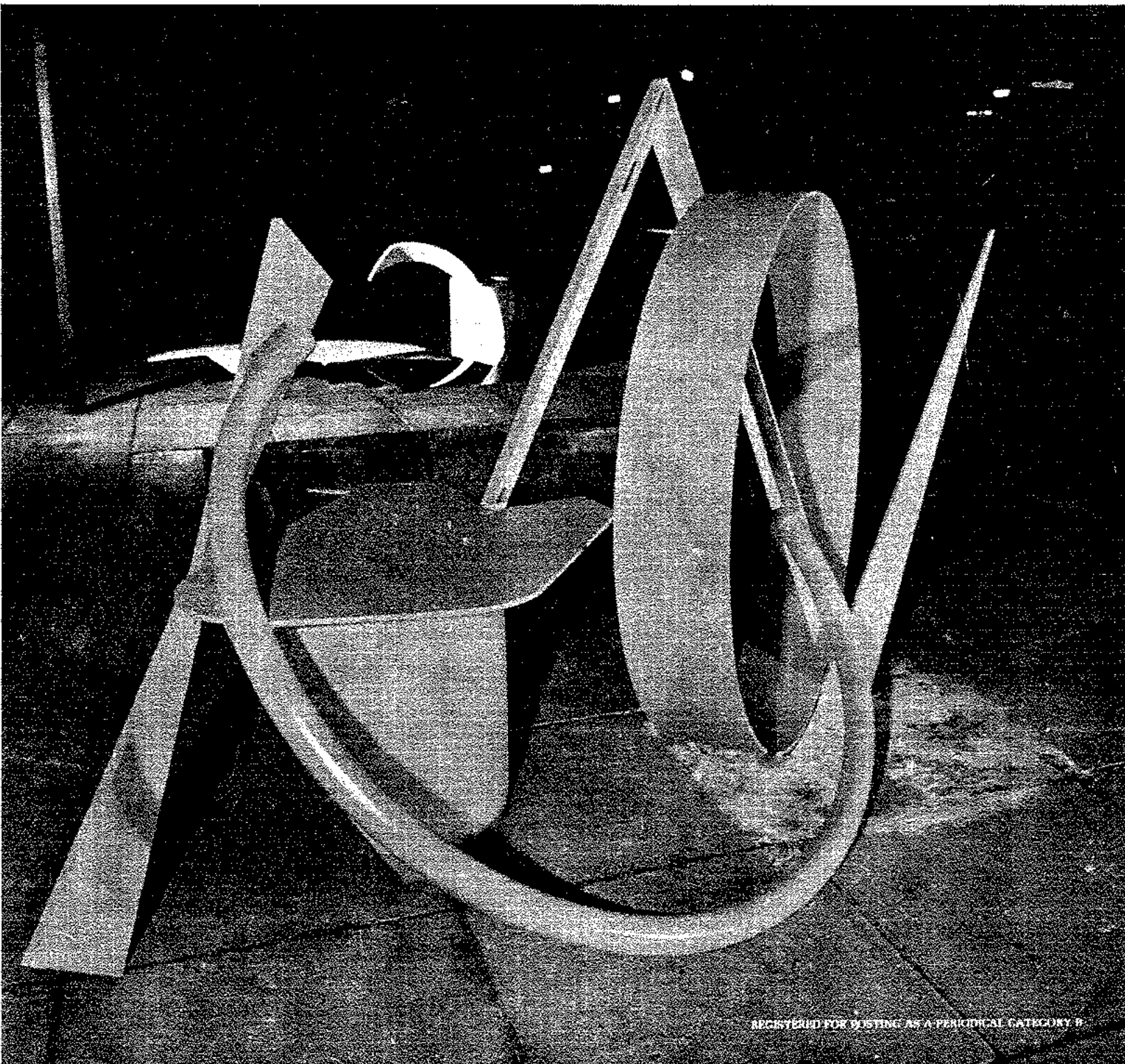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벽에 그려져있는 벽화를 보기 위하여 얼굴을 위로 치든채 감탄과 존경의 눈초리로 지켜보면서 한결같이 감격한 표정이고 엄숙한 표정이다.

미케란제로의 天井畵와 祭壇畵는 보는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끄는 듯하다. 천정화는 1508년부터 5년간에 걸쳐 그려졌다고 한다.

구약성서의 「아담과 창조」와 「아담과 이브의 원리」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정면의 제단 벽화는 1536년부터 6년을 걸쳐 그렸다는 유명한 「최후의 심판」 장면이다. 미케란제로와의 대화는 끊이지 않을것 같다.



海外作品



駐日東京 쿠웨이트 영사관

建築主：駐日東京 쿠웨이트 영사관

設 計：Kenzo Tange & URTEC : Jiro Inazu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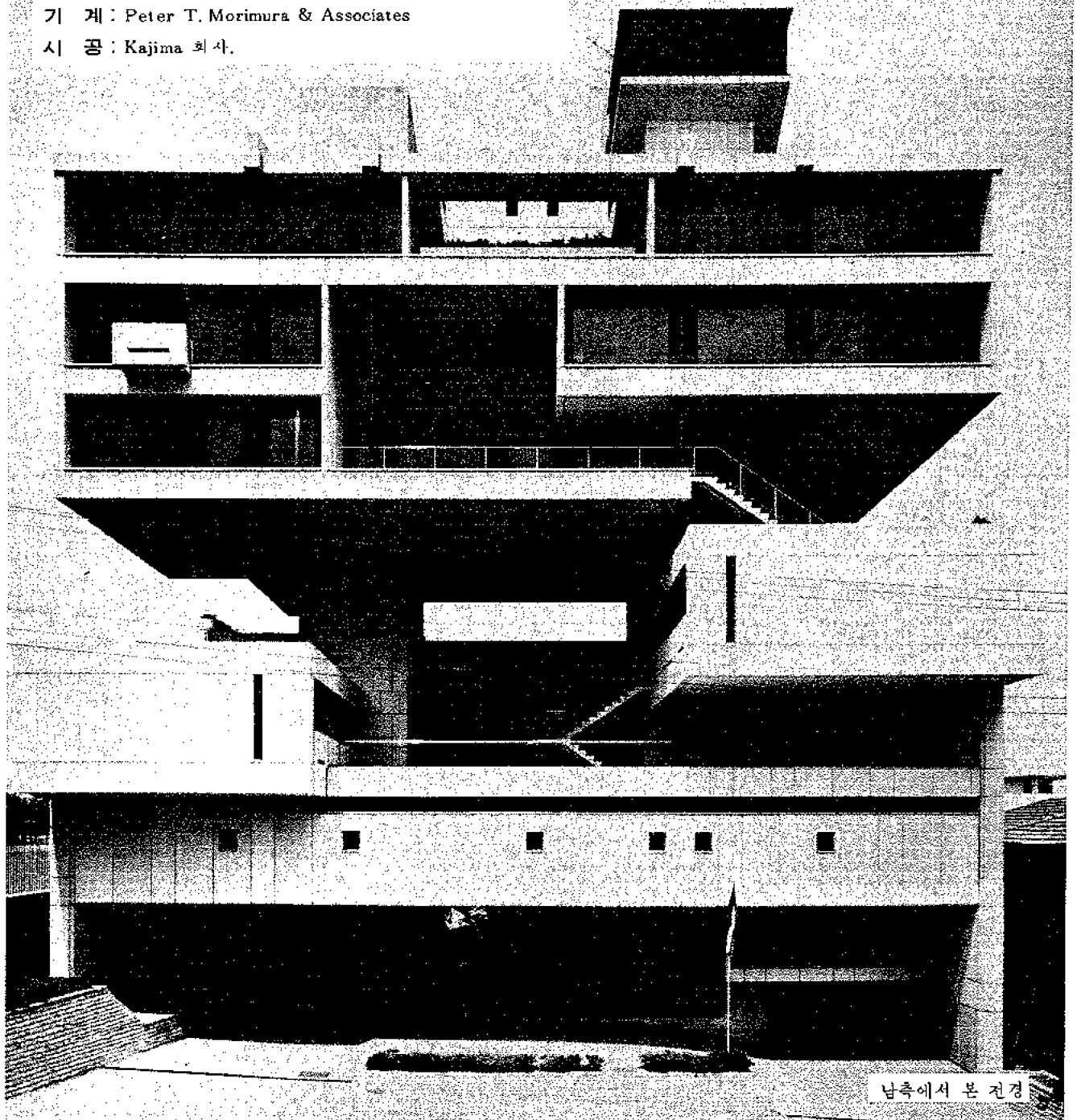
Hirosh : kimura,

조 각：Seiji Shimiz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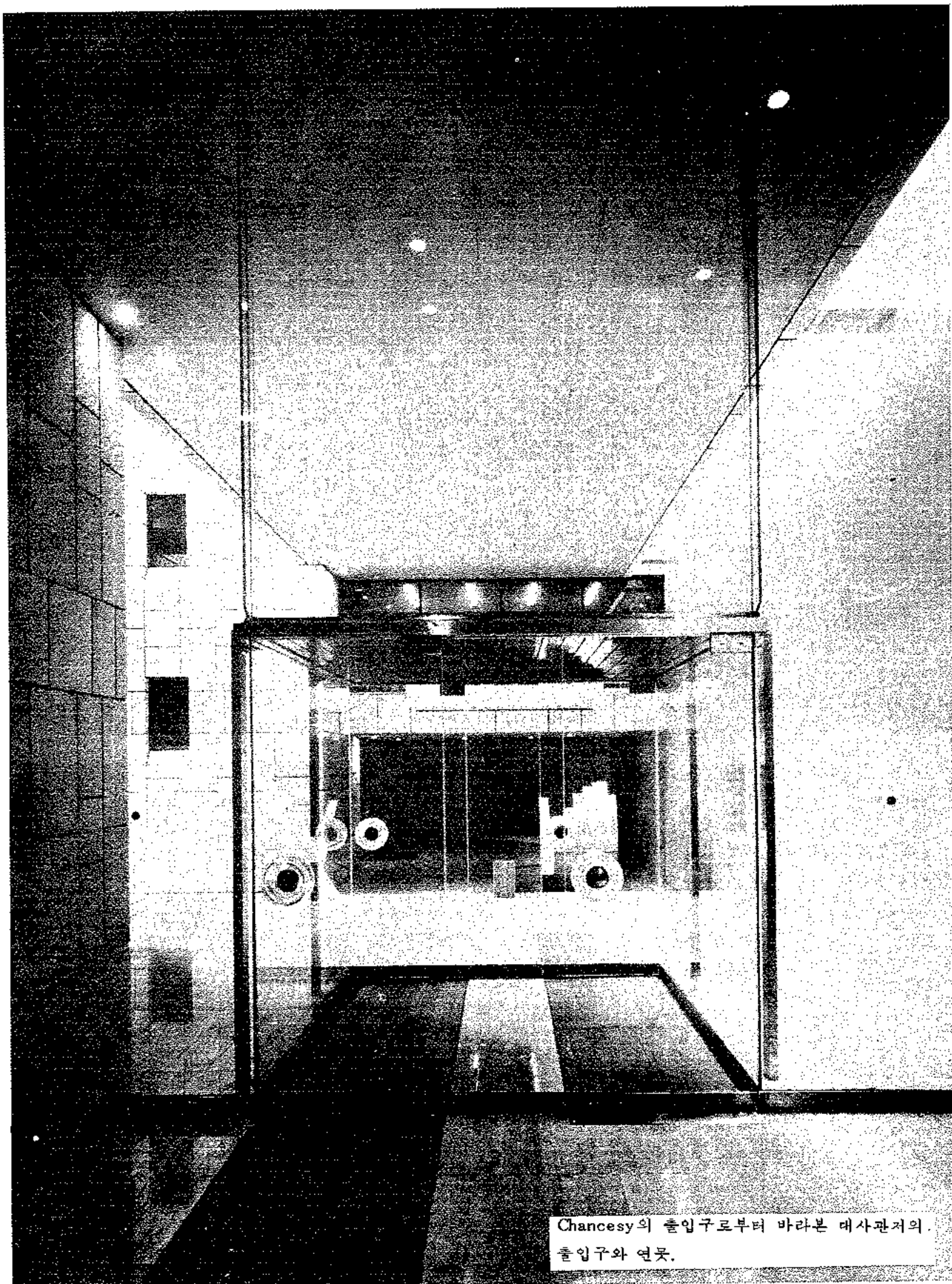
구 조：Takumi Orimoto & Associates

기 계：Peter T. Morimura &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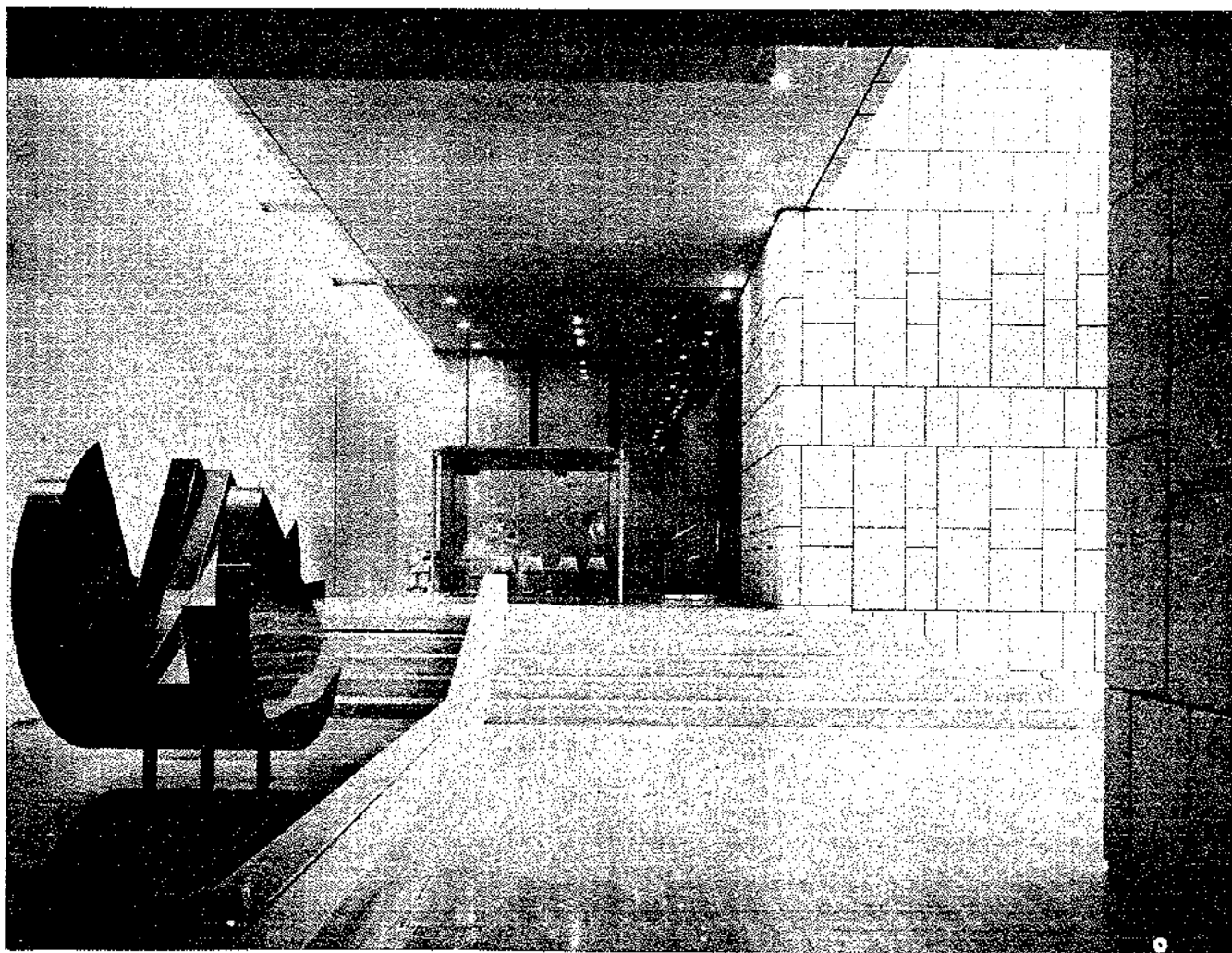
시 공：Kajima 회사.



남측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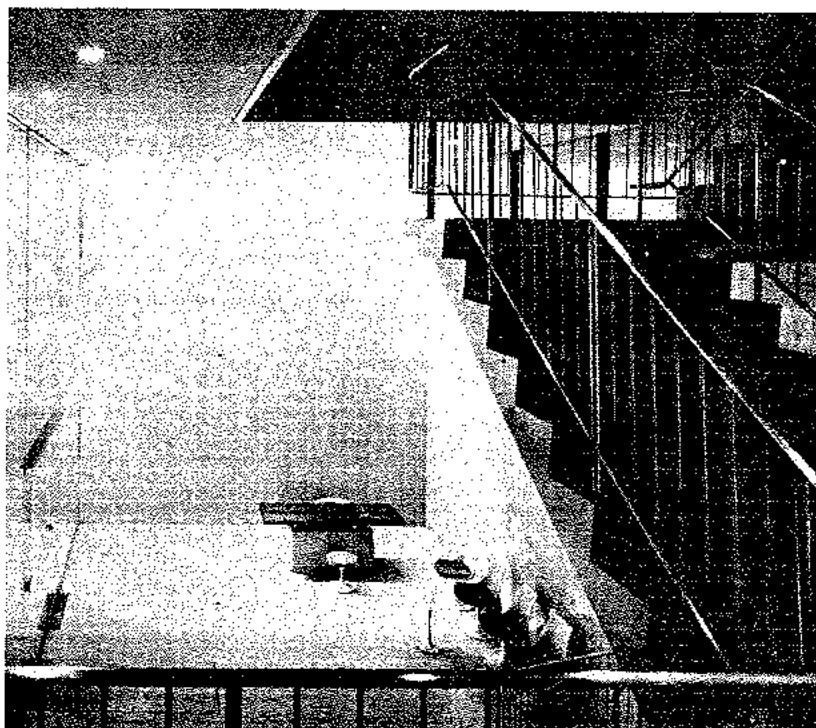


Chancesy의 출입구로부터 바라본 대사관저의
출입구와 연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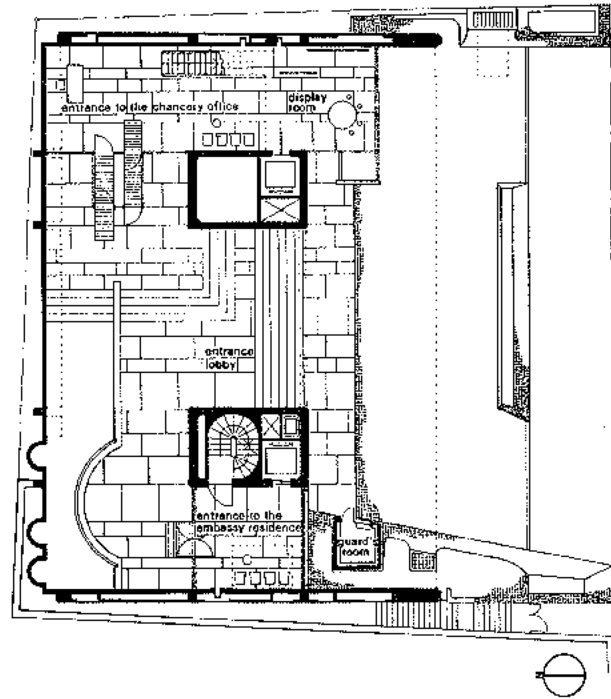
上, 대사관저의 출입구에서 로바를 가로질러 본
Chancery 출입구.

右, 2층 엘리베이터 로비에서 본 chancery
출입구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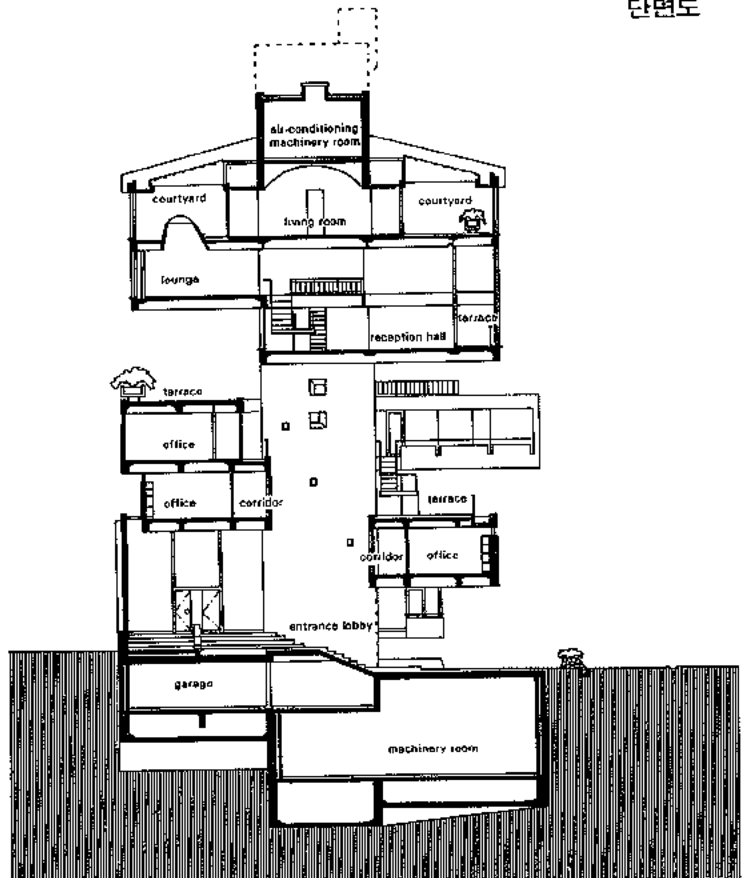




Reception Hall



단면도



1층평면도

규모

대지면적 : 923m²

건축면적 : 551m²

총연면적 : 4,13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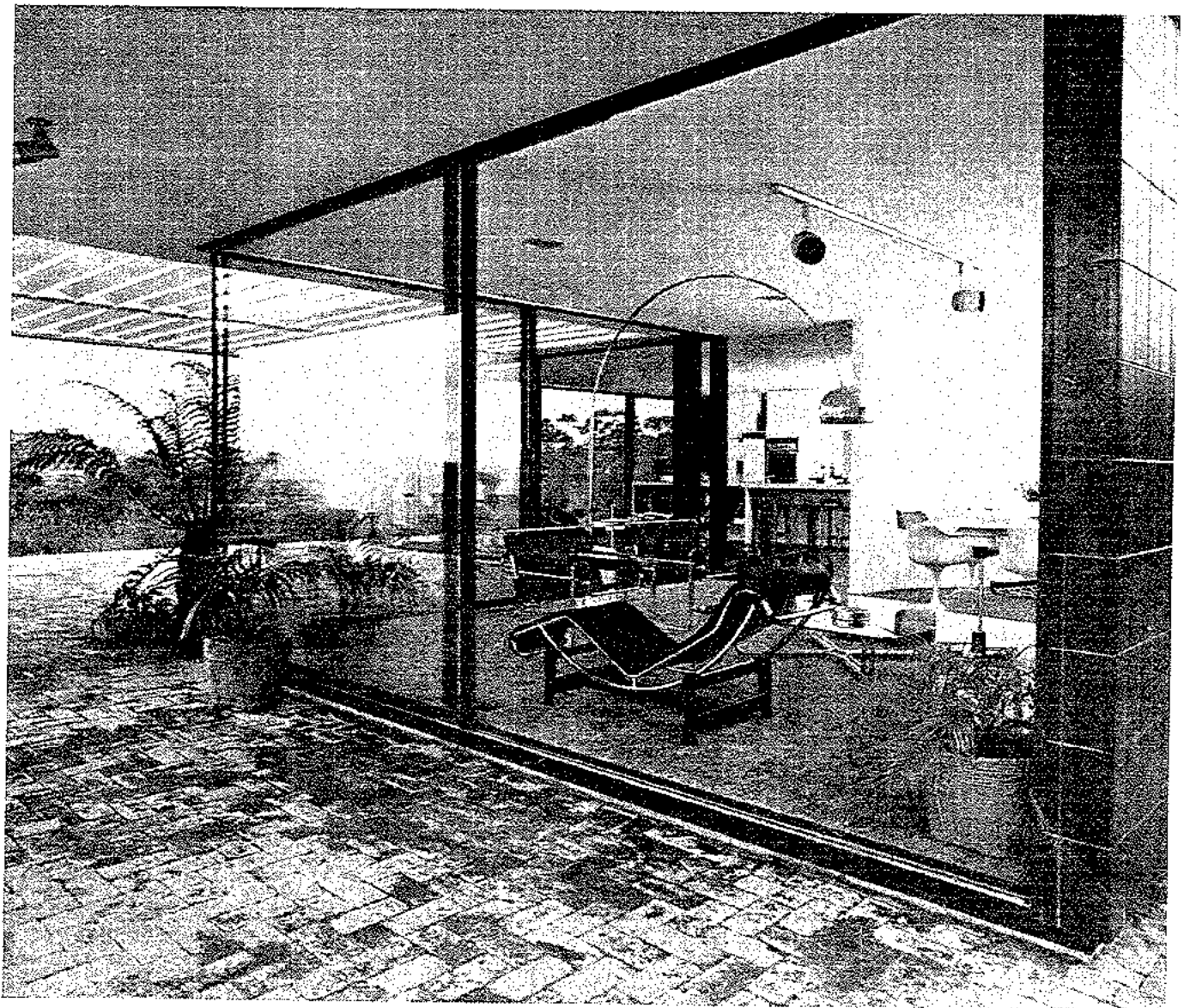
구조 : 철골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2층 펜트하우스 2층

높이 : 25.4m

HOUSE AT TERREY HILLS

— Glem Murcutt —



建築主는 Kuring-gai Chase의
고원 지방이 내려다 보이는 매우
아름다운 그의 땅에 잘 調和될 수
있는 住宅을 원했다.

展望은 거대하고 확 트였고 황
량하며, 이 건물의 단순하고 대
담한 Mies 式의 構造가 그 경치
에 잘 두드러지며, 실내에서 보
는 경치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바닥포장, 잔디, 초목, 灌木等
은 부지주위를 둘러싼 숲 에로의
進入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
다.

정원은 다듬지 않으므로써 이
건물은 景觀에 강렬한 對調을 이
루며 이것은 잘 표현된 것 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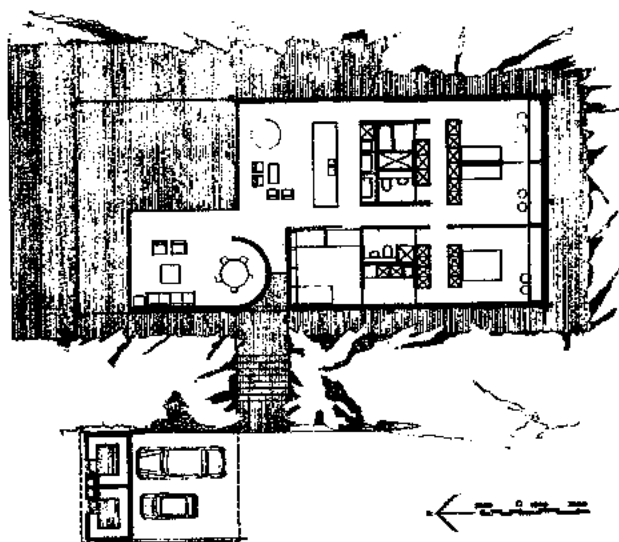
검정색 타일과 鉄 構造의 사
용은 또한 造景에 있어서 아주 성
공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거
칠거나 非實用的인 것도 아니다.

사실상 이 건물은 가족 위주로
설계 되었다.

건물을 둘러보는 동안에 철없
는 2명의 꼬마 아이들이 건물 안
밖을 뛰어다니고 있었으며, 美的
이거나 실제적인 조형이 없는 주
변이 그들의 놀이터로 되어 있었
다.

부엌과 가족실은 분리되었지만
인접된 서재와 함께 집의 中心部
를 이루며, 최상의 景觀을 즐길
수 있고 外部와 출입하게 되어 있
다.

平面計劃은 보는 바와 같이 경
제적이고도 간단하다. 크지는 않
으나 넓게 보인다. 細部 처리는
직접적이며 단순하다. 内外壁 모
두 耐力壁이 아니고 鉄 製間柱로
되어있으며, AC피복보온재, 그
리고 외부는 타일로 되어 있다.



- Colin & Irene Still -

HOUSE, WATSONS BAY

10X30M 築地の 이 住宅은 적은 비용으로 郊外生活의 즐거움을 누릴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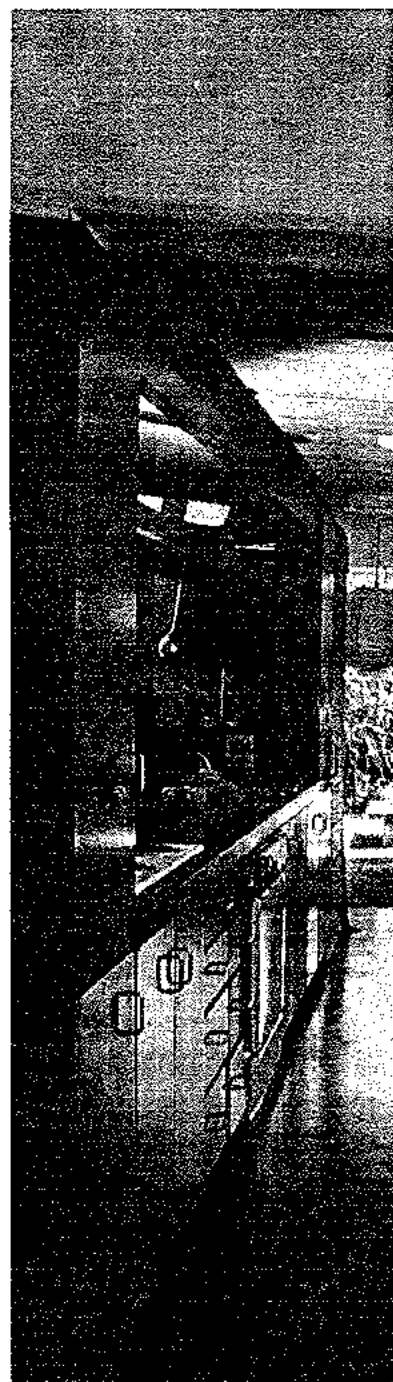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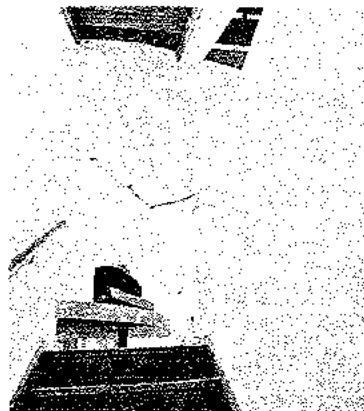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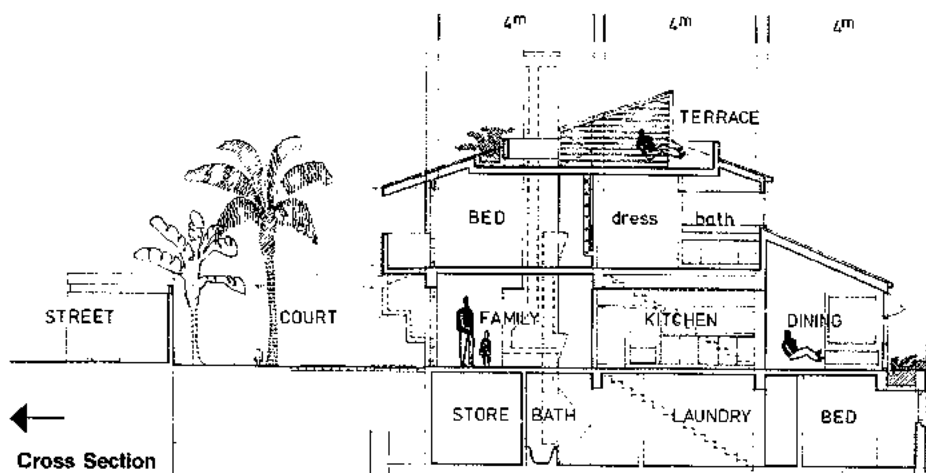
언뜻 보아도 이 주택은 watson 灣의 옛 항구 근처의 교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간의 地中海式 特性은 넘었고 다채로운 無 秩序의 한 面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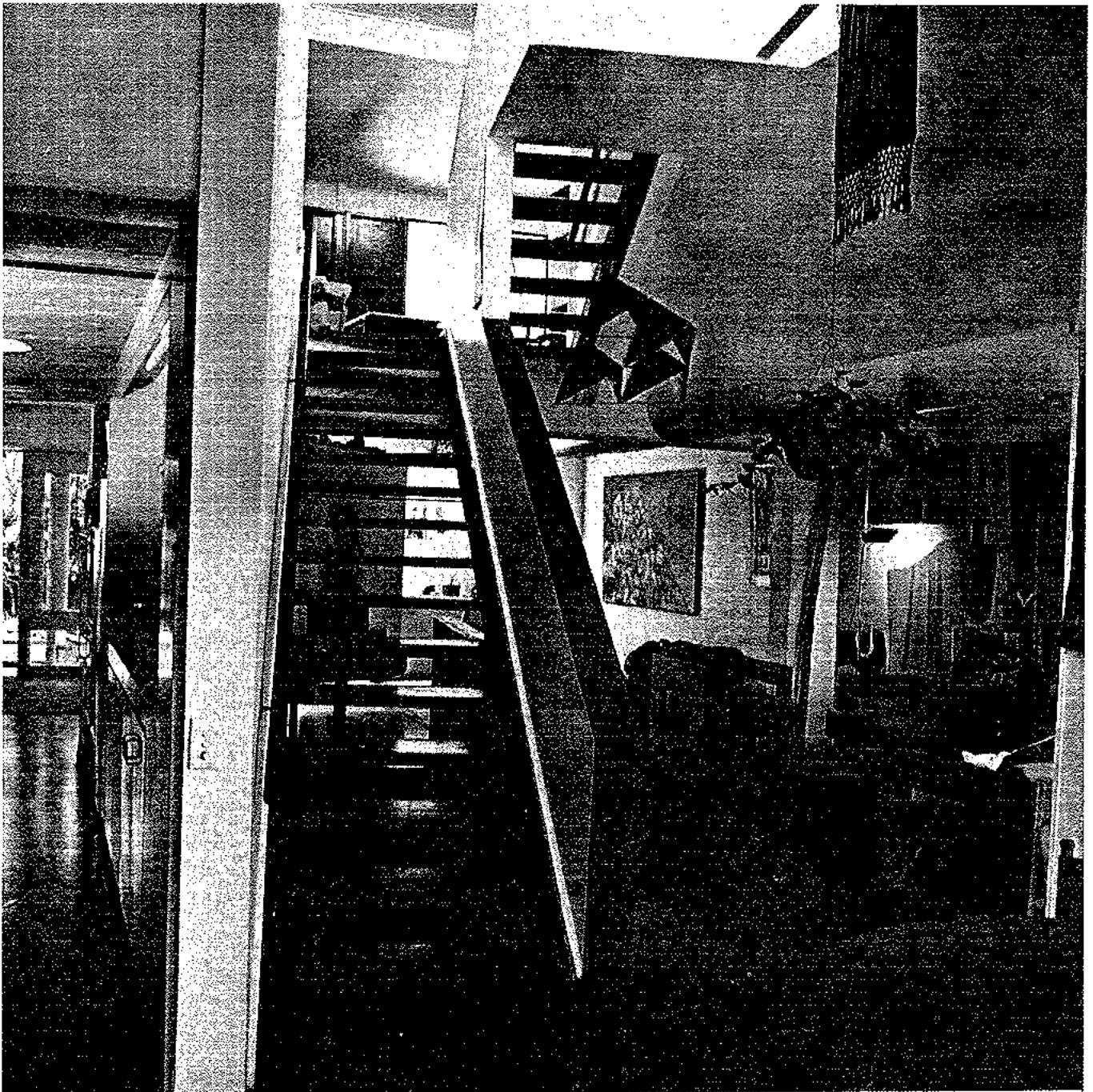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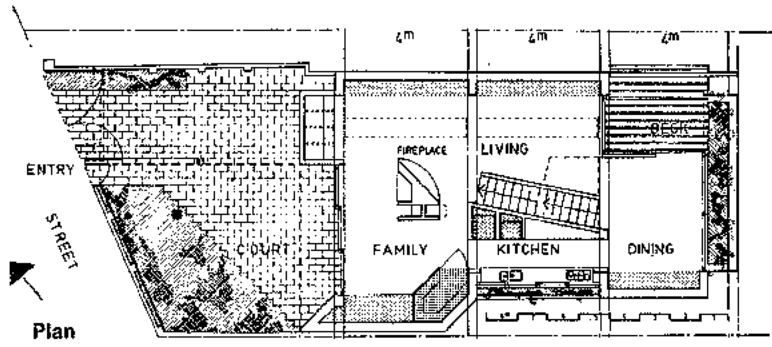
이 건물에 있어서 전체를 이루는 아주 적절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특창적인 중앙 계단의 뿔린 주변과 double height의 좁은 편적 주위의 재미있는 공간처리.
- 주위의 재미있는 공간처리.
- Privacy와 가족생활 모두들 包容하는 房의 配置.
- 극히 單調로운 마무리와 細部 처리.

• 배적하지만 미묘한 색채의 사용은 자연적인 마감이나 널리 流行하고 있는 흰색이나 原色의 사용으로 부터의 참신한 탈피.

거기에는 이 건물이 인근 건물들과 調和되어야 하는 명백한 관계가 있었고, Watson 灣은 그러한 것에 잘 부합되었다.





DOCTOR'S HOUSE, KELLYVI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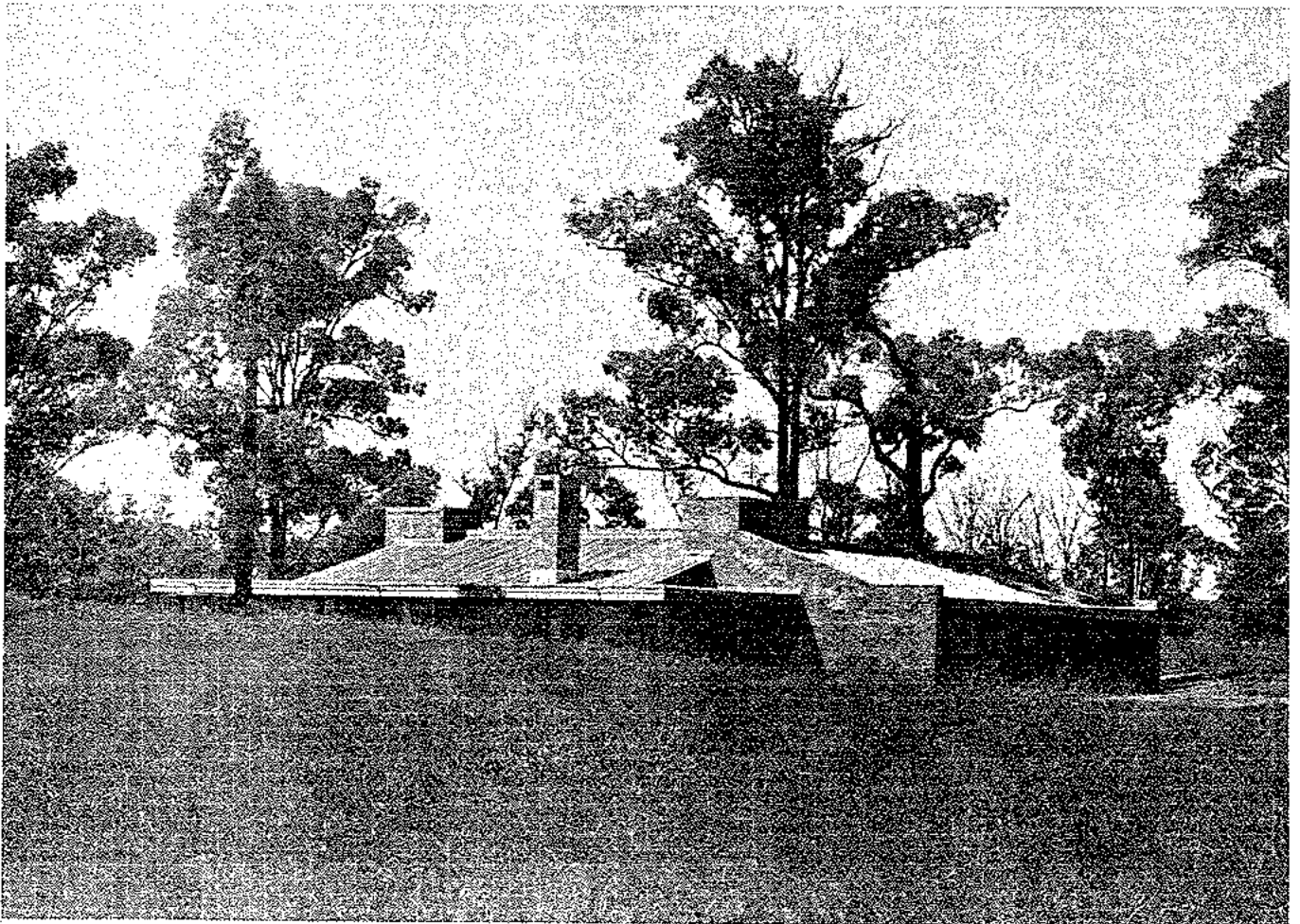
- Philip Cox Storey & Partner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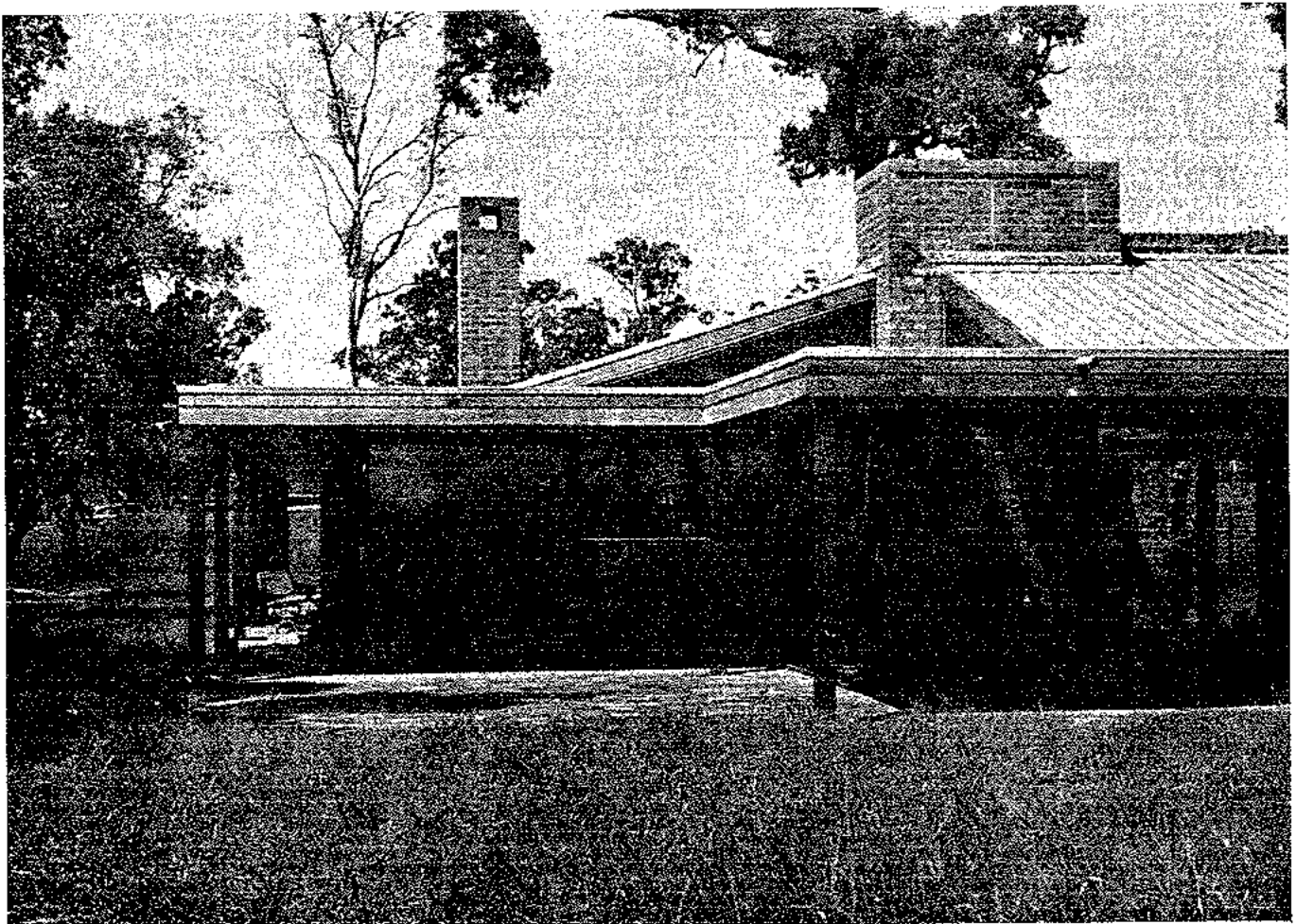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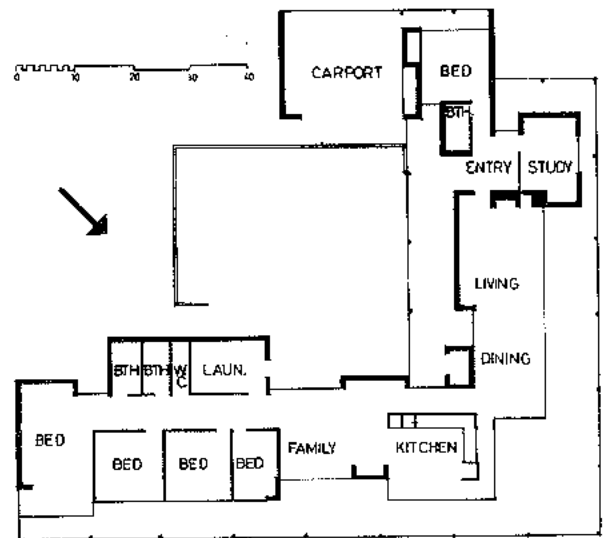
이 평화스럽고 넓다란 住宅은 Sydeny 교외의 2 ha의 塋地 위에 세워져 있다.

길고 낮은 veranda는 옛 Australia 지방 특유의 特性을 나타낸다. 대담하고도 견고한 壁窓工法은 부드럽게 굽어진 塋地 形態의 一部로서 견고하게 이루어 졌다.

이 건물 西편의 나즈막한 작은 언덕은 인근 住居를 충분히 가려 주므로서 완벽한 Privacy를 얻을 수 있다.

안에서 보면 이 지방 주위의 景觀이 폭이 넓은 미닫이 문과 veranda의 견고한 支柱에 의해서 경쾌하게 짜여져 보인다.





GAZZARD HOUSE, 88 HARGRAVE STREET, PADDING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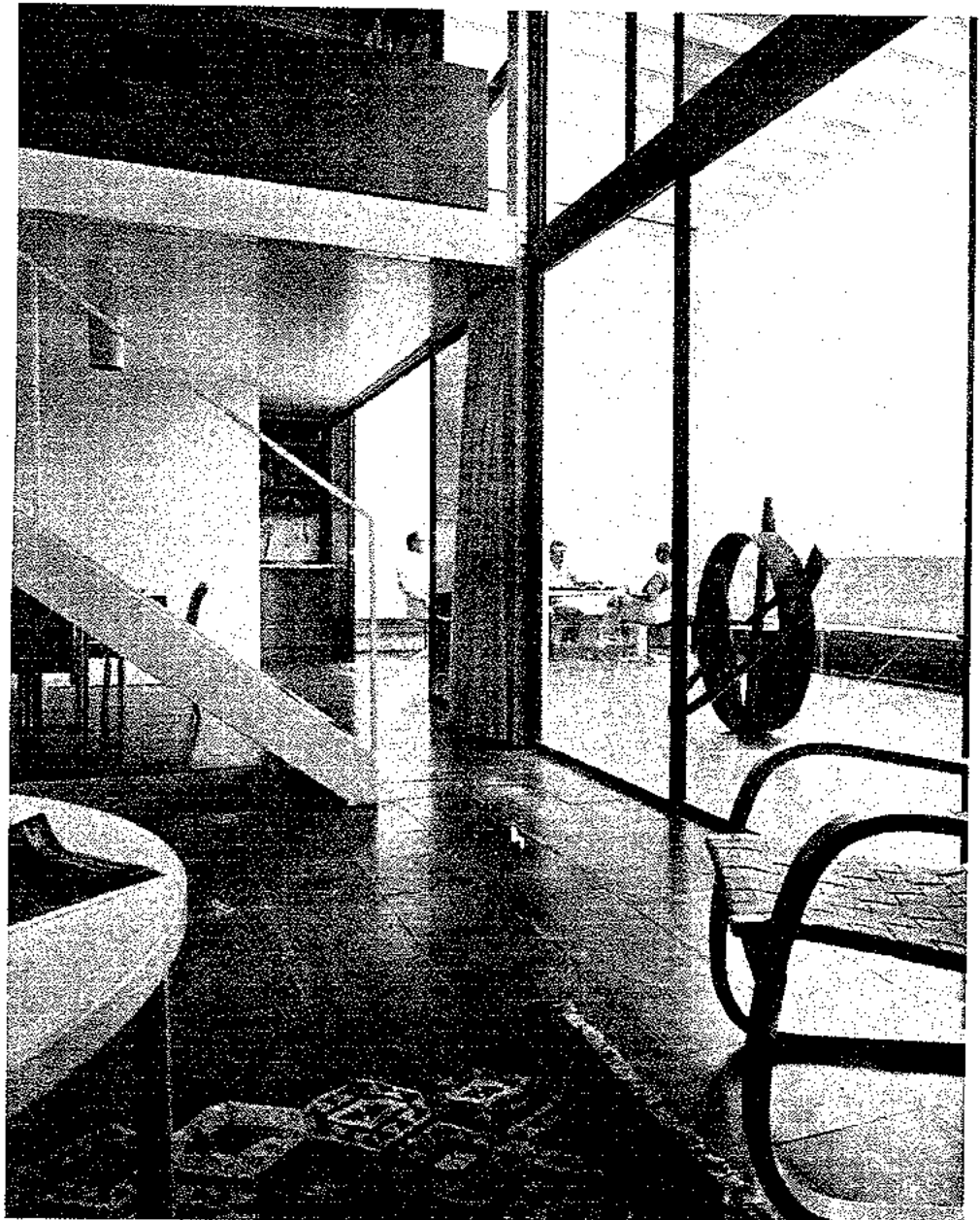
- Donald Gazzar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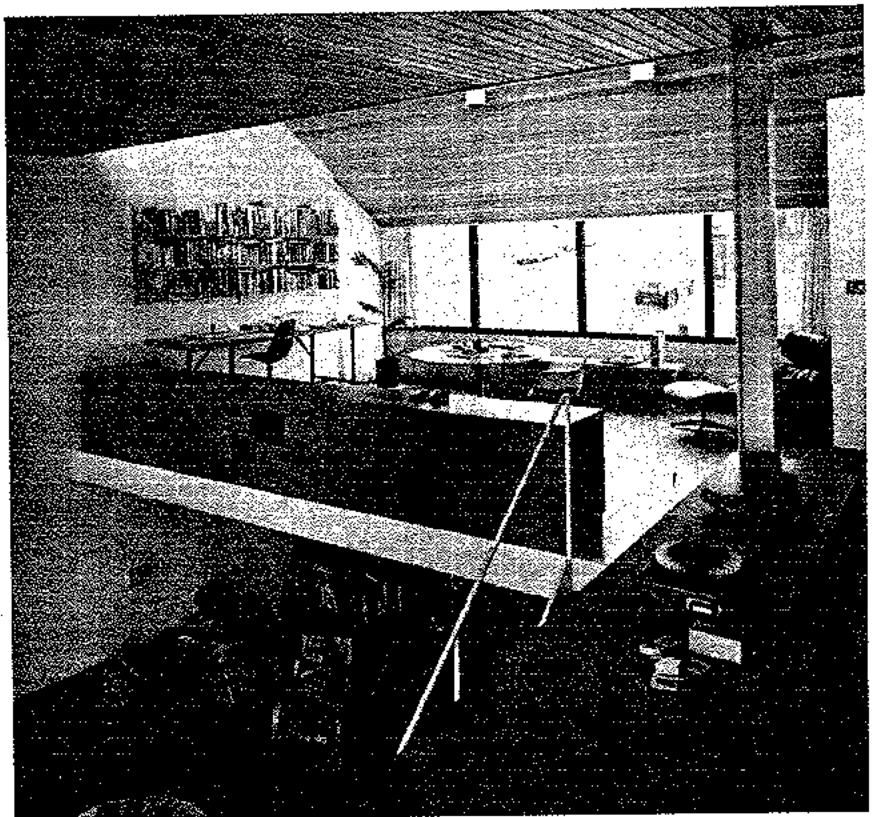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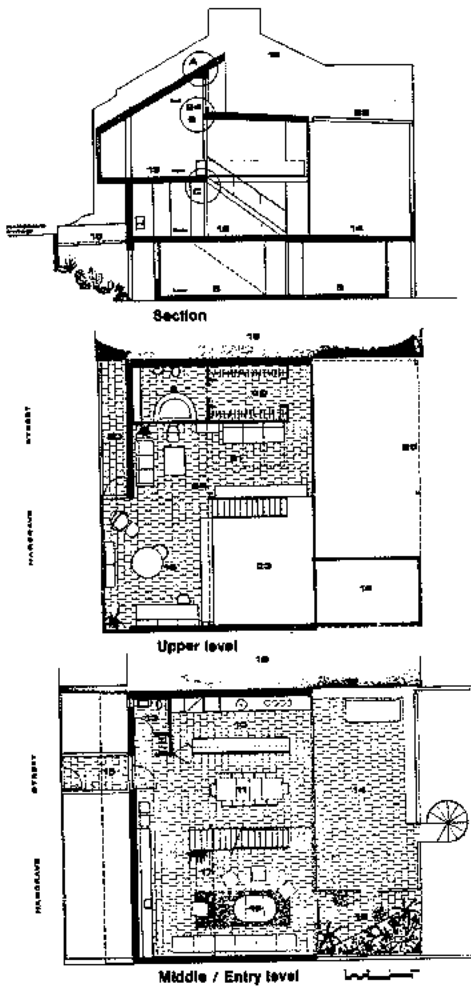
이 건물은 sydney에 위치한 거의 완벽하게 19세기 特性을 지닌 住宅이다. 外部로서는 다소주위 거리의 규모와 特性에 圧倒 당하나 内部로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paddington의 다른 모양의 건물에 조화될 수 있는 흥미있는 試圖요, 강한 표현이다.

건물내부는 아주 훌륭하여 태양광선을 痛뻘뜨일수 있고 2 個 層의 内外部 空間의 모든 부분에서 paddington에서 가장 훌륭한 景觀의 一部를 이루고 있다. 짜임새 있는 露臺와 함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주 멋지게 결합되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다.

doubleheight 의 deck와 미닫이 문에 색유리가 끼워져 있는데 이것은 감별한 빛을 부드럽게 하고, 가벼운 色調의 타일 바닥 위와 흰 목재로 마감된 거실, 식당, 부엌, 서재, 침실등에 明暗의 여러 段階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space의 규모는 paddington에서 기대되는 것의 倍가 된다. 그러한 것은 space의 규모에 대한 영향을 의미심장하게 더해주고 있으며, 아마 또한 道路 景周圍와의 미묘한 관계를 더해 주고 있다.





FARMHOUSE, KEMPSEY

- GLenn Murcutt -

이住宅은 전원 생활을 동경하여 sydeny로부터 멀고도 아름다운 곳으로 移住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아연도금철판, 규격화된 louver, 鉄線, 목재틀에 볼트로 연결한 판재등 주로 표준화된 構成材와 저렴한 資材를 사용하여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에서의 諸般 問題에 대한 아주 훌륭한 해결책을 가졌다.

(1975년 당시 M² 당 비용이 247.5 弗이었다.)

構造는 아주 단순하며 후에라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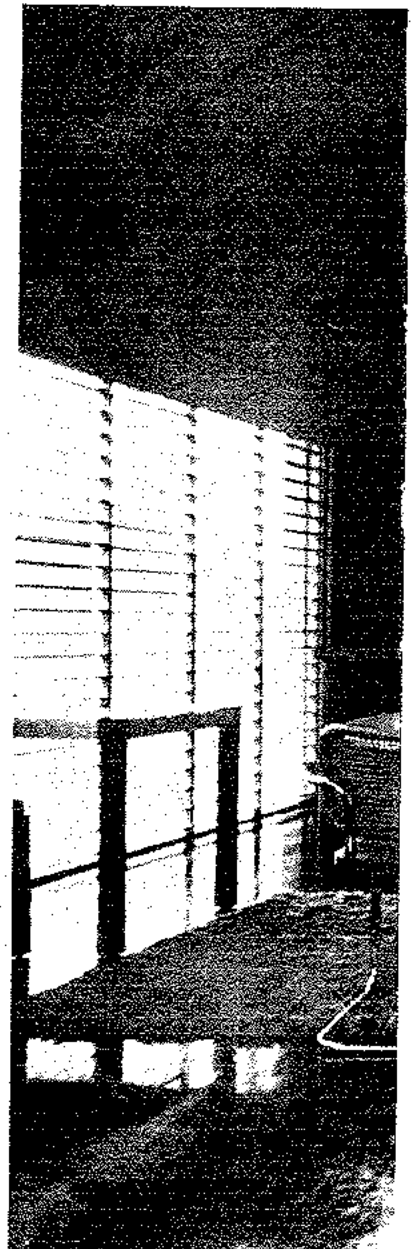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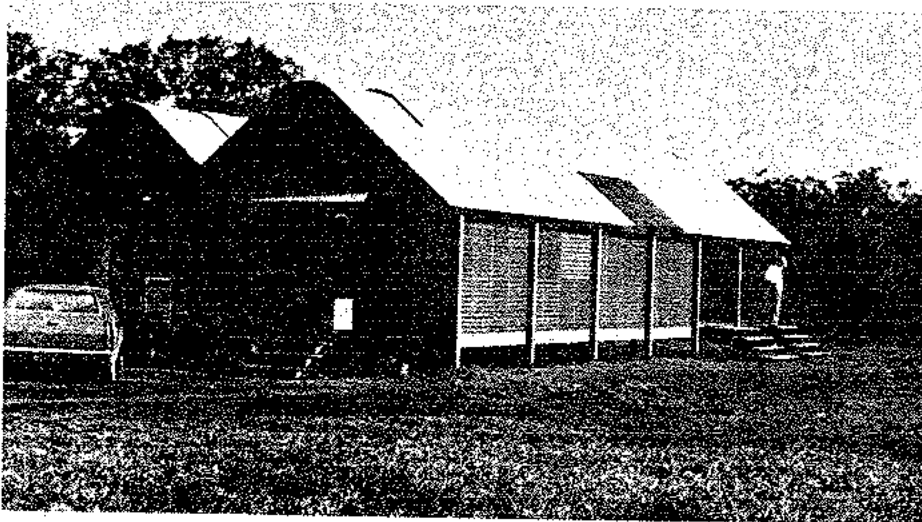
ke mpsey와 沿岸사이에는 아름다운 自然景觀뿐만 아니라 傳統的인 酪農場이 散在하는 지역이다. 80년전 그대로처럼 이상하고 청올한 美를 가진 人工的 景觀이 展開되는 그대로 農場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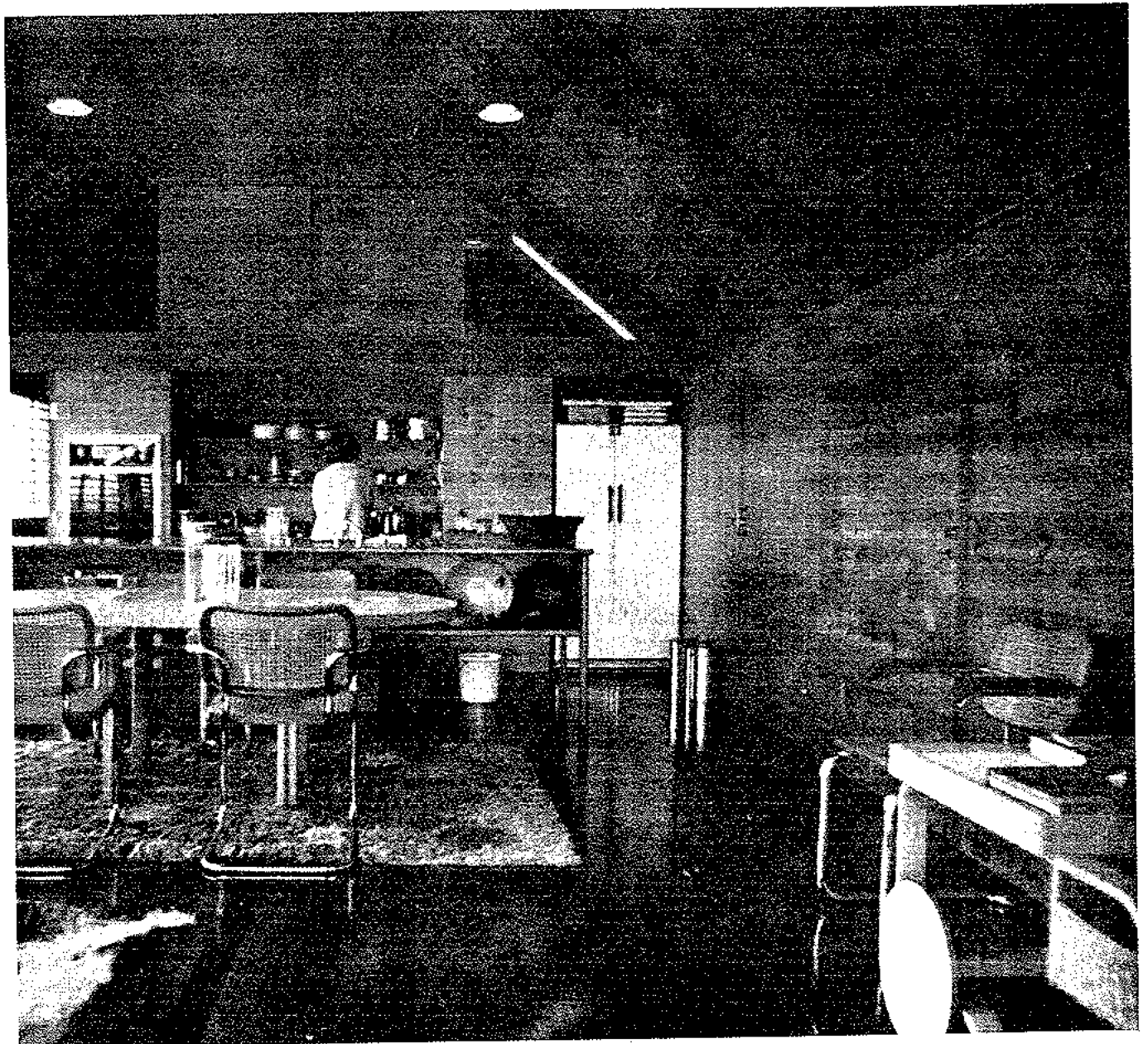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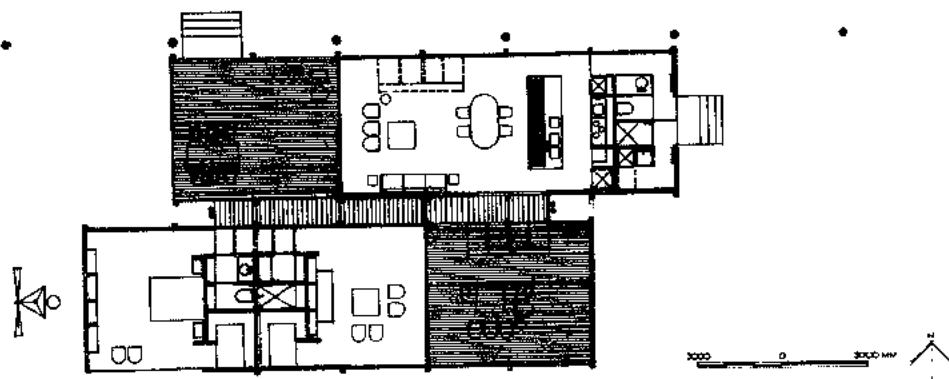
時代가 다르고 生活樣式 조차 전혀 다름에도 이住宅은 이 지역의 一部를 이룬다. 넓은 森林

開拓地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으며 멀리서 마치 kemsey주위에 點소를 기르는 것처럼 보인다.

内部는 주로 木材로 마무리 되었으며 精巧하게 건축되었다. (木材의 대부분은 건축주 자신이 건축가에 의뢰하기전에 직접 購入 하였다.)

멀리 보이는 언덕, 나무숲이 이루는 線線, 작은 牧場등이 멋진 景觀을 이끄는 louver의 다양한 pattern을 형성하고 있다.





著作権法 과 建築士

崔 昌 奎

著作権法은 約20年前 부터 있었는데 이法은 日帝時代 부터 있었던것을 그대로 韓訳해서 制定되어 있었으나, 이法에 保護를 받아야 할 対象인 文化藝術人을 비롯해서 出版, 音盤, 放送等 分野에서 創作物의 著作権을 保護해 주는 또는 出版權이나 複製權의 限界等を 規定해 주고 많은 罰則도 具備되어있는 現行法이 있다는 것을 周知 못하고 있었던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이法の 母體였던 日本의 著作権法은 거의 毎年 改正되어서 15회나 改正되어 現在 日本에서는 施行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現社會의 實情과 藝術界의 分化나 多樣化 또는 새로운 이런 分野로 介入된(機械와 科學文明으로 因해) 많은 “메스메디어”와 簡易화된 傳達과 使用面의 擴大로 도저히 現行法으로서는 堪當할수 없게되어 文公部側이나 文藝振興院, 芸總을 爲始해서 出版協會, 官民放送界에서도 混亂이 일어나 改正을 서둘르게 되었다.

旧曆(76년12월) 이法の 改正을 前提로한 “세미나” “심포지움”이 있어 建築家協會側으로서 參席을 해보고는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現行 著作権法이 얼마나 엉성하고 未備함을 새삼 느끼고 너무도 많은 分野의 特殊한 立場과 事情을 듣고보니 여간 어려운것이 아니거나 하는 点에서 모두가 緊張해서 拙速을 避하고 慎重을 期해서 充分한 研究檢討 한 다음 建議하기로 했다.

76. 1. 20日 韓國著作権法研究所가 當時 理事陣과 諮問委員合同懇談會가 있어 偶然히 建築界에서 筆者가 委員에 依頼를 받았기에 承諾하고 參席해보았다.

事實은 昨年 이法에 関한 몇 개의 會議에 參席해 보았기에 若干은 現在까지의 經緯와 內容을 알고는 있었다.

허나 막상 諮問委員으로 이 問題에 發言을 할수 있다고보니(얼마만큼 反映이 될지는 몰라도) 문득 生覺나는 点이 있었다.

그것은 過去 行政府나 機關이나 民間團體에서 建築에 関한 諮問委員으로 많은 建築人이 参与는했다.

그러나 어떤사람이 무슨諮問이 되어서 어떤 發言이나 建議에 作用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個人資格으로 委員依頼를 받았어도 그 結果가 建築全般에 影響을 주는것은 틀림없다. 이것은 特別히 法制定이나 改正에 関한 일이면 더욱 그러하다. 제 아무리 個人資格으로라고는 해도 自己의 權威나 立場이나 또는 自己個人에 有利한 發言을 했다고 해도 할말은 없지만 그結果가 全建築界에 關連된 다든지 몇몇 個人이 아니고 建築界 3團體에 큰 影響을 미치는 것이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意識적으로 秘密에 부쳐두었던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일들이 後日 結果가 나타나면 누가 그러한 諮問을 했느냐 등 아우성이고 協會內나 建築界에 内紛같은 또는 龜裂이 일어나게했다.

이런 일은 惡意로 解釈하면 自己만이 第1이라는 生覺이겠고, 또는 依頼側이 故意로 離間策으로 라고도 볼수 있겠다. (過去 多分히 그런 氣味가 있었다)

위와같은 生覺이 들어 即刻 家協制作分委와 士協理事會에 事由를 連絡해서 建築界의 全般的인 意見이나 見解를 綜合해 갖이고서 參席하기로하고 兩協會에 直接 參席

해서 聽取하고 參席했다.

무릇 著作權이란 創作에 對한 것이지만 作家의 人格權까지도 包含되어 있기에 팔고 싶지도 팔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인데 大概의 境遇 著作權은 讓渡나 購入이나 販賣가 可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1회限의 使用權은 讓渡賣買하는 것을 마치 著作權을 賣買하는 것으로 錯覺하고 있는것만 같다.

著作權은 作家에 嚴然히 歸屬되는 것이고 一般은 그 回數가 制限된 使用權 뿐인 것이다.

現行 法令엔 効用 時限을 作家(著作權者) 死後 10年이다. 20年이다 라고 되어 있다.

勿論 改正案에는 이 年限이 延長될 것을 建議하고 있다. 이 會合에서 論議된 많은 討論中에서 建築에 關係되는 建議事項만을 간추려 보면,

1. 「建築家の 著作權 効用 期間은 永遠이다.

他部問에서는 作家死後 婦·長子로 繼承되어 50年이다. 100年이다 라고 되지만 建築에서는 複与가 없기 때문에 또 歷史의으로도 그 作品이 消滅될때까지 永遠으로 해야 한다고 例를들어 몇 1000年의 作品이 남아 있어서 証明해 주고 있다 그것을 模倣이나 剽竊했을 境遇는 罰則을 받는다는 것이다. 模

2. 「懸賞設計에서 當選作의 著作權의 確保

이것은 過去만은 發注側의 獨善으로 當選作의 著作權은 發注者에 屬한다. 또는 応募作品은 一切反還 않는다. 等等의 事例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3. 「建築設計者 選定은 建築主의 自由이지만 創作 隨意 契約으로 해야한다.

지금까지는 監査等の 問題로서 技術用役契約이나 納品 契約 따위로 하고 있고, 去今 經濟企劃院의 設計入札에 對한 有權의 解釋의 結果도 隨意는 認定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獨善의이고 無知한 發注側은 入札을 (形式的이라도) 要求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은 監査를 爲上로 하는 無能한 發注者들)

4. 專問家로 構成될 議機構가 必要하다

표절이니 模倣이니 近似, 類似, 轉移等 問題에서 訴請이 있을때 司法官이나 他部問 人士들은 그 審議가 不可能하므로 建築家들로 構成된 審議機構가 있어 判斷이 내려지면 그 結果로서 司法權을 行使하면 되기 때문이다.

5. 余他法과의 關係

제 아무리 著作權法 이 잘 改正되었다 해도 會計法에 創作 隨意法이 없으면 契約過程에서 行政的으로 混亂이 일어나고 士法에서 資格이 定해진 것이 無視되거나 해서 는 안 되겠고 特히 稅法에서 서비스業으로 되어 있으면 稅額의 附加率이나 創作이라는 點이 模糊해지기 때문이고 國際著作權法과도 步調를 맞추지 않으면 國際交流나 國際競爭 進出等에 混亂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以上 5個項에 對해서 例를 들면서 強硬하게 主張을 했고 余部問의 우리가 이때까지 生覺조차 못했던 特殊한 例나 意見들은 많은 參考가 되었고 工夫도 되었다.

何如問 이 法 序頭에 “創作物의 著作權은 作家 에게 있다.” 라는 主條文 하나라도 모든 問題가 나 危殆되어 있지만 우리는 立法의 趣旨나 精神과 違背되는 施行令이나 細則, 條例, 指示 命令이 얼마나 많은가를 잘 알고 있는 터이라, 또는 諮問委員들의 發言이 얼마나 法改正에 反映될 것인가에 對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建築界의 全般的인 意見이나 見解, 要求를 強力히 發言 했을 뿐이다.

此後 繼續이 著作權法 改正에 關한 問題는 討論되고 더욱 具體的으로 進展될 줄 안다.

文公當局도 銳意, 그 方向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었보이고 芸總이나 藝術振興院 等 이에 關係되는 機關이나 團體가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臨하고 있는것도 事實이다.

우리는 現行(現在 未改正) 法에도 著作權 對象 種目中에 嚴然히 建築이 들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余他法의 強勢에 우리들의 著作權이 保護되지 못하고 있다는 點을 生覺할 때 우리의 가장 重要한 權益을 지키기 爲해 더욱 關心과 研究와 連帶意識을 가진 努力이 要請되는 것이다.

끝으로 著作權法 研究所의 理事陣과 諮問陣을 보면 아래와 같다.

理事陣

白鉄(理事長) 韓勝憲(所長) 文仁龜, 李恒寧(弘大總長)
李奉來(芸總會長) 張仁淑(靑瓦台秘書) 趙演鉉(文人)
崔昌奎(文芸振興院)

諮問委員

李崇寧(學術) 李御寧(文學) 韓萬年(出版)
琴수현(音樂) 조춘영(音樂) 邊鍾夏(美術)
車凡錫(演劇) 郭福錄(翻譯) 李真愛(放送)
황영민(映画) 이영희(新聞) 金思達(書芸)
崔昌奎(建築) 李健中(寫眞) 민영빈(國際)

建築法 質疑 応答(8)

韓奎峯

75. 露天駐車場の設置

(質疑要旨)

① 露天駐車場은 自動車를 対象으로 하고 있음으로 自動車停留場과 同一한 것으로 보아 商業地域以外の 地域에는 設置할 수 없다고 思料되는바 貴見은?

② 露天駐車場の 運営上 必要한 倉庫는 倉庫業으로 独立된 業은 아니나 株式会社의 營業上 必要한 倉庫임으로 建築法上の 非營業用倉庫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營業用倉庫로 보아 面積의 規模에 關係없이 住居地域에서는 建築할 수 없다고 思料되는바 貴見은?

(質疑者: 忠清北道)

(回信内容)

建築 444.1~24921(76. 12. 20)

質疑①에 대하여

建築物을 建築하지 아니하는 露天駐車場은 建築法上 用途地域・地区의 制限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함으로 商業地域 以外の 地域에서도 그 設置가 可能한 것이나 用途地域・地区의 指定目的에 支障이 없도록 留意하여야 할 것임.

質疑 ②에 대하여

露天駐車場の 附屬建築物로서 建築되는 倉庫는 倉庫業에 使用되는 倉庫에 該當되지 아니하여 이는 駐車場用の 附屬建築物로 보아야 하는 것임. 끝

76. 道路上 建築物의 撤去補償

(質疑要旨)

国家에서 施行하는 国道拡張工事로 因하여 一部道路敷地에 저속되는 既存 建築物에 대하여 建築法 第42條 第1項 第3号의 規定에 該當될 때에는 土地収用法의 節次를 이행하지 않고 市長・郡守가 令 第169條의 規定을 적용하여 一定 補償額을 지급 또는 公탁하고 建物을 整備할 수 있는지의 여부?

(質疑者: 濟州道)

(回信内容)

建築 444.1~25088176. 12. 22)

政府의 国道拡張事業을 施行함에 있어 法 第42條 第3号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補償金을 支給함에 있어서 異意가 있어 이를 불복하는 者는 土地収用委員會에 裁決申請을 할 수 있도록 令 第169條 第3項에 規定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事前에 土地収用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事業認定 節次를 先行할 必要는 없는 것임. 끝

(解 說)

道路 및 建築線(法 第3章)이나 地域・地区의 建築制限(法 第4章)의 規定에 違反된 既存建築物이 公益上 심히 有害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撤去 및 改築의 命令等 必

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法 第42條 第1項 第3號에 規定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損失補償을 時價로 하도록 法 第42條 第3項 및 令 第169條 第1項에 規定되어 있으나 時價損失補償額은 相互間 타협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市長·郡守가 補償金을 지급하거나 公탁한것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 또는 公탁한 날로부터 20日 以內에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機會를 부여하고 있으며 道路上의 建築物(質疑의 경우임)을 違反建築物로서 撤去하려는 것일뿐 建物 또는 土地를 收用하거나 使用하려는 事業이 아님으로 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한 事業認定을 事前에 받을 必要없이 国道擴張事業을 着工할 수 있고 被補償者가 令 第169條 第3項의 規定에 依據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申請을 하여야 비로서 土地收用法 關係規定을 適用받게 된다.

77. 住居地域內에 있는 倉庫의 用途變更

(質疑要旨)

適法하게 建築許可를 받아 住居地域에 建築한 延面積 236.16 M² 인 倉庫中 87.5 M² 를 電動機를 使用하는 아이스케키 製造場으로 用途變更할 수 있는지의 여부?

(質疑者: 建築主)

(回信內容)

建築 125~25264 (76. 12. 24)

住居地域에 바닥面積 236.16 M²의 倉庫가 建築當時의 規定에 適合하게 建築許可를 받아 竣工한 建築物이고 그 一部를 電動機를 使用하는 100 M² 未滿의 아이스케키 工場으로 用途變更하려는 경우 用途變更을 하지 아니하는 殘余 倉庫部分의 用途가 아이스케키 製造場과 無關한 때에는 用途 變更이 可能합니다.

(解 說)

大統領令 第8090號(76. 4. 15)로 令이 改正되기 前에는 住居地域에 바닥面積 300 M² 未滿의 自家倉庫를 建築할 수 있었으나 令의 改正으로 바닥面積 165 M² 以上은 建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質疑上의 236.16 M² 인 自家倉庫는 現行法上 住居地域에 不適合한 建築物이다.

그러므로 그 一部를 現行法에 適合하게 “電動機를 使用하는 100 M² 未滿의 工場”으로 用途變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倉庫의 殘余部分도 用途變更된 部分과는 無關한 165 M² 未滿의 倉庫로 되기 때문에 비록 하나의 建築物이 두가지의 用途로 使用된다 하더라도 이 建築物은 現行法令에 適合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같이 建築物 全

체가 地域·地區에 適合하게 되지 않고 一部分이 適合한 用途로 變更 使用하는 경우에도 用途變更許可는 可能하여야 할 것이다.

78. 假設建築物 許可條件의 效力

(質疑要旨)

① 62年度에 法 第47條의 規定에 依據 幅員 25M의 計劃道路敷地에 假設建築物 許可를 받을때 “行政當局에서 撤去命令이 있을 경우에는 撤去하겠다”는 覺書(公證 覺書는 아님)를 提出하였는데 覺書의 內容에 “無補償으로 撤去한다”는 것도 아니며 14年余가 경과되었으므로 그 覺書의 效力이 상실된것으로 보아지며 따라서 許可庁은 撤去補償을 하지 않고 撤去措置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貴見은?

② 위와같은 假設建築物의 当初 建築主가 他人에게 건물을 양도하여 所有者가 바뀌었을 때 現所有者는 建築當時의 覺書에 關係없이 撤去補償金을 받을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內容)

建築 125~25638 (76. 12. 30)

質疑 ①에 대하여

法 第47條 第1項의 規定에 依據 市長·郡守가 都市計劃施設 또는 施設 予定地에 假設建築物을 許可할 때에는 令 第174條 第2項의 規定에 依據 許可者는 假設建築物의 存續期間 其他 必要한 條件을 붙여 許可하게 되는 것임으로 許可當時 “撤去命令時 이의없이 철거하겠다”는 작서를 提出한 경우라면 許可者는 補償金支給의 義務가 없는것이며, 建築許可時에 提出한 覺書의 效力은 同 假設 建築物이 存置하는 限 消滅되지 아니 합니다.

質疑 ②에 대하여

위와같이 許可받은 假設建築物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同 假設建築物의 許可條件은 그대로 有效한 것이며 撤去時 補償金의 支給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79. 他用途의 建築物에 附屬된 工場의 植樹等

(質疑要旨)

準工業地域이고 臨港地區인 垜地에 延面積 407 M²인 建築物의 主用途를 事務室로 하고 그中 148.8 M²는 工場 및 倉庫(水産物의 洗滌 및 貯藏保管)로 使用할 때 이 建築物은 令 第168條의 2의 規定을 適用받아야 하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内容)

建築 125~25729 (76. 12. 30)

主用途가 事務室인 하나의 建築物로 된 工場 및 倉庫 (水産物の 洗滌 및 貯藏保管)는 令 第168條의 2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解 說)

有權解釋의 内容은 主用途가 工場이 아닌 事務室 建物의 一部를 作業場 및 倉庫用으로 使用하고자 할 때 令 第168條의 2 및 第168條의 3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하나의 地에 工場과 다른 用途의 建築物을 別棟으로 建築할 때에는 同一地内の 建築物의 主用途가 工場이 아니라 하더라도 工場으로 使用하는 棟은 令 第168條의 2 및 第168條의 3의 規定을 적용하여야 한다.

80. 屋上 난간벽의 日照遮斷

(質疑要旨)

令 第167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屋上난간벽의 2分の 1 以上이 空間으로 되어있을 때 이 난간벽의 높이를 建築物의 높이에 算入하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内容)

建築 125~25267 (67. 12. 24)

屋上난간벽의 2分の 1 以上을 空間으로 하는 경우에는 令 第3條 第1項 第5号의 規定에 의거 建築物의 높이에 算入하지 아니 합니다. 끝

물 자 절 약

범국민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일환책으로 협회와 각 시도 지부 및 전 회원은 자율적으로 실천수범하자.

1. 수입물자 절약하여 국제수지 개선하자.
2. 근검절약 생활화하여 경제자립 이룩하자.
3. 폐물자 활용하여 국산대체 추진하자.

會 員 動 靜

서울특별시 지부 사무소 이전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송 욱 호	신석건축설계 사무소	서울시 강남구반포동83-1	57-1416	1-848	567	77.1.18
이 상 욱	경도건축연구소	서울시 강남구반포동83-1	57-2120	1-926	581	77.1.18
박 윤 상	신태양건축설계사무소	서울시 강남구반포동83-1	57-9245	1-849	662	77.1.18
박 우 하	경신건축공사	서울시 중구충무로 4 가32-16	26-6612	1-11	568	77.1.18
이 천 승	홍익건축도시계획연구소	서울시 종로구종로 2 가 9	75-8252	1-38	509	77.1.18

서울특별시 지부 명칭변경 및 사무소 이전

송 평 문	벽산건축연구소	서울시 관악구신림동74-32	87-4232	2-1712	414	77.1.18
유 규 성	범양기술연구소	서울시 중구을지로 4 가 910-68	27-1563	1-581	207	77.1.18
문 점 식	동양종합기술공사	서울시 중구필동 2 가53	27-1563	1-509	690	77.1.18

서울특별시 지부 재입회

박 진 규	상신건축설계사무소	서울시 강남구천호동409-28	48-1526	2-1335	450	76.12.31
-------	-----------	------------------	---------	--------	-----	----------

부산직할시 지부 사무소 이전

안 팔 경	남일건축설계사	부산시 부산진구부전동352-14	3-9626	2-1166	259	76.12.20
김 원 주	미건축연구소	부산시 동래구명륜동338-1	52-0432	2-1500	214	76.12.30

경상북도 지부 사무소 이전

김 남 수	공평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0-9	4-8356	1-307	16	76.12.15
김 대 룡	공평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0-9	4-8356	1-767	17	76.12.15
백 봉 상	공평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0-9	4-8356	2-469	44	76.12.15
이 상 익	공평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0-9	4-8356	2-714	714	76.12.15
이 수 일	공평건축연구소	대구시 중구동문동10-9	4-8356	2-1497	46	76.12.15

경상남도 지부 전출

백 금 용	신건축개발공단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406-1	87-4085	1-205	740	76.12.30
-------	---------	------------------	---------	-------	-----	----------

제주도지부 사무소 이전

백 형 철	삼전건축연구소	제주시 3 노리959-1	2567	1-1077	10	76.12.27
강 은 흥	금성종합설계공사	제주시 3 노리959-1	2784	1-1078	4	76.12.27
문 자 원	제주건축설계사무소	제주시 3 노리959-1	6659	2-1528	12	76.12.27

◎ 경기도 지부 부천분소 전화변경 부천시 심곡동 539 (전화) (6) 2982

◎ 충청북도 지부 사무소 이전 청주시 북문로 2가 116-160 (전화) 청주 2752

서울특별시 지부 신입회원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吳 星 根
名 稱 상지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서울시종로구돈의동114- 1
電 話 21-4016
免許番号 1-952
登録番号 1-720
年 月 日 76. 9. 28



本 籍 경상남도
性 名 李 永 根
名 稱 정한기술연구소
所 在 地 서울시 종로구연건동187-1
電 話 72-7449
免許番号 1-631
登録番号 1-737
年 月 日 76. 12. 13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李 載 德
名 稱 강남건축사합동
삼양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 3 가
228 - 23
電 話 64-4413
免許地号 1-375
登録番号 1-744
年 月 日 76. 12. 29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黃 肅 在
名 稱 황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 3 가
220
電 話 64-3112
免許番号 1-1523
登録番号 1-742
年 月 日 76. 12. 27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朴 吉 榮
名 稱 박건축연구소
所 在 地 서울시용산구이촌동302-68
(풍원상가 302호)
電 話 794-8833
免許番号 1-1300
登録番号 1-449
年 月 日 76. 12. 31



本 籍 강 원 도
姓 名 林 道 善
名 稱 예지사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서울시종로구종로 1 가21
(화성B D 501호)
電 話 73-8998
免許番号 1-1346
登録番号 1-739
年 月 日 76. 1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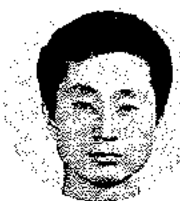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金 英 植
名 稱 비진건축연구소
所 在 地 서울시관악구봉천동433-9
電 話 87-6078
免許番号 1-600
登録番号 1-738
年 月 日 76. 12. 13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金 邦 夫
名 稱 양건축김방부연구소
所 在 地 서울시종로구송인동1256
영화빌딩401
電 話 93-9292
免許番号 2-884
登録番号 2-454
年 月 日 76. 12. 30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車 明 秀
 名 稱 차명수건축연구소
 所 在 地 서울시 강남구 천호동 410-168
 電 話 48-0422
 免許番号 1-1335
 登録番号 1-743
 年 月 日 76. 12. 29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羅 炳 寅
 名 稱 동아건축나병인건축연구소
 所 在 地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76의57
 電 話 ()
 免許番号 2-1332
 登録番号 2-455
 年 月 日 76. 12. 30

부산직할시 지부 신입회원



本 籍 경상남도
 姓 名 姜 信 七
 名 稱 신진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부산시 부산진구 모라동 794-8
 電 話 9-1935
 免許番号 2-1673
 登録番号 2-북부 2
 年 月 日 76. 12. 30



本 籍 부산직할시
 姓 名 朴 在 平
 名 稱 삼익·에이스건축설계사
 所 在 地 부산시 남구 대연동 327-12
 電 話 66-6425
 免許番号 2-1733
 登録番号 2-남구 27
 年 月 日 76. 12. 29

전라남도 지부 신입회원



本 籍 전라남도
 姓 名 金 堵 中
 名 稱 일신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전남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39
 電 話 ()
 免許番号 1-347
 登録番号 1-1
 年 月 日 76. 12. 4



本 籍 전라남도
 姓 名 金 賢 秀
 名 稱 김현수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전남순천시 장청동 58-2
 電 話 4430
 免許番号 2-256
 登録番号 2-2
 年 月 日 76. 12. 11



本 籍 전라남도
 姓 名 梁 東 俠
 名 稱 동립건축연구소
 所 在 地 전남광주시 금남로 2가 23
 電 話 ()
 免許番号 2-1728
 登録番号 2-40
 年 月 日 76. 12. 28

경상북도 지부 신입회원



本 籍 경상북도
 姓 名 李 洛 晶
 名 稱 대영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경북대구시 비산동 415-5
 電 話 ()
 免許番号 2-860
 登録番号 2-7
 年 月 日 76. 12. 30

一線將兵 慰問冊字 傳達

本協 李圭福 會長은 지난 24日 徐載寬 事務處長과 함께 會員들의 精誠으로 贈어진 一線將兵 慰問冊字 포-토 南北誌 150부를 直接 國防部로 國防次官이 同席한 자리에서 將兵들의 勞苦를 작으나마 慰勞 激勵해 달라는 뜻으로 傳達 하였다.

직원 근무태세 및 기강 확립에 대한 회장 특별지시

본협 이규복 회장은 지난 1월 7일 본부 및 11개지부 사무처 전직원의 근무 자세 확립을 위한 다음과 같은 7개항의 업무 지시를 하였다.

이 지시는 정부시책의 서정채선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엄수 되어야 하며 이를 생활화하는 과정에서 추호라도 소홀하거나, 태만하는 자에게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제 규정을 적용 강력조치 하겠다고 하였다.

特別指示 7個項

1. 근무시간엄수 (출, 퇴근 점심시간)
(76. 10. 27 총무 120-832)
2. 근무중 이석금지 (불가피할 경우 상사의 허락을 필히 득할 것)
3. 다방 출입금지
4. 도시락 지참(외식금지)
5. 맡은바 임무에 충실할 것(연구, 개발)
6. 회원에게 최대한으로 성실히 봉사할 것.
7. 위반 적발시는 제규정에 의거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한다.

寫眞說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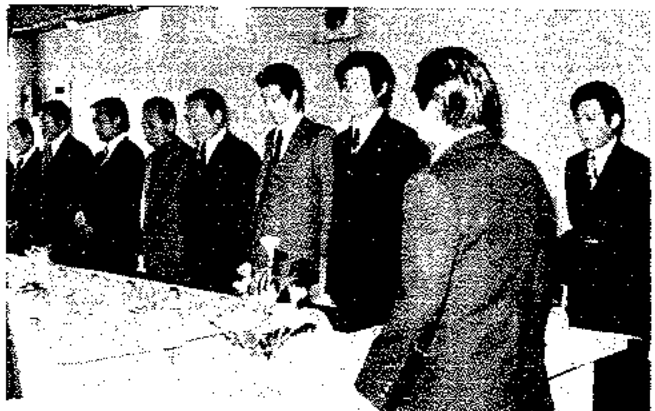
- ① 國防部 次官에게 慰問品을 傳達하는 李圭福 會長
- ② 도시락을 持參하여 事務室에서 점심을 들고 있는 事務處 職員
- ③ 1977年度 始務式光景
- ④ 第1回 庶政刷新 促進 및 全國支部長 會議 光景



①



②



③



④

月間協會動靜

제1회 이사회(정기)

일 시: 1977. 1. 7 15:00시

장 소: 협 회 회의실

출 석: 회 장 이 규 복

총무이사 박 성 규

이 사 김두섭, 정효환, 성일영

감 사 박래운, 김종민

지 부 장 이봉로(서울)

부의안건: ① 북부 분소장(서울지부)취임 승인의 건

② 각 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

③ 직원 봉급 기준표(호봉) 조정의 건

④ 직원 봉급 조정의 건

⑤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제심 청구의 건.

⑥ 기 타 사 항

제2회 이사회(임시)

일 시: 1977. 1. 19 14:00시

장 소: 협 회 회의실

출 석: 회 장 이 규 복

총무이사 박 성 규

이 사 김두섭, 정효환, 성일영

감 사 박래운, 김종민

부의안건: ① 임시총회 개최 일정 결정의 건

② 직원봉급 기준표(호봉) 조정의 건

③ 직원 봉급 조정의 건

④ 직원 상해보상에 관한 건

⑤ 기 타 사 항

제1회 편찬위원회

일 시: 1977. 1. 20 16:00시

장 소: 본 회 회의실

출 석: 위 원 장 김 두 섭

위 원 김진일, 이문보, 이경희, 신현식

유경철, 황일인, 안기태, 김인석

부의안건: ① 76년도 12월호 합평 및 77년도 1월호 편
집계획안토의.

② 기 타 사 항.

■ 본協會 理事会는 77年度 第1회 會議를 지난 1월 7일 召集 任期가 끝난 5個分科 委員長을 留任 시키고 各委員 人選은 各分科委員長에게 委任했다.

留任된 各分科委員長

指 導 委 員 長 李圭福 (現本協會長)

企 劃 委 員 長 朴成圭 (本協總務理事)

編 纂 委 員 長 金斗燮 (本協理事)

建築研究委員長 成一永 (本協理事)

倫 理 委 員 長 金柄憲 (本協顧問辯護士)

■ 또한 理事会는 北部分所長 朴來運氏 後任에 被選된 趙泰雄氏의 就任을 承認하였다.

■ 盧炳健 前事務處長의 後任으로 徐載寬氏가 1월 10일 부로 兪令되어 業務를 管掌케 되었다.

本會 安義模 總務部長은 지난 4일 公務遂行中 公傷으로 安國洞所在 韓國病院(233호실)에 入院加療中에 있다.



新任 事務處長

略 歷

1926年 3月 15日生

壇國大學校 法政大學 卒業

陸軍士官學校 第2期 卒業

陸軍大學 卒業

美國指揮參謀大學 卒業

師團長 歷任

大韓綜合食品株式會社 理事歷任

大韓射擊聯盟副會長 歷任

建築許可統計

用途別 月別許可統計 前年対比

單位：棟 数：棟

延面積：평방미터

月別	区分	'75		'76		延面積 對比%
		棟 数	延 面 積	棟 数	延 面 積	
1		5,178	842,326	3,914	783,869	93.1
2		6,891	1,177,437	6,580	1,142,075	97.0
3		14,735	1,813,310	27,086	3,752,516	206.9
4		16,668	2,119,282	11,704	1,782,776	84.1
5		13,264	2,288,367	7,855	1,502,443	62.9
6		9,549	1,592,228	8,057	1,172,867	73.7
7		8,407	1,235,625	6,911	1,208,134	97.8
8		9,244	1,463,313	8,060	1,545,640	105.6
9		10,062	1,622,701	8,254	1,365,963	84.2
10		12,116	1,735,945	9,870	1,392,764	80.2
計		106,114	15,990,534	99,291	15,649,047	97.9

單位：棟 数：棟

延面積：평방미터

用途別		10 月			1 ~ 10 月		
		'75	'76	對比(%)	'75	'76	對比(%)
住 居 用	棟 数	10,099	7,620	75.5	90,084	79,618	88.4
	延面積	1,017,535	711,009	69.9	10,316,920	8,656,796	83.9
商 業 用	棟 数	1,202	1,181	98.3	9,348	10,594	113.3
	延面積	273,070	230,287	84.3	2,189,499	2,634,209	120.3
工 業 用	棟 数	305	325	106.6	2,399	3,679	153.4
	延面積	311,395	267,872	86.0	2,253,524	2,877,579	127.7
文 教 社 会 用	棟 数	136	174	127.9	1,445	1,414	97.3
	延面積	74,599	96,304	129.1	747,280	757,895	101.4
기 타	棟 数	374	570	152.4	2,838	3,986	140.5
	延面積	59,346	87,292	147.1	483,311	722,568	149.5
計	棟 数	12,116	9,870	81.5	106,114	99,291	93.6
	延面積	1,735,945	1,392,764	80.2	15,900,534	15,649,047	97.9

構造別許可統計 및 前年対比

單位：棟 数：棟

延面積：평방미터

用途別		10 月			1 ~ 10 月		
		'75	'76	對比%	'75	'76	對比%
鉄 筋 骨 鉄	棟 数	1,219	972	79.7	9,782	10,846	110.9
	延面積	723,186	534,438	73.9	6,985,158	7,067,286	101.2

組 積 組	棟 数 延面積	9,953 922,046	7,867 757,240	79.0 82.1	87,217 8,232,361	79,959 7,735,874	91.7 94.0
木 組	棟 数 延面積	339 29,253	293 21,304	86.4 72.8	3,117 219,403	3,200 251,215	102.7 114.5
기 타	棟 数 延面積	605 61,460	738 79,782	122.0 129.8	5,998 553,612	5,286 594,672	88.1 107.4
計	棟 数 延面積	12,116 1,735,945	9,870 1,392,764	81.5 80.2	106,114 15,990,534	99,291 15,649,047	93.6 97.9

市道別 月別 許可 前年対比

單位：棟 数：棟

延面積：평방미터

市道別		10 月			1 ~ 10 月		
		'75	'76	對比%	'75	'76	對比%
서울特別市	棟 数	3,235	2,560	79.1	37,160	30,912	83.2
	延面積	505,944	400,218	79.1	6,581,759	5,645,923	85.8
釜山直轄市	棟 数	1,364	1,159	85.0	12,755	10,697	83.9
	延面積	157,036	158,931	101.2	1,891,253	1,873,888	99.1
京 畿 道	棟 数	2,074	2,013	97.1	14,039	16,399	116.8
	延面積	285,492	314,058	110.0	2,050,575	2,514,965	122.6
江 原 道	棟 数	583	220	37.7	2,756	2,061	74.8
	延面積	50,185	25,015	49.8	248,185	265,427	106.9
忠 清 北 道	棟 数	320	269	84.1	3,760	3,358	89.3
	延面積	27,192	22,907	84.2	371,403	339,679	91.5
忠 清 南 道	棟 数	540	355	65.7	5,358	4,869	90.9
	延面積	65,714	36,648	55.8	569,396	495,193	87.0
全 羅 北 道	棟 数	555	338	60.9	3,664	3,553	97.0
	延面積	79,263	26,945	34.0	400,743	335,617	83.7
全 羅 南 道	棟 数	691	638	92.3	5,413	6,030	111.4
	延面積	81,727	64,154	78.5	555,340	653,978	117.8
慶 尚 北 道	棟 数	1,465	1,046	71.4	11,861	11,207	94.5
	延面積	198,285	179,091	90.3	1,797,788	1,619,634	90.1
慶 尚 南 道	棟 数	946	935	98.8	7,066	7,136	101.0
	延面積	257,471	139,075	54.0	1,346,258	1,674,307	124.4
濟 州 道	棟 数	343	337	98.3	2,282	3,069	134.5
	延面積	27,636	25,722	93.1	177,834	230,436	129.6
計	棟 数	12,116	9,870	81.5	106,114	99,291	93.6
	延面積	1,735,945	1,392,764	80.5	15,990,534	15,649,047	97.9